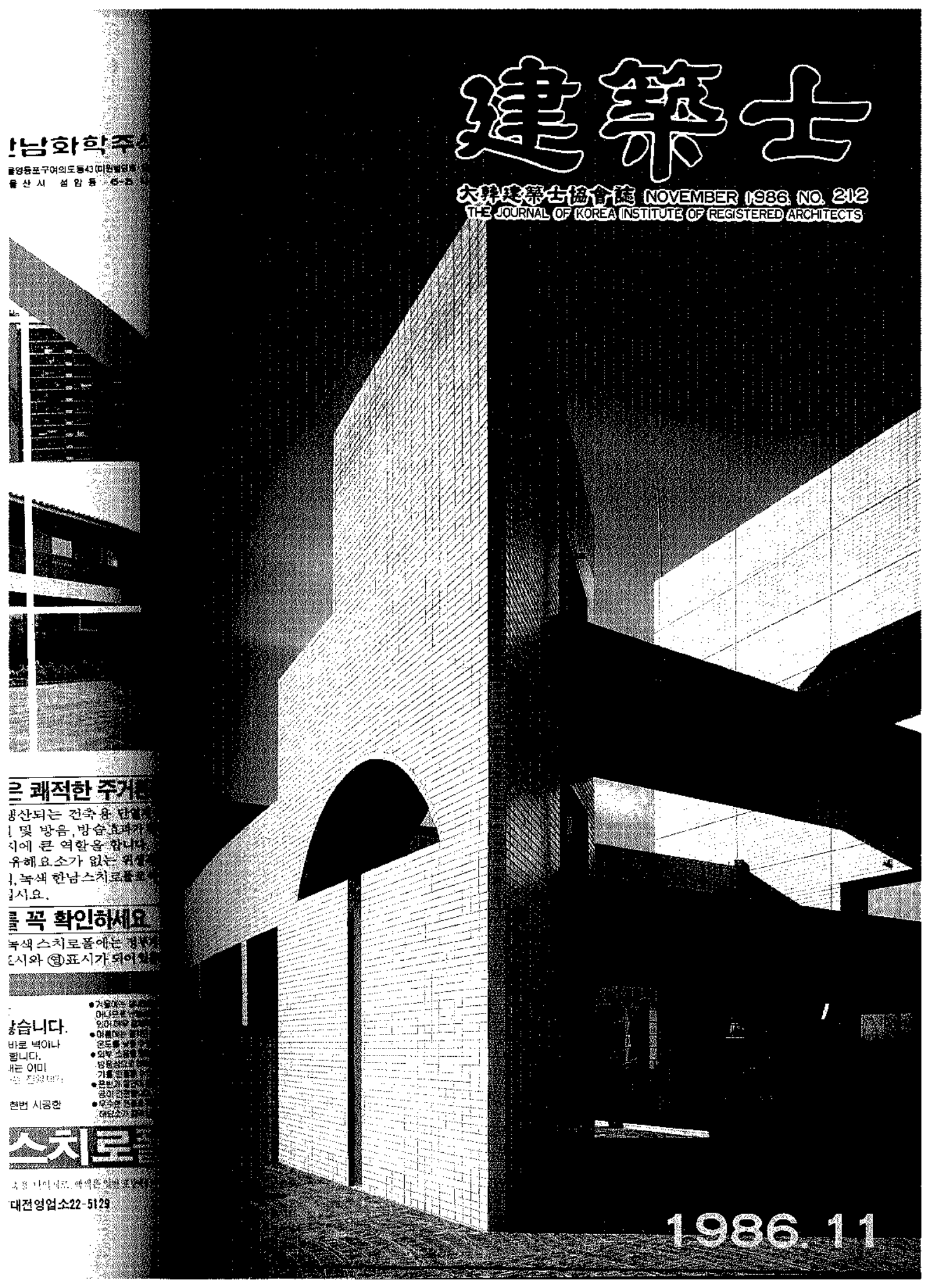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NOVEMBER 1986. NO. 212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30년 동안 연료비 없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쏠라하트"의 집을 설계해 보십시오

80년 역사의 호주 "쏠라하트사"가 30년에 걸친 연구끝에 완성시킨 획기적인 태양열 온수 시스템— "쏠라하트".
이미 세계 60여개국에서 그 성능과 경제성이 입증되었듯이, 단 하루만에 설치하여 30년 동안 연료비 없이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이제 "쏠라하트"로 주택의 가치를 더욱 높여 보십시오.
"쏠라하트"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태양열 온수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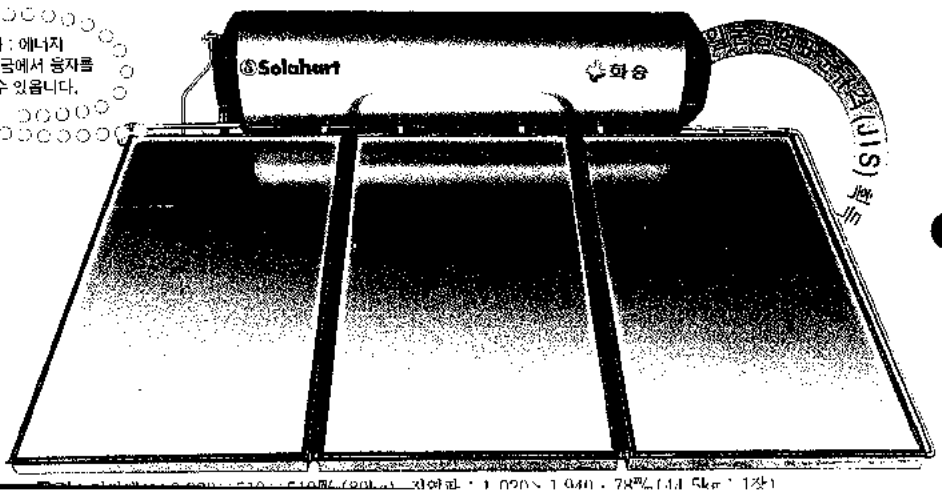
1.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2. 최적의 일조량으로 하루 최고 43°C~80°C의 온수 300ℓ를 공급합니다.

1. 24시간만에 간단히 설치됩니다. 2. 수도꼭지만 틀면 온수가 나오므로 사용이 간편 합니다. 3. 아프터 서비스가 철저합니다.

1. 고장없이 30년간 사용할 수 있읍니다. 2. 철저한 보온설계로 동파 되지 않습니다. 3. 장마철과 혹한을 대비 보조히터가 내장되어 있읍니다.

1. 30년의 연구·노력으로 완성된 제품으로 세계 60여개국에서 사용합니다.

• 융자 : 에너지 합리화 기금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 본사 :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대표) ☎757-8711, 757-9711 ● 부산 :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6가 69번지 ☎462-1421~8 ● 상설전시장 : 서울546-7471~2
■ 대리점 : 서울(서부) 313-8688, 8383, (동부) 424-9501/2, 인천93-7106, 수원32-1486~8, 대전 253-8989, 254-4949, 춘천 53-3442, 부산 83-9342, 82-6429, 광주365-6766, 이리 52-5919, 제주 27-5176, 진주 72-1930

세계적인 태양열 온수시스템

화승 쏠라하트

북괴는 「금강산 댐」건설을 즉각 중지하라!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를 쓸모있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 줄 책무를 지닌 우리 건축사회원일동은 작금의 국내 급진 좌경세력에 의한 소란과 밖으로는 남침목적이 분명한 북괴의 금강산 댐 건설로 국가의 안위가 도전받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북괴가 조국강토를 수장하여 민족을 말살하려는 악랄한 수법임을 단정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1. 북괴는 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을 외면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전혀 없는 「금강산 댐」을 건설한다는 미명으로 수마에 의한 적화통일을 꾀하려는 흉계를 즉각 중단하라.

2. 북괴는 자자손손이 살아온 조국의 중심부인 서울·경기·강원지역을 수마로 강타하여 이를 황폐화·고립화시켜 그들의 적화통일 흉괴의 교두보로 삼을려는 「금강산 댐」건설의 흉괴는 천인공로할 민족말살의 공적행위이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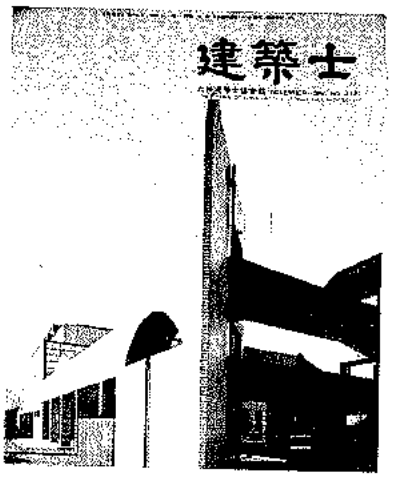
3. 우리는 북괴의 「금강산 댐」공사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 이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성을 도외시한 무모한 공사라는 결론을 얻고 만약 북괴가 이러한 댐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우리건축사회원 일동은 모든 힘을 합쳐 북괴보다 앞선 기술과 과학적인 장비를 동원하여 그들 공사를 무력화하여 결과적으로 북한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4. 우리 조국강토는 한민족이 억만년 이어갈 천혜의 보금자리로써 만약 북괴의 댐 공사로 금강산 주변의 빼어난 경관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조국산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괴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5.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자유민은 북괴의 천인공로할 한반도의 대살륙 음모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6. 우리는 최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일체의 급진좌경용공세력을 경계하고 아울러 국민 모두가 반공 구국정신으로 재무장하여 북괴의 금강산 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일치 단결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일동 —



표지설명 :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수원)
설　　계 : 윤승중 · 변 용
사　　진 : 정정웅 사진연구소

建築士

차　　례

1986년 11월호(통권212호)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수상작 발표

10 대상 :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윤승중 · 변 용
12 최우수상 : 성심여자대학 소피바라관……강석원
14 우수상 : 아시안게임 선수촌……조성룡 · 문정일
15 우수상 : 반포 로우하우스……우남용
16 장려상 : 신원빌딩……박영호
17 장려상 : 대구 파크호텔……김성환
18 장려상 : 대구은행 본점……김성철
19 장려상 : 패션스토아 옥동……김춘웅
20 장려상 : 3세대를 위한 집……손명문
21 장려상 : 연희동 Y 씨댁……송광섭

제16대회장 취임사

6 재도약을 기약하며……안기태

이달의 시

8 공간의 천재들……조병화

제21회 정기총회

23 개회사……오웅석
25 건설부장관 치사……이규효
27 일본건축사회연합회장 축사……太田和夫
28 대한건축학회장 축사……이광노
29 한국건축가협회장 축사……유희준
30 국회건설위원 축사……김현수
31 정기총회소식

53 '86회원건축설계작품심사를 마치고
38 신임임원 취임인사
40 일본건축사 전국대회 참관기……김기수
42 제2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김지덕
49 제2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 다녀와서……전봉수
57 신인 · 학생건축설계작품전 수상작 발표
72 신인 · 학생건축설계 작품전 심사를 마치고

연구보고

78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박상동 · 서보광

리포트

86 사진으로 보는 싱가폴(2) 공동주택과 단지설계……이필원

94 **협회소식**

발 행 인 안 기 태
편　　집 출판사업부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안 장 원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강 철 구
위　원 서 천 식
위　원 김 기 웅
위　원 윤 석 우
위　원 여 홍 구
전문위원 안 상 수 (디자인)
전문위원 임 정 의 (사 진)

발　　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　　화 :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23일
U.D.C. 69/72(054－2) : 0612(519)
인　　쇄 : 광문정판사
인 쇄 인 : 전윤규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12호
구입년월일 1986.11.3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November 1986 Vol. 212

PRIZE WINNER OF THE EXHIBITION OF ARCHITECTS DESIGN WORKS IN 1986

Seong Kyun Kwan University Gymnasium ····· by Yoon, Seung Jung & Byun, Yong 10
Sophie Barat Hall in Sacred Heart Woman College ····· by Kang, Suk Won 12
The Athletes' Village and Memorial Park for 10th Asian Games by Joh, Sung Yong & Moon, Jung Il 14
Banpo Row House ····· by Woo, Nam Yong 15
Shinwon Building ····· by Park, Young Ho 16
Daegu Park Hotel ····· by Kim, Sung Hwan 17
The Daegu Bank Headquarters ····· by Kim, Jung Chul & Hong, Sung Lin 18
Fashion Store Ok-Dong ····· by Kim, Choon Woong 19
Residence for 3 Generation ····· by Son, Myung Moon 20
Yeonhee-Dong Y's Residence ····· by Song, Kwang Seob 21

CHAIRMAN'S INAUGURAL ADRESS ····· An, Kie Tae 6

POME

Dedicated Song for Architects ····· Cho, Byung Wha 8

THE 21st. GENERAL MEETING

Opening Adress ····· Oh, Woong Suk 23
Congratulatory Adress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 25
The Chairman of 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s Assocaition ····· 27
The Chairman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28
The Chairman of the Korea Institute of Architects ····· 29
Th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truction Committee ····· 30

DETAILS OF THE 21st GENERAL MEETING ····· 31
INAUGURAL ADRESS OF THE NEW OFFICERS ····· 38
REPORT / THE GENERAL MEETING OF 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S ASSOCIATION ····· Kim, Ki Soo 40
INFORMATION / THE 2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Kim, Chi Duk 42
IMPRESSION OF THE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Jeon, Bong Soo 49

THE 1st EXHIBITION OF THE NEW FIGURES AND COLLEGE STUDENTS' ARCHITECTURAL DESIGN WORKS

The Prize Winner ····· 57
Judging Comment ····· 72

TREATISE

Airflow Window System ····· Park, Sang Dong · Seo, Bow Kwang 78
City of Singapore (as Seen) in Picture ····· Lee, Pil Won 86

KIRA NEWS ····· 94

Publisher: An, Kie 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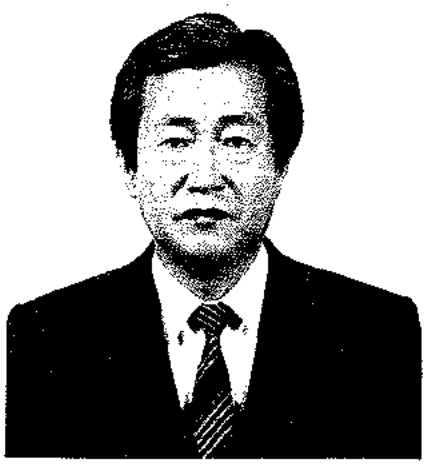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Chul Koo
Suh Chun Sik
Kim Ki Woong
Yun Suk Woo
Yuh Hong Koo
Consultant: Ahn Sang Soo (Layout)
Lim Jeong Eui (Photograph)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72(054-2) :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재도약을 기약하며 …

존경하는
전국의 시도지부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지난 10월30일 개최되었던 제21회 정기총회에서
본인을 제16대 회장에 선출 되도록 후의를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오늘날,
21년의 연륜과 2천5백여 회원을 헤아리는 대협회로 발전
하였읍니다.
이는
그동안 역대회장을 비롯, 본부 및 시도지부 임원과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봉사하여 주신 결과임을 생각할때
다시한번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우리 협회가 이처럼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기록하는 동안
내부적으로 발생된 문제라든가,
사회발전 속도에 조화되지 못하는 건축사 업무에 대한
외부적 여건이라든가
해결해야 할 허다한 현안을 안게된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풀어야 할 이러한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 건축사의 업무발전 속도를 늦추고 사회에서의
권익증진을 저해하며,
종국에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은
이러한 때 본인을 회장으로 선출해 주시면서
회원 여러분이 본인에 대해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그 뜻을 받들어
주어진 2년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2천5백여 회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외적으로

첫째,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여건과 조화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능동적으로 건의, 추진함으로써 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신뢰 확보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특히 회원 업무 수행중 발생한 문제로 건축사가 지게되는 불공평한 처별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둘째, 건축사 업무영역의 침식(侵蝕)을 방지하며 권리를 견실하게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조직과 구조는 급속도로 전문화와 세분화의 추세로 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시류(時流)에 편승하여 건축사 고유업무의 영역을 침식하고자 하는 기운이 여러 경로를 통해 높아가고 있읍니다.
본인이 같은 움직임을 저지하고 건축사 고유업무의 영역을 더욱 보호하고 육성하여 회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째,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건축사 특별전형시험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현행 건축사 특별전형시험은 당초의 목적을 이탈하는 인상이 짙어 우리 회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궤도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매년 각급학교에서 3천9백여명씩 배출되는 건축전공 졸업생에 대한 대책 강구를 위해서도 선진국의 시험제도 관리 예(例)를 참고하여 건축 3단체 합심하에 제도를 보완하고 조정하도록 힘 쓰겠읍니다.

다음
대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협회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원여러분의 여망(輿望)을 받들어 각 시도 건축사 복지회를 재정립 함으로써 발전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현존하는 각 지역의 특성과 회원의 연령 및 업무에 따른 다양성을 살리면서 전국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펼쳐 나감으로써 복지사업의 이상화를 구현하겠읍니다.

둘째, 협회의 예산제도를 효율화 하겠읍니다.
협회가 추진하여야 할 본연의 사업을 한층 활성화 하며 동시에 예산을 최대로 효율화할 수 있도록 양자의 조화점 위에서 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면밀히 검토·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자동화와 인력의 극대화를 꾀하여 회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서의 본부 사무처 및 지부 사무국의 업무처리 능률을 높일 것입니다.

본인은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많은 문제의 해결과 침묵하는 다수 회원의 바람(願)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회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주변여건의 개선에 쏟는 정열못지 않게 우리 스스로의 내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우리 건축사계의 풍토를 흐리는 각종 부조리의 발생은 극히 소수 회원에 의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일부 회원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행태가 선의의 대다수 회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가운데 자기 순화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회원 상호간에 평소 우애와 신으로써 협동 단결하여 비위회원의 발생을 예방하고,
불행하게도 회원의 불미스러운 행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먼저 동지적 입장에서 선도하도록 노력하여 돌이키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고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자랑스러운 건축사상을 정립해 가는데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다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전국의 시도지부 임원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심기일전하여 제도약을 기약하는 엄숙한 선서가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만 취임사에 갈음 합니다.

1986. 1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안 기 태

공간의 천재들

— 대한의 건축사들에게 —

조병화 / 예술원 회원

요즘 、우리나라의 주택들은 갑자기
아름다운 새들의 둥지처럼
쾌적한 공간에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

우리들의 현대생활이
그렇게 급변함에 따라
주택들도 그렇게 그걸 따르겠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이 이렇게
발달함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설계에 있어서、그 시공에 있어서
그 실용적 예술성에 있어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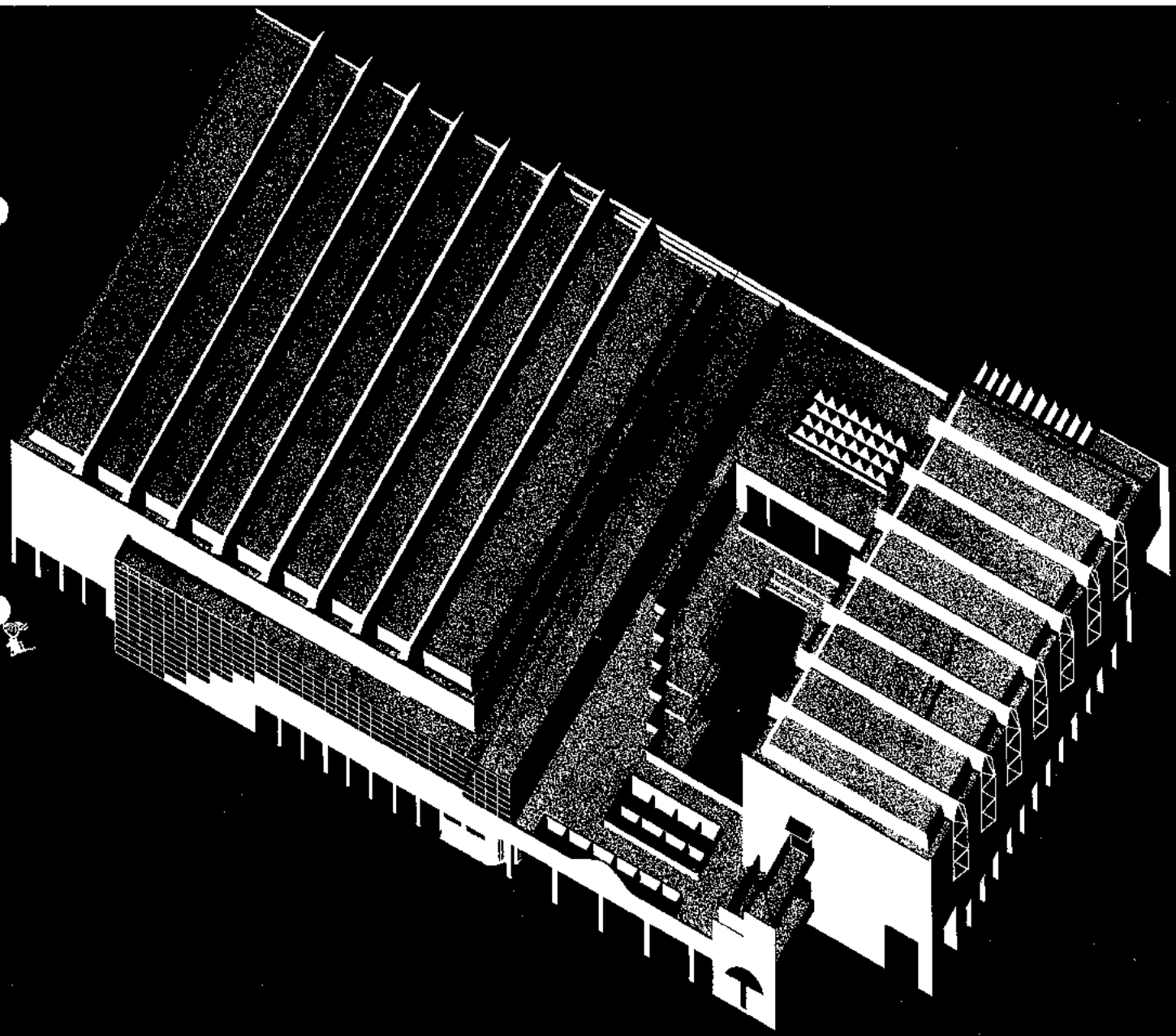
또한 도시건물들에 있어서도 그렇다
어마어마하게 하늘로 솟는
건물들이
제대로의 모양을 가추어
현대한국을 이루어가는 모습
장하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투철한 두뇌와
고급한 지식、
그 슬기로운 지혜가 만들어내는
이 작업들
실로 쾌적한 생활과 기업의 공간
있는 것이 빛이요、색이요、창작이다。

생각하는 회열과
창작하는 회열과
일하는 회열、
건축사들은 그 공간의 천재들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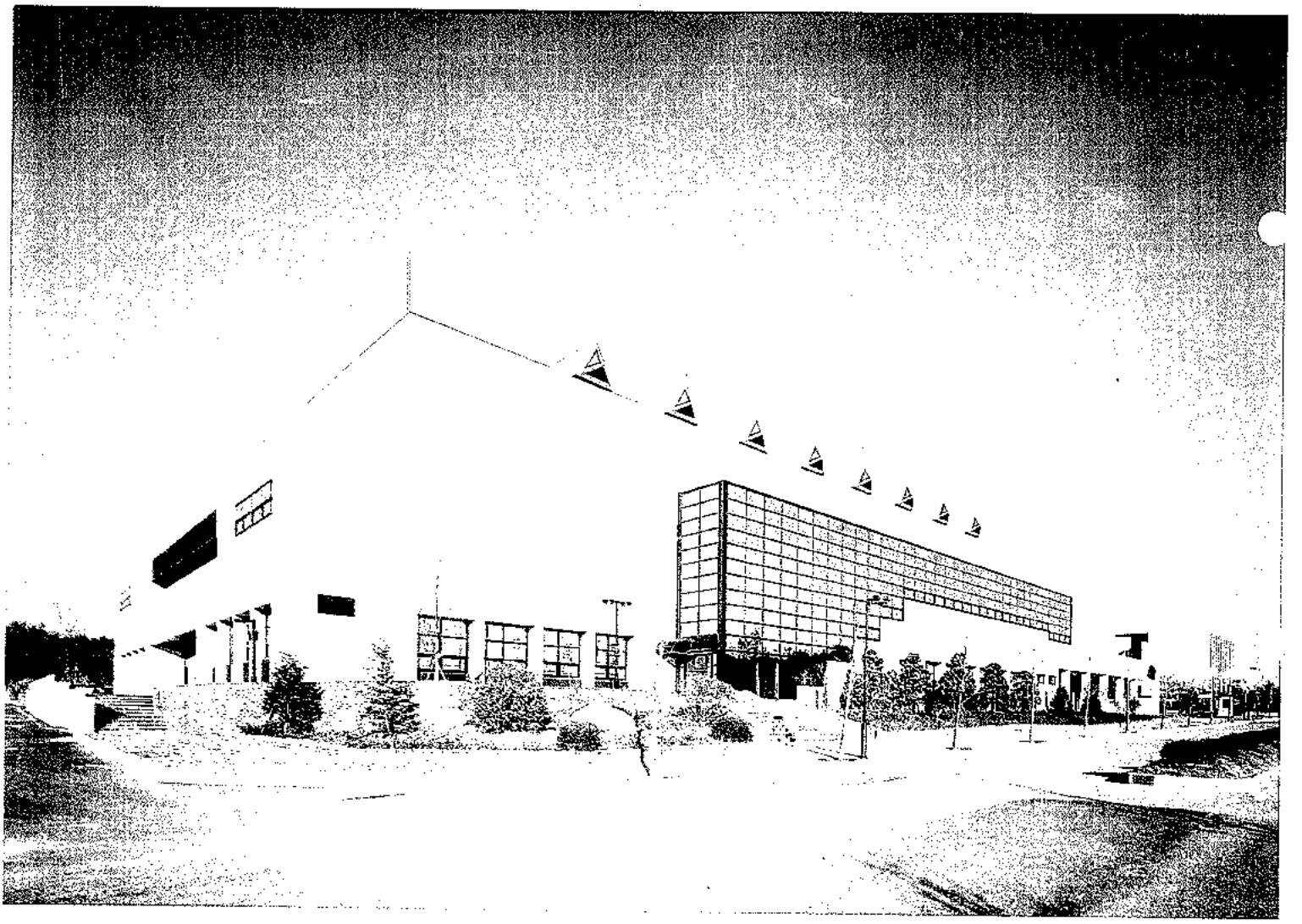
보다 아름다워라
보다 쾌적하여라
보다 견고하여라。

1921년 5월 2일,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에서 趙斗元의 5男으로 출생. 모친 陳鏞, 아호 片雲.
1943년 (22세) : 경성사범학교 졸업.
1945년 (24세) : 東京高等師範學校에서 물리화학 전공.
1959년 (38세) : 경희대 교수, 초대 출판국장, 해방후부터 교직에 종사하여 그간 경성사범, 인천 제물포고교, 서울고교 교사 및 중앙대, 이화여대, 연세대 강사 역임.
1960년 (39세) : 아시아자유문학상 수상.
1969년 (48세) : 경희대 문화상 수상.
1970년 (49세) : 국제펜클럽 서울대회 재정위원장.
1972년 (51세) : 경희대 문리과대학장 취임.
1974년 (53세) : 대華학술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
1976년 (55세) : 국민훈장 동백장 받음.
1979년 (58세) : 제 4 차 세계시인대회 회장.
1980년 (59세) : 경희대 교육대학원 원장.
1981년 (60세) : 인하대 문과대학 초대 학장, 세계시인대회 계관시인 피선. 제30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
1982년 (61세) : 인하대 부총장 피임. 중앙대 명예문학박사 학위 받음. 한국시인협회 회장 피선.
1984년 (63세) : 인하대 대학원 원장 취임. 세계시인대회 국제위원 피선.
1985년 (64세) : 대한민국 예술원상(작품상)수상.



'86회원건축설계작품공모전 입상작 발표

대 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윤승중·변 용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원도시건축
최우수상	**성심여자대학교 소피바라관**	강석원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우 수 상	**아시안게임 선수촌**	조성룡 /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우 수 상	**반포 로우하우스**	우남용 / 가나 건축사사무소
장 려 상	**신원빌딩**	박영호 / 환경동인·의전 건축사사무소
장 려 상	**패션스토아 옥동**	김춘웅 / 상지·필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려 상	**대구은행 본점**	김정철·홍성린 / (주)정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려 상	**대구 파크호텔**	김성환 / 협동 건축사사무소
장 려 상	**연희동 Y씨댁**	송광섭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장 려 상	**3세대를 위한 집**	손명문 / 건축사사무소 건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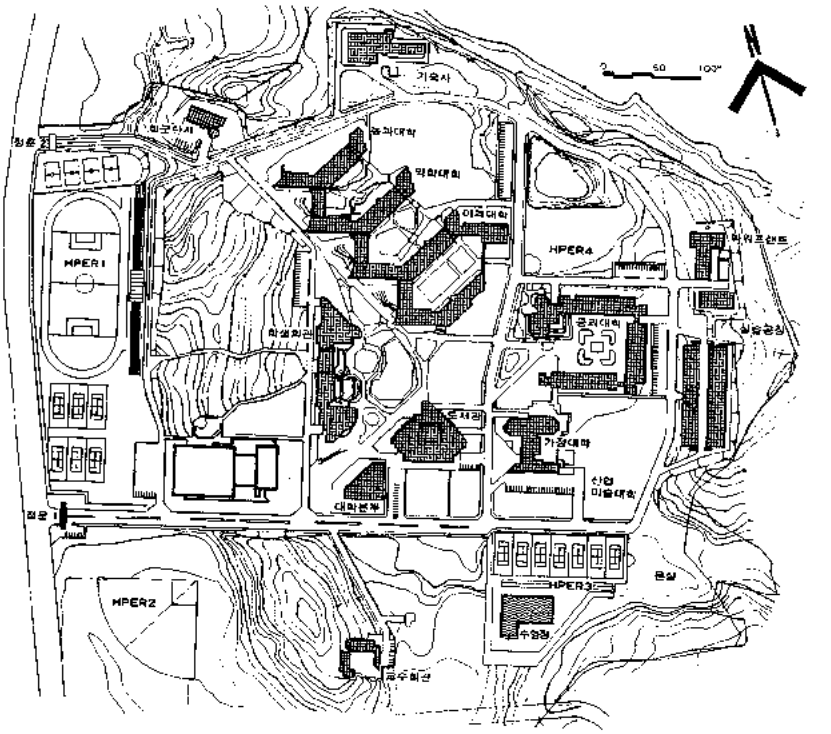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내(건설부장관상) 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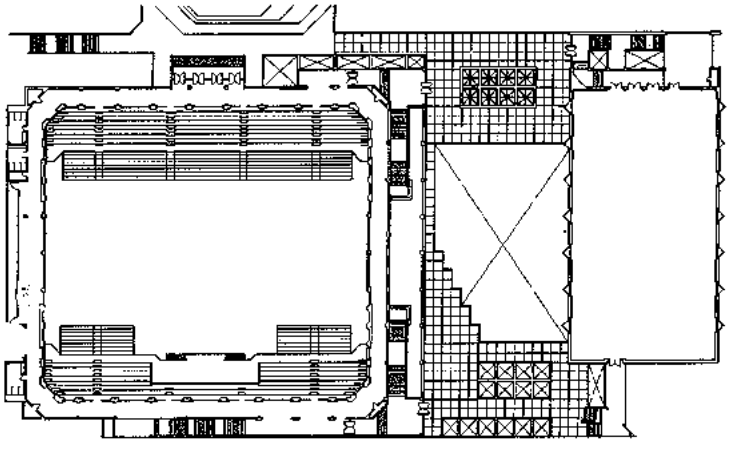
Sung kyun kwan University Gymnasium

윤승중·변 용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by Yoon, Seung-Joong · Byun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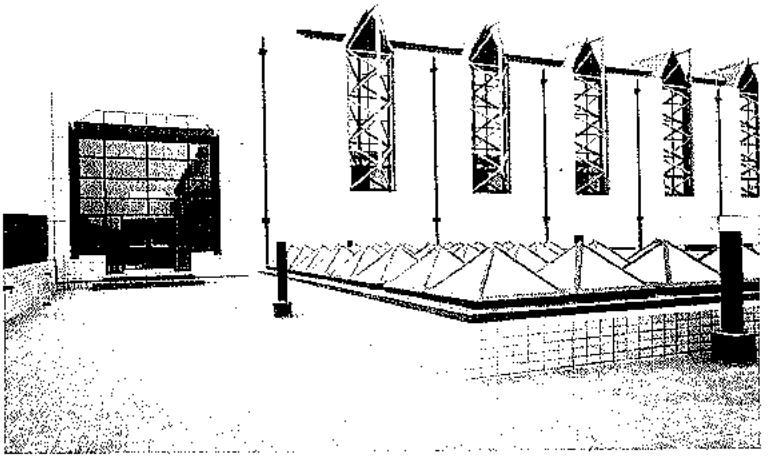
대지위치 : 수원시 천천동
대지면적 : 495,000㎡
연면적 : 10,150㎡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파이프 트러스
외부마감 : 벽 – 세라믹타일, 18㎜반사유리
지붕 – 석면수지피복강판판 단
내부마감 : 바닥 – 단풍나무, 폴리우레탄코팅
벽 – 적벽돌치장쌓기, 수성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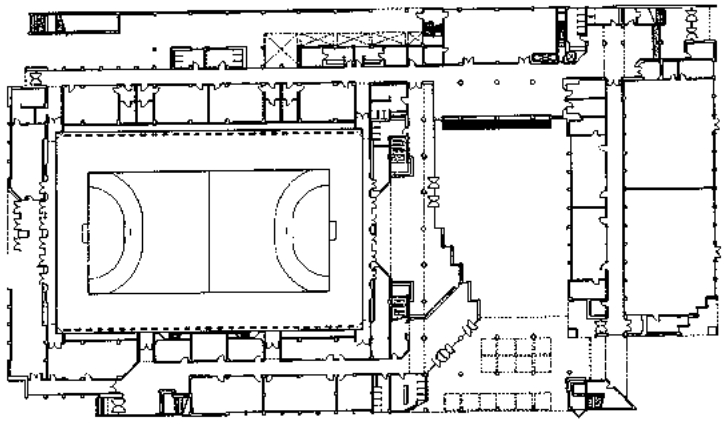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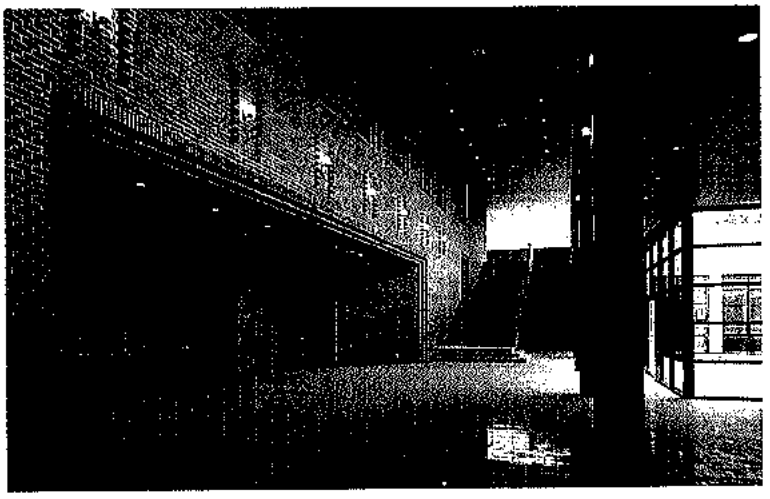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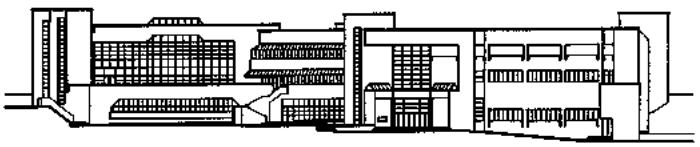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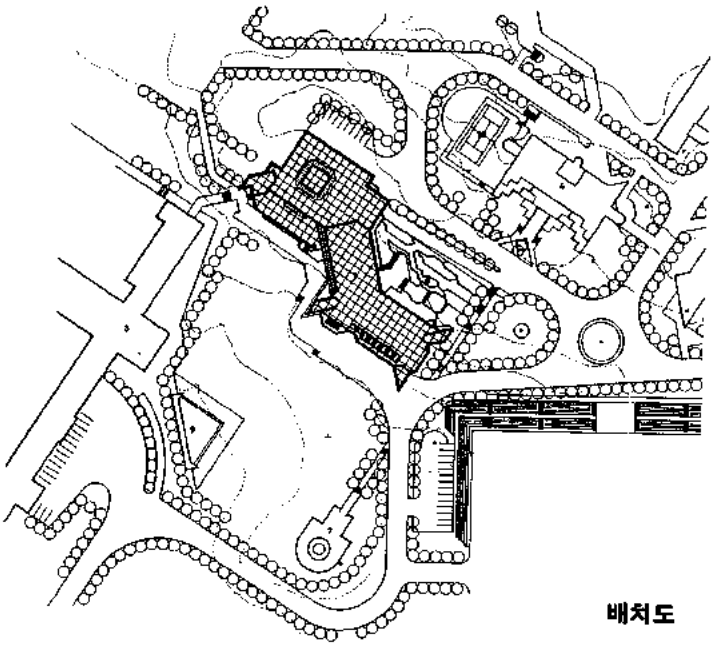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최 우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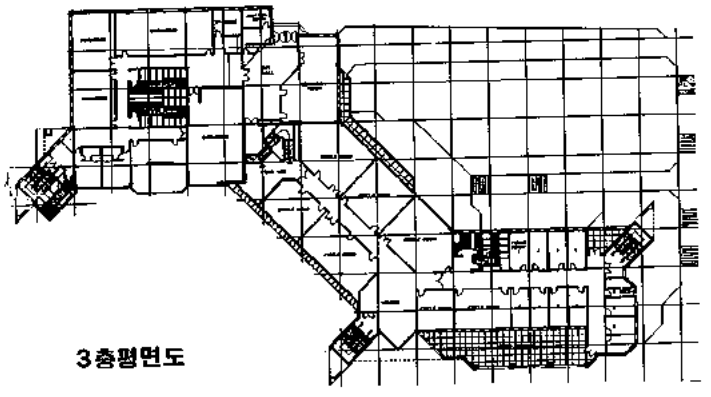
성심여자대학 소피바라관
Sophie Barat Hall in Sacred Heart Woman Colle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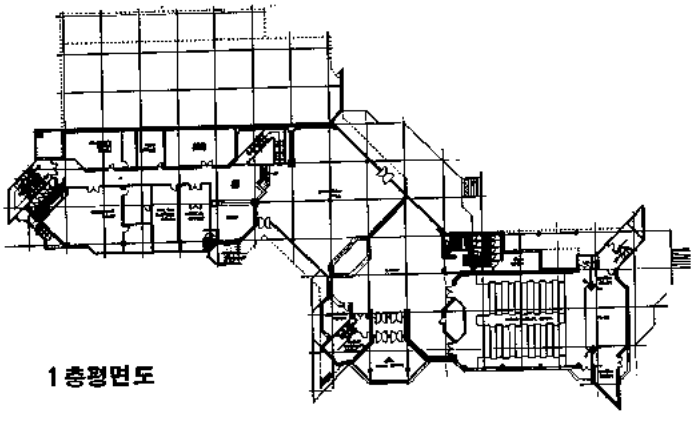
강석원 / 건축사사무소 그룹가
by Kang, Suk-Won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대지면적 : 244,625㎡
건축면적 : 2,153.95㎡
연면적 : 6,902.52㎡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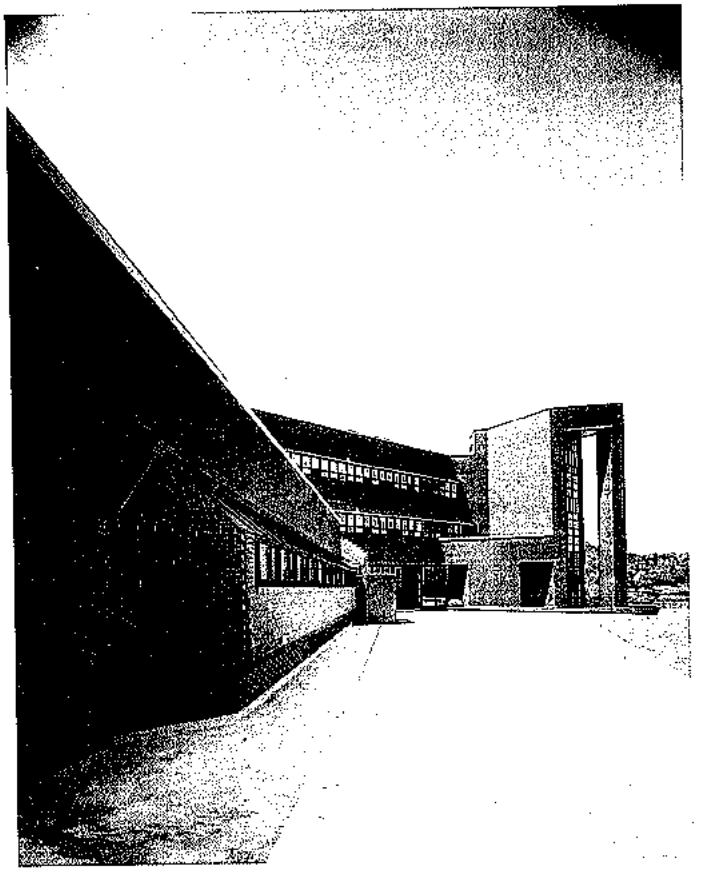

배치도



3층평면도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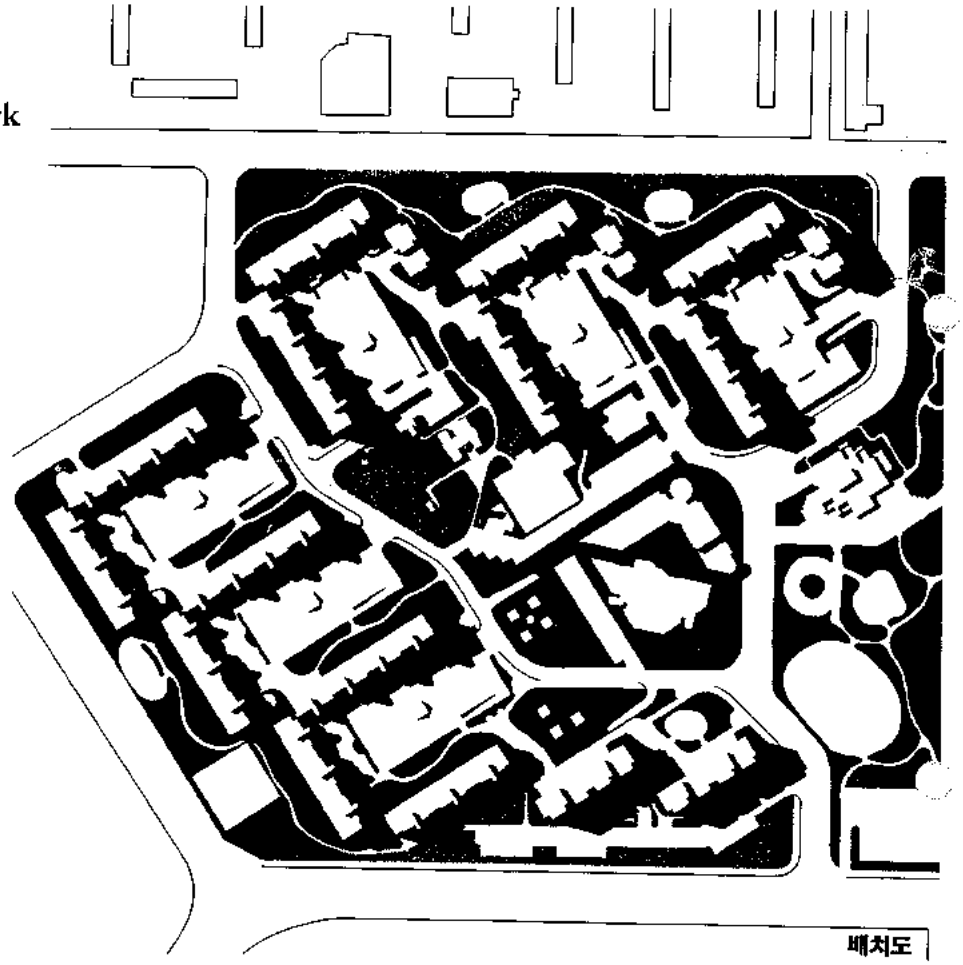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우 수 상

아시아선수촌 및 공원

The Athletes' Village and Memorial Park for 10th Asian Games

조성룡·문정일 / 우원 종합건축사사무소
by Joh, Sung-Yong · Moon, Jung-Il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잠실 1 동
대지면적 : 246,180㎡
건축면적 : 21,882㎡
연면적 : 277,292㎡
규모 : 지상 9 ~18층, 지하 1 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주요마감재 : 프리캐스트콘크리트판넬,
수성페인트, 외장타일
세대수 : 1,366세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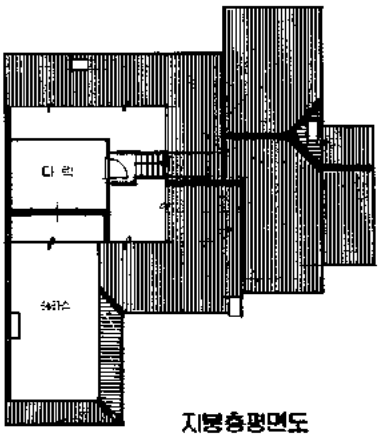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우 수 상

반포로우하우스
Banpo Row House

우남용 / 가나 건축사사무소
by Woo, Nam-Yong

대지면적 : 2,956㎡
건축면적 : 946,66㎡
연면적 : 3,515.79㎡
세대수 : 15세대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 붉은벽돌 치장쌓기, 스페니쉬기와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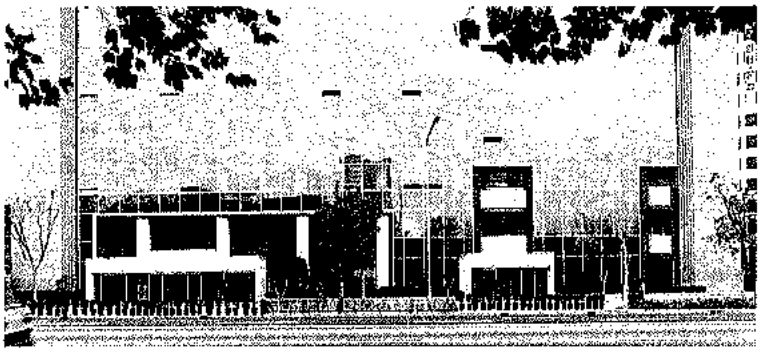
지붕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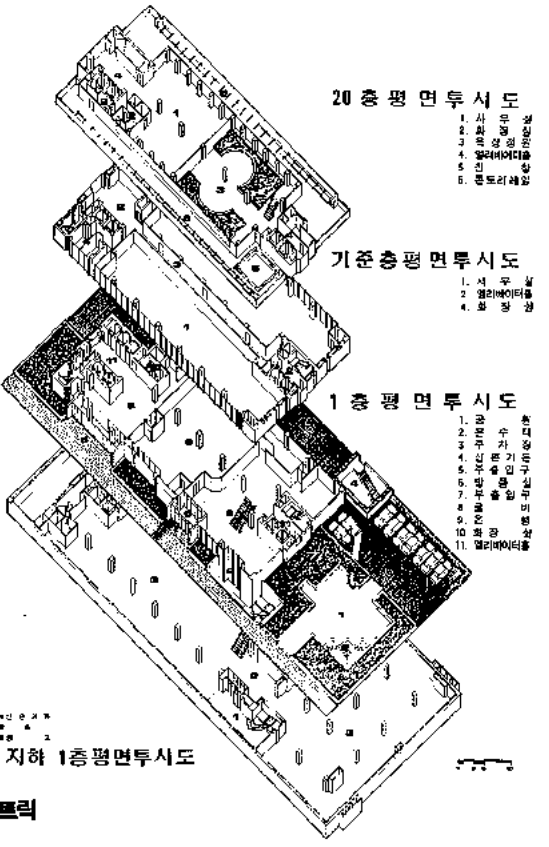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장 려 상

신원빌딩
Shin-won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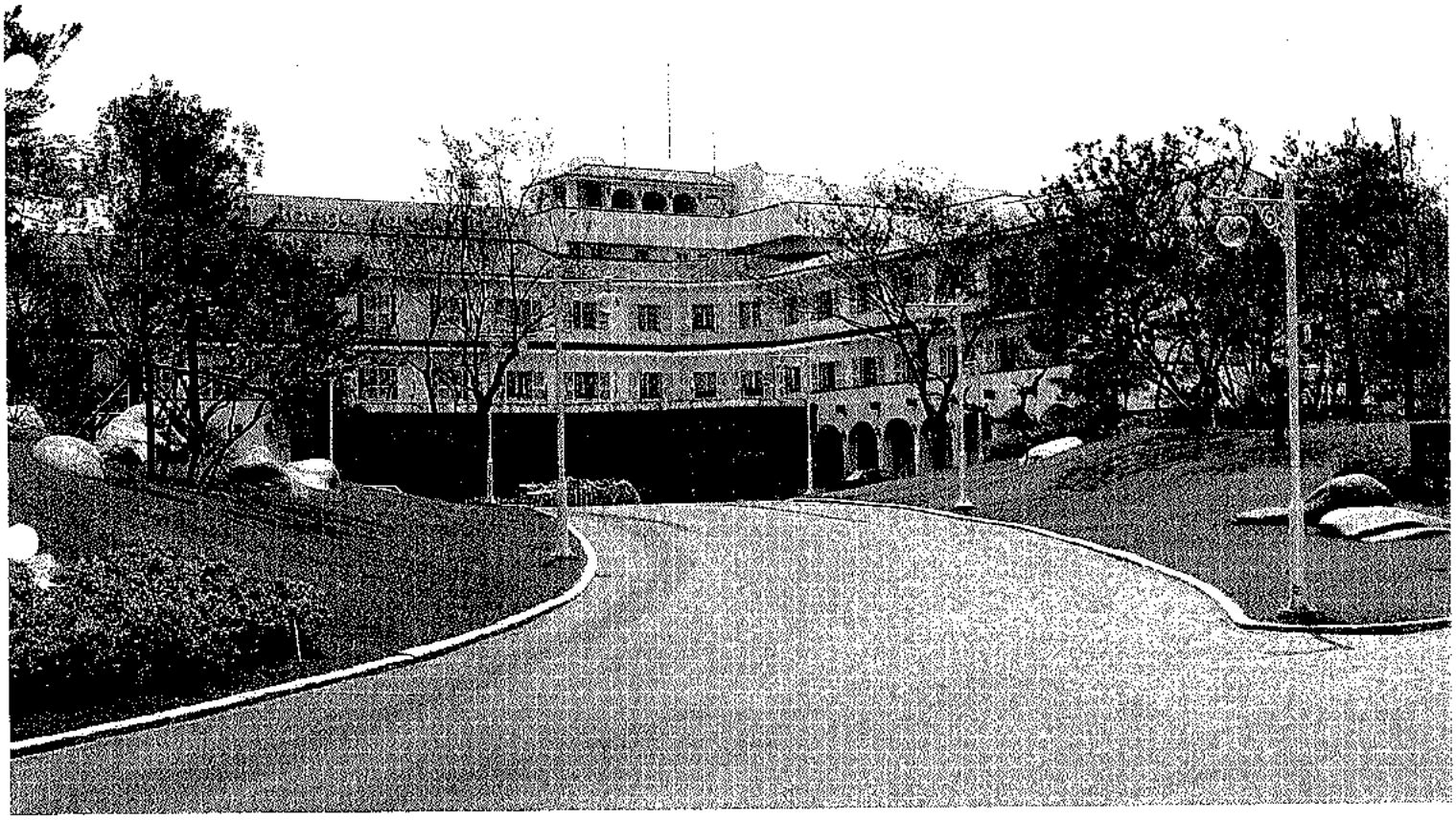
박영호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동인·외전
by Park, Young-Ho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대지면적 : 3,378.8㎡
건축면적 : 1,361㎡
연면적 : 33,853㎡
구역 : 재개발구역
규모 : 지하5층, 지상20층
구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용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요외장재 : 알미늄커튼월 및 화강석





액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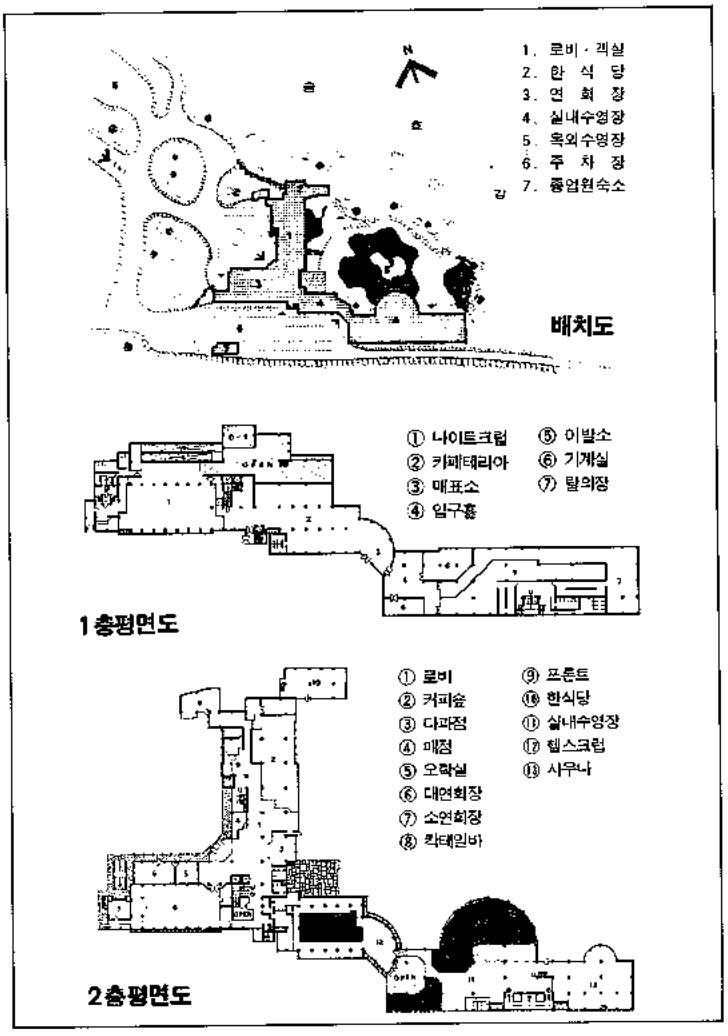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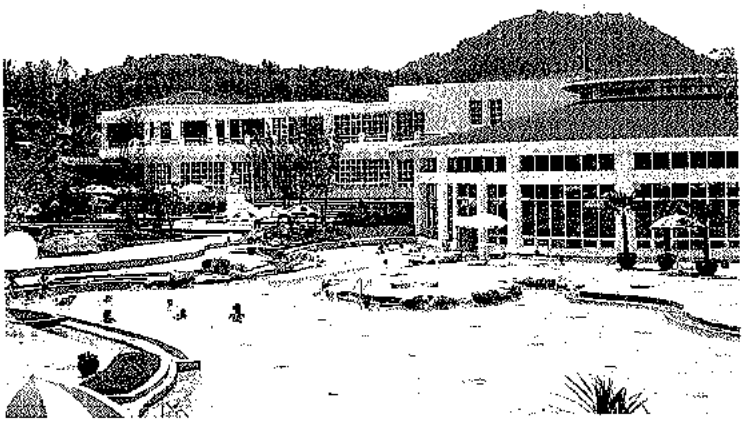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장 려 상

대구파크호텔
Taegu Park Hotel

김성환 / 협동 건축사사무소
by Kim, Sung-Hwan

대지면적 : 309.88㎡
축면적 : 5,615㎡
연면적 : 14,872㎡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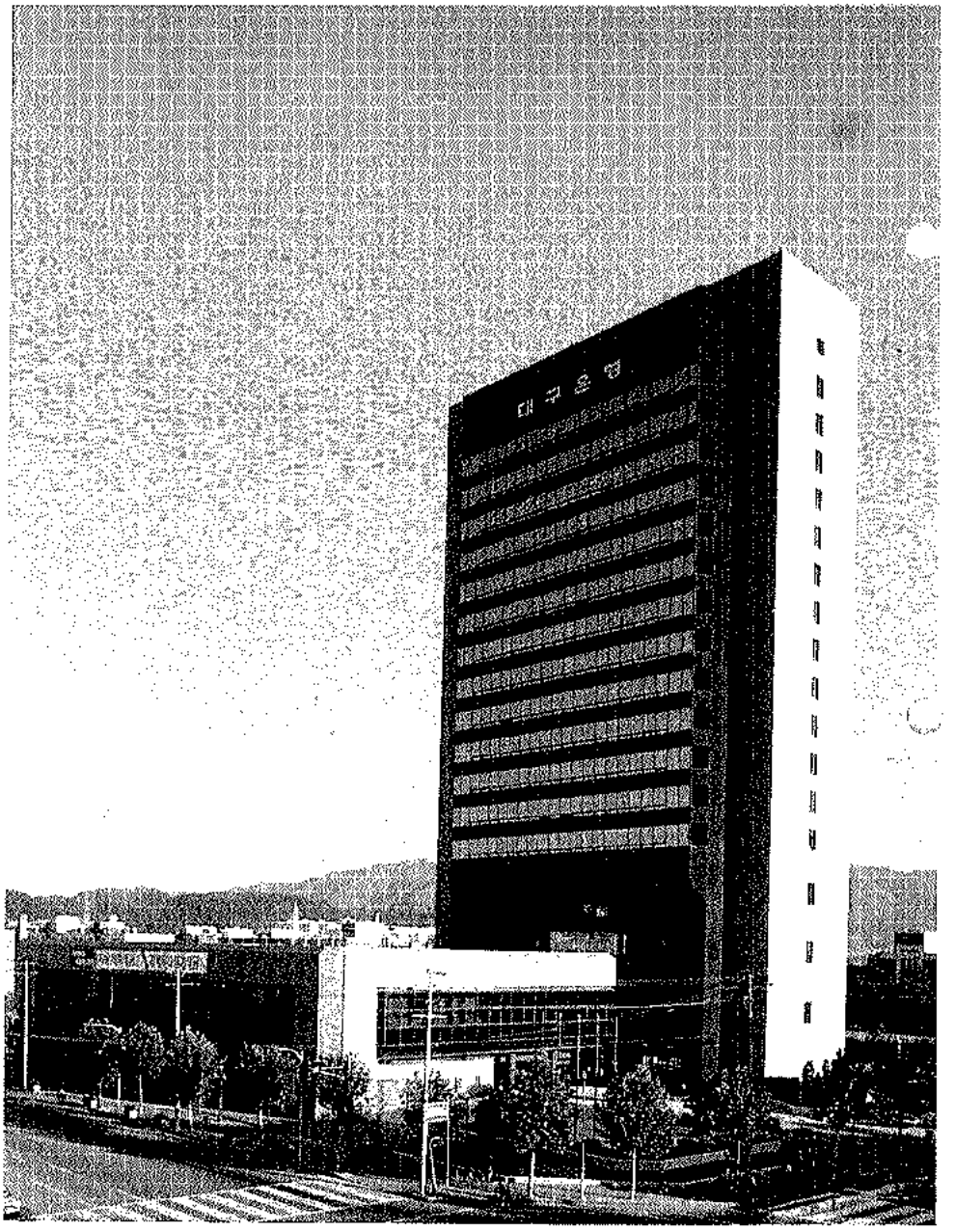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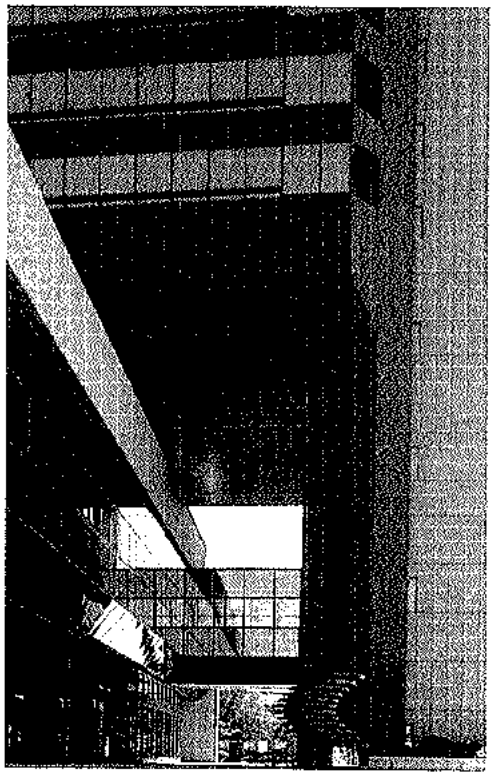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장 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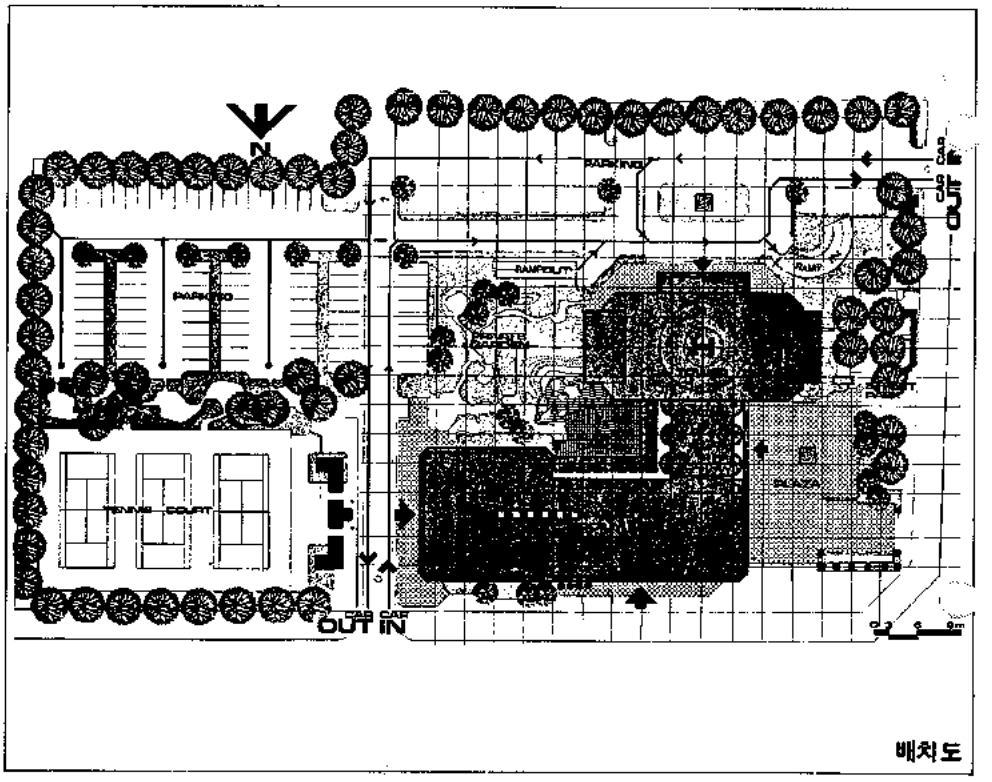
대구은행본점
The Daegu Bank Headquaters

김정철·홍성린 / (주)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ung-Chul · Hong, Sung-Lin

대지위치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118
대지면적 : 18,234㎡
건축면적 : 3,200.68㎡
연면적 : 29,226.09㎡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2층, 지상18층, 옥탑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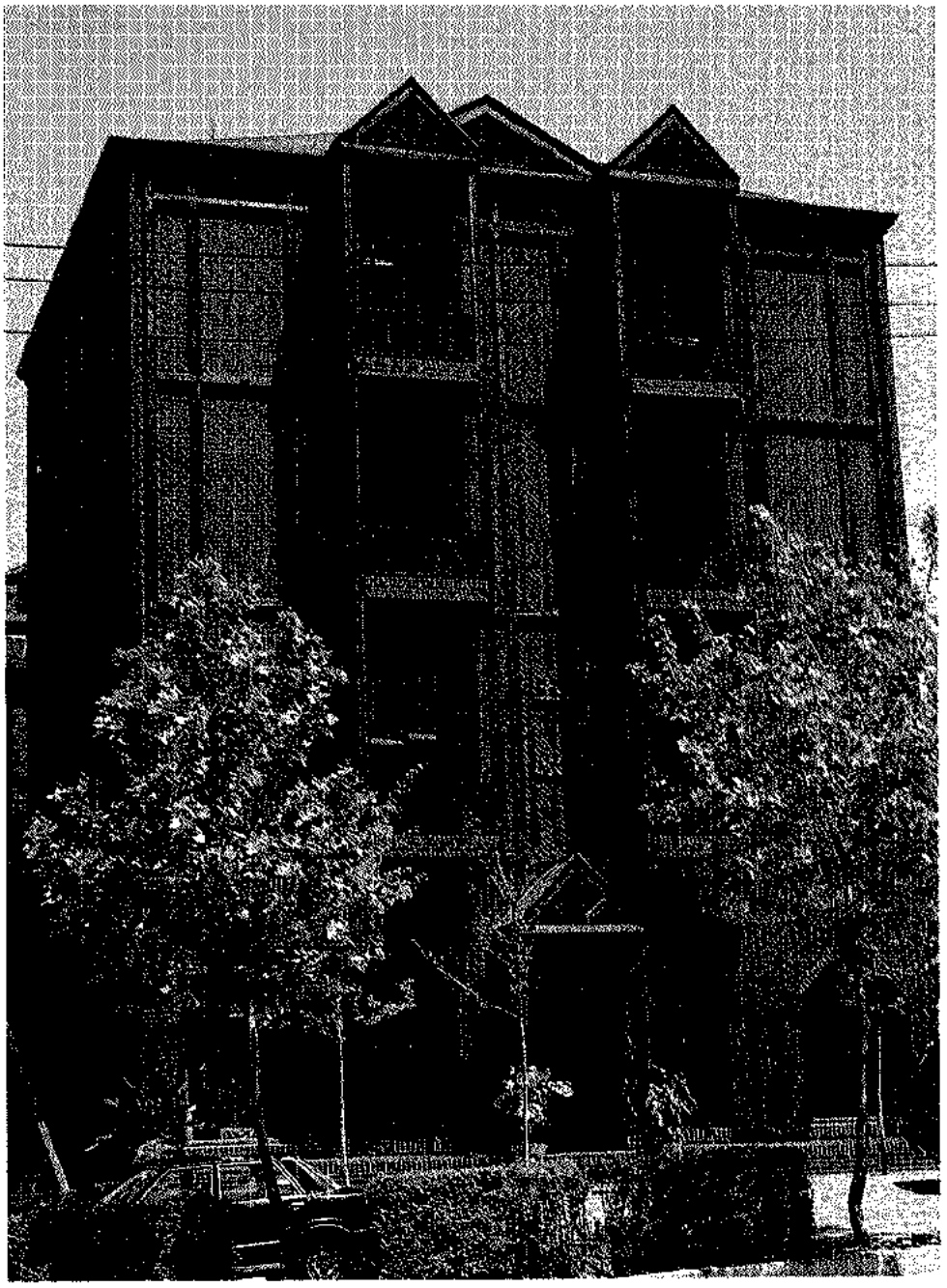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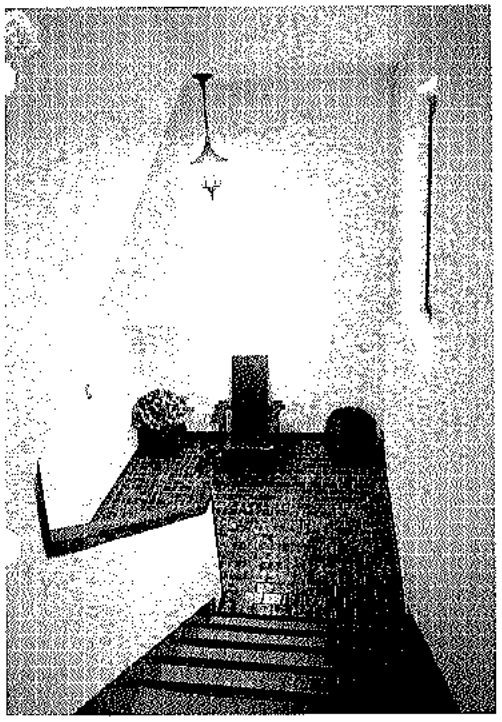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장 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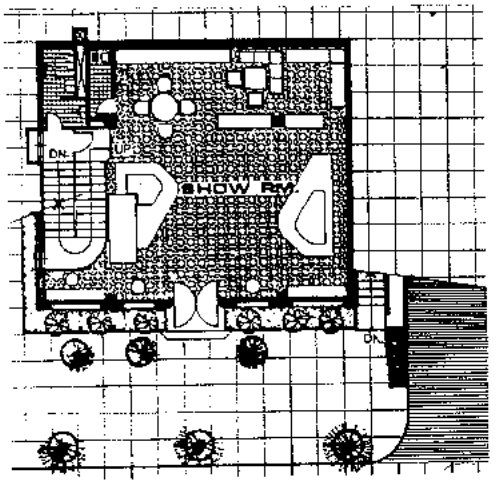
패션스토아 옥동
Fashion Store Ok-Dong

김춘웅 / 상지·필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Choon-W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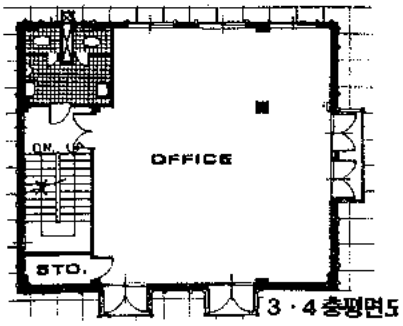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대지면적 : 239.00㎡
건축면적 : 117.00㎡
연면적 : 580.00㎡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 : 벽돌타일, 목재, 천연스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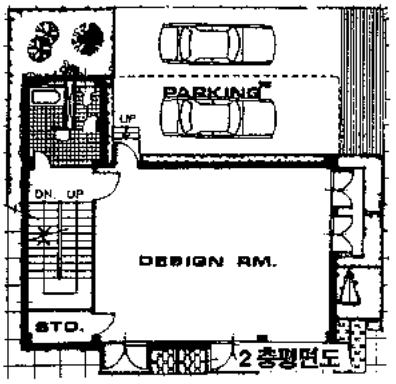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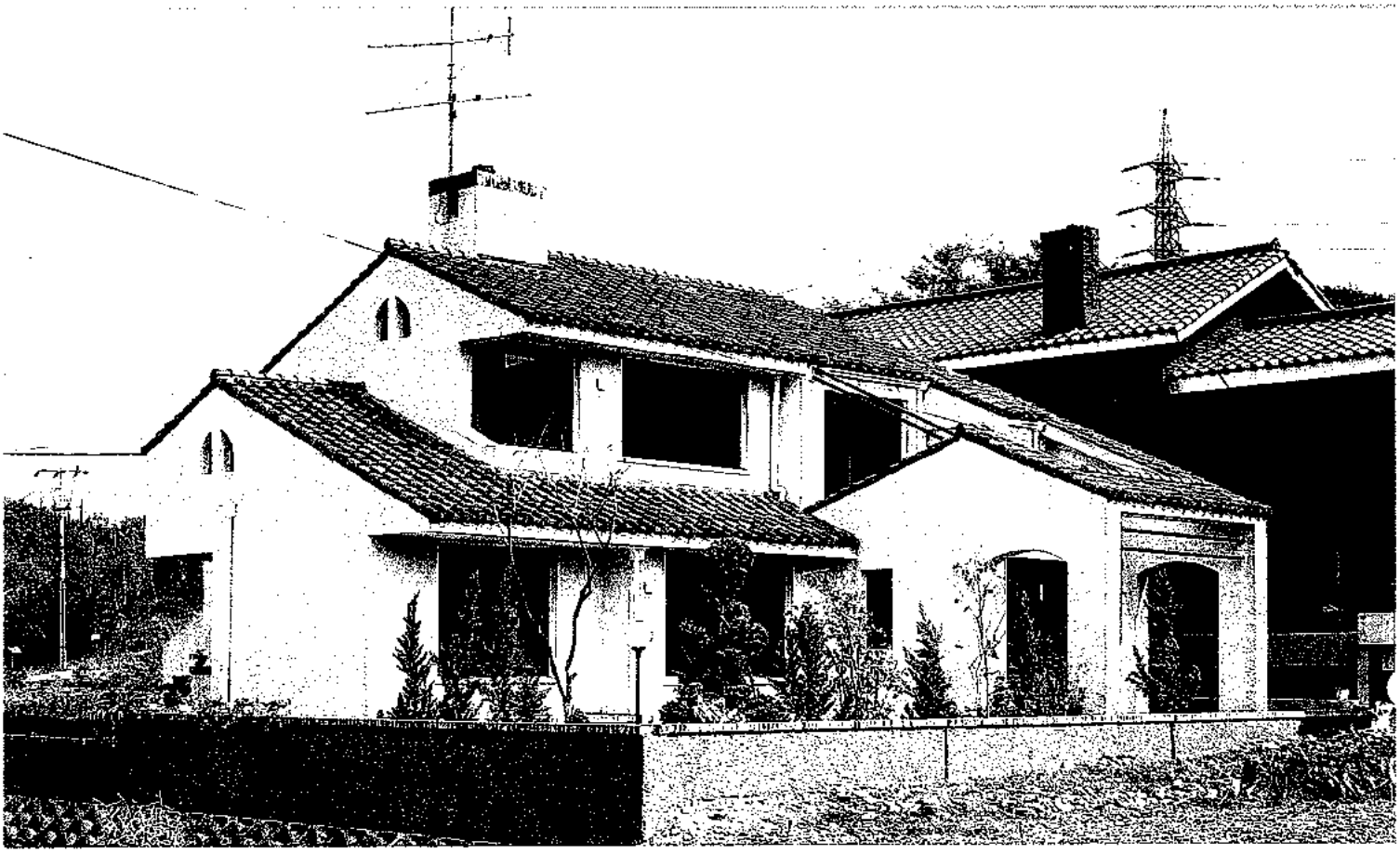
1층평면도



3·4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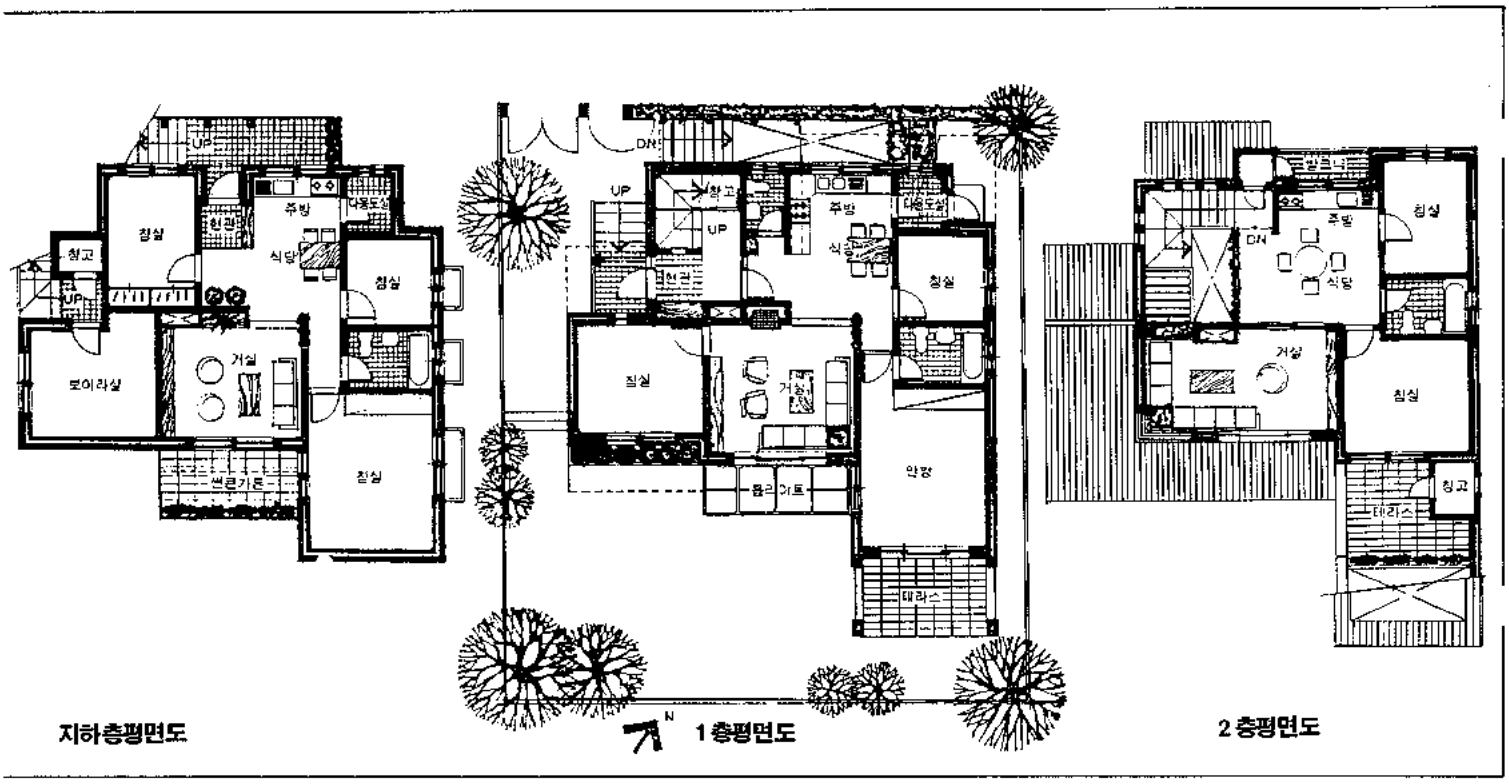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장 려 상

3 세대를 위한집
Residence for 3 Generation

손명문 / 건축사사무소 건 · 환
by Son, Myung-Moon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대지면적 : 241㎡
건축면적 : 102㎡
연면적 : 239㎡
외부마감 : 벽 - 종석몰탈쪼아내기지붕, 스페인식기와



지하층평면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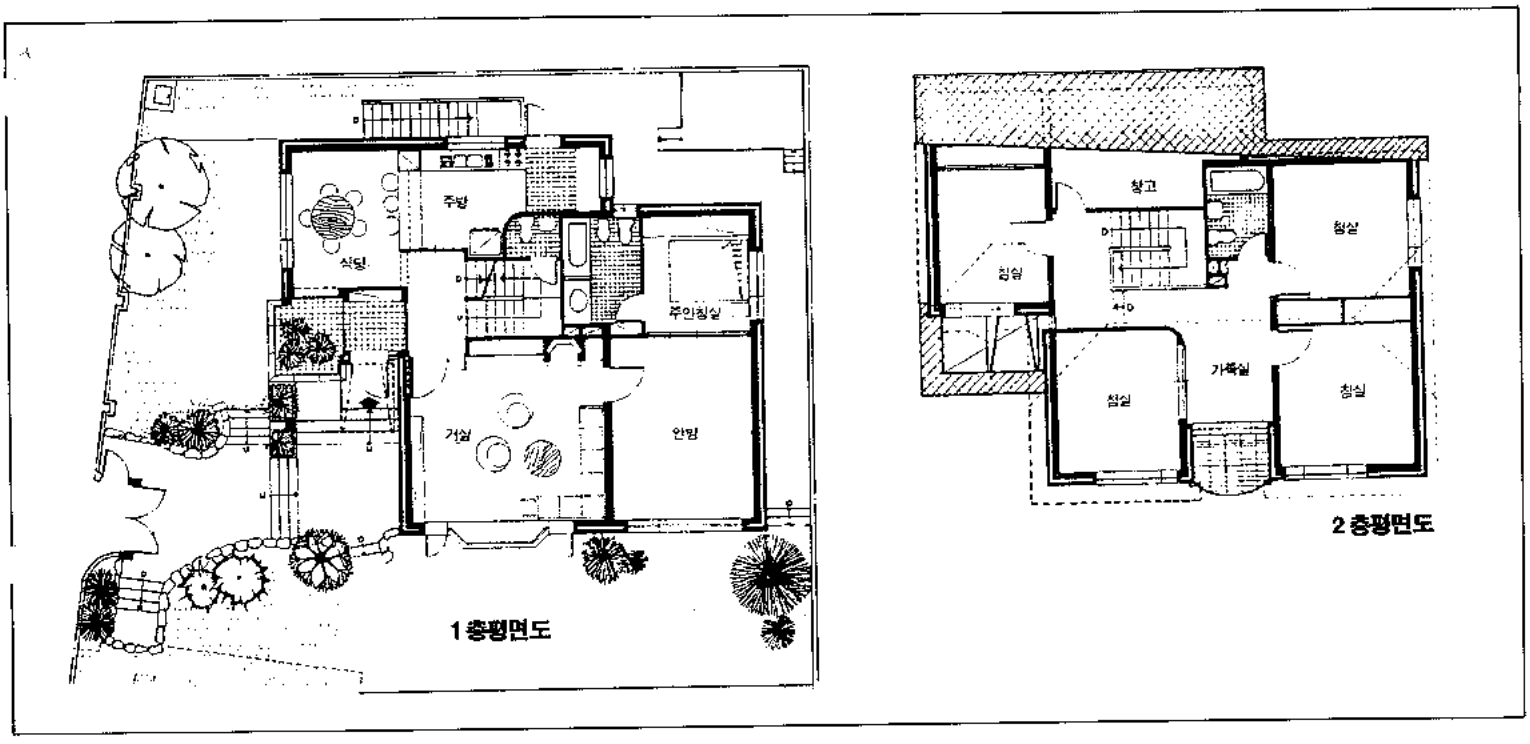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장 려 상

연희동 Y씨주택

Yeon hee-dong Y's Residence

송광섭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by Song, Kwand-Sub

대지면적 : 335.70㎡
건축면적 : 100.58㎡
연면적 : 250.64㎡
건폐율 : 29.96%
용적율 : 55.63%
마감재료 : 외벽 – J.M 벽돌치장쌓기
지붕 – 천연슬레이트



개 회 사

오늘 본협회 제21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규효 건설부장관님과 박익주 국회건설위원장님, 이광노 건축학회 회장님, 유희준 건축가협회 회장님,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 太田和夫氏를 대신한 대표단 일행 그리고 많은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대의원 여러분에게 개회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거년 3월에는 우리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건축사회관이 준공되었고 10월에는 우리협회 창립 만20년이 되는 성년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으며 그 자랑스러웠고 어려웠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협회20년사를 편찬 발간하였읍니다.
또한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사무소의 명칭을 건축사사무소로 전면 개칭하고 그중 일부는 종합사무소로 구성 개편하였으며 일정규모 이하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구분 시행하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보내었던 것 같읍니다.
또한 국제적인 활동면에서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와 친선각서를 교환하고 상호방문 정보자료의 교환 등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동남아세아 각국 건축사협회간의 국제기구인 아카시아에 우리협회가 정식 가입하여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번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풀에서 있었던 아카시아 2차대회에서는 오는 88년에 개최예정인 아카시아 제3차 대회를 올림픽 직후인 10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13개국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받은 바 있읍니다. 이는 건축사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간에 친선을 다지고 발전된 외국의 작품활동상황을 도입하고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작품도 소개하며 아울러 거국적인 협력행사를 치름으로써 대내외적인 홍보효과를 통한 건축사 협회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사료되어 여러분앞에 자랑스럽게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들은 총화단결하여 국제행사 거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외에도 미국, 영국을 위시한 구라파 제국의 협회간에 또한 재외동포건축사간에 잡지의 교환 등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 입니다.

이러한 국제활동의 뜻은 우리나라 현대건축의 수준을 실제업무면에서 또한 관계관서의 행정적 지원면에서 가급적 단기간내에 더욱 향상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뜻을 둔 노력임을 양해삼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업무는 금년에 들어 다소 호전은 되었다고 하나 세계적인 불경기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건축사업무가 법의 위치에서나 사회적인 인식면에서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였고 우리들 스스로의 책임이행 차원에서도 완벽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실정 속에서 우리들은 활동하고 스스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며 작품활동을 통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이바지해 나가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발전에 보조를 같이하고 많은 회원의 동참과 총의로 전력전속으로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해결하여 우리들의 활동여건을 향상 개선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분야에서 거의 매일같이 쉬지않고 회의를 거듭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싶은 반면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음을 양해삼아 부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이사회의 보조기구로서 우리협회 활동의 중심체로서 계속 적극 시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답고 멋이 있는 건물들을 사방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보호육성 정책에 힘 입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근간에 이해할 수 없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회윤리규약중 일부 삭제지시건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계속 법적으로 건축사 업무의 뚜렷한 한계를 정립되도록 추진하여야겠읍니다.
또한 새로운 문제로서 건설기술관리법의 입법예고된 내용에 건축사 업무가 중복 또는 잠식될 가능성 등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불분명한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음이 우려스러우며 반면에 우리들 책임사항인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감리 업무의 일부회원의 불성실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들은 깊이 뉘우치고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21회 정기총회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며 협회의 앞날을 계획해 나가는 중요한 모임인 것입니다. 오늘 결정해 주셔야 할 사안중 내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이미 보내드린 통신문이나 회의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통합체제로 금년도 수준을 기준하였으며 세입면에서는 여러회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조사편성하였읍니다. 또한 복지제도의 개선 등을 목표로 한 복지연금 규정을 마련하여 결의안으로 상정시켰읍니다.
또한 오늘 이 총회에서는 회원작품전과 금년에 새로이 시행된 신인 · 학생전의 시상식을 하게 되었읍니다. 좋은 작품을 창작하시고 전시회에 출품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들 업무의 결실이 바로 이 작품들에 의해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작품전이야말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행사인 것을 실감하게 하고 있읍니다.

지난 임기중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회의 앞날을 논의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회상되어 눈앞을 스쳐갑니다. 목표하였던 일 중 일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의 아쉬움을 남긴채 그러나 소신껏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는 부끄러움 없는 말씀을 남기고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같읍니다.
불초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규효 건설부장관님과 박익주 국회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관계관서의 담당관 여러분 사회제현과 선배 및 동료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임회장님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협회운영을 위한 지도편달과 뜨거운 협력의 덕분으로 2년간의 임기를 대과없이 지냈음을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총회에는 새롭고 더욱 유능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모시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협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여 회원여러분의 권익신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발전에도 크게 이바지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여러분의 발전 그리고 건강과 가정생활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며 제21회 총회 개회인사를 가름합니다.

회 장 오 웅 석

건설부장관 치사

오용석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의 제21회 정기총회와 회원작품전시회를 맞이하여 본인이 치사를 하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대한건축사협회는 20여년전에 불과 120여명의 회원으로 출발했으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2,500여 회원을 포용하는 큰 단체로 성장하였고 이자리와 같이 훌륭한 시설을 갖춘 자체회관을 가질만큼 큰발전을 하였읍니다. 이와같은 외적인 발전은 물론 내적으로도 우리의 건축문화발전을 선도하여 왔을뿐만 아니라 건축사의 사회적지위향상과 권익의 신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 협회 임직원을비롯한 회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로 평가하며 이자리를 빌어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여러분!
본인이 재직하는 건설부나 건축사여러분은 건축물과 조형물을 세우고 마을과 도시를 가꾸며 더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를 관리하는 막중한 사명의 일익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본인은 평소부터 확신하여 왔으며 건축문화의 발전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읍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지난번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국민의 저력을 확인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인바 있읍니다만 이와같은 30억아시아인의 대제전행사가 성공 할 수 있었던것은 바로 건축사여러분이 창조해낸 훌륭한 경기장과 선수촌시설등 건축구조물이 뒷받침된 것임을 돌이켜볼때 본인은 여러분의 역량에 대하여 신뢰감을 한층더 크게 갖게되었음을 밝히면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있는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사여러분은 우리나라 문화발전의 선도자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건축물은 바로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시대의 거울로서 우리 문화수준의 척도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역사적 · 문화적 유산으로서 후손에게 길이 전승되는 문화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작품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통하여 민족문화발전을 선도하게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말아야 하겠으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작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역사적 · 문화적 안목과 미적감각을 가지고 자기의 순수한 혼과 정신을 그 건축물에 쏟아부어 넣어야 하겠읍니다.

둘째, 설계등 기술개발에대한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겠읍니다. 기술개발및 혁신은 정부가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분야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재정추진등 다각도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만 이에 부응하여 건축물의 설계기술을 향상시켜 선진수준화 함으로써 우리의 건물은 우리의 손으로 설계 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특히 삼대동거형아파트등 새로운 주택모델의 개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여러분의 꾸준한 연구노력이 요구되는 바 입니다.

세째, 여러분은 건축사라는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겠읍니다.
전문직업인은 일반인과는 달리 스스로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과 윤리의식이 확립되어야하며 나아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특히 건축사여러분은 건축물의 설계및 시공과정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하여 정부와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공인임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중대한사실을 망각하고 건축물의 불법및 불실화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양되어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오늘의 총회는 앞으로 협회를 이끌고 나아갈 임원진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사업계획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인 만큼 회원여러분의 새로운 결의가 다시 한번 다져져서 건축사협회의 힘찬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고 건축사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치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년 10월 30일

건설부장관 이 규 효

일본건축사연합회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1회 정기총회에 초대받아 축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17일 일본 야마구치(山口)시에서 개최된 제29회 일본건축사전국대회에 金基壽 부회장 일행 대표 네분이 원로(遠路)를 마다하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고하건대 귀협회와는 18년전 부터 우호관계가 있다가 1985년 3월29일 太田和夫 연합회 회장, 吳雄錫 회장에 의하여 본협회와 귀협회와의 사이에 한일건축교류 촉진을 위한 각서가 조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읍니다.
각서의 목적에 있는 것과 같이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 및 우의증진, 상호기술의 교류, 정보자료의 교환 등 양협회가 더욱 더 긴밀하게 친선관계를 깊이하며, 정보자료의 교환 등을 통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양협회는 내부적으로 각기 여러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급무입니다. 그러나 건축사라는 입장은 동일한 것이므로 국경을 초월하여 더욱 더 우호를 깊이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하여 상호 방문을 거듭하여 그때마다 여러 문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문화면에서도 긴밀한 관계에 있읍니다. 양국 각기의 고유의 건축양식 또는 특색이 있읍니다만 반면 유사한 형태 등도 있어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읍니다.

요사이 텔레비젼 또는 신문에서도 귀국의 건축사정이 보도되고 있지만 오늘 한국을 방문하여 새롭게 도시의 재개발, 대단지의 건설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정비, 또는 올림픽 게임을 위한 갖가지 시설의 건축 등,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88년에 귀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게임의 대성공과 동시에 대한건축사협회의 거듭하는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 10. 30

日本建築士会連合会
会長 太田和夫

アンニョンハシムニカ
本日 大韓建築士協会の第21回 定期総会にお招きをいただきご祝辞を述べる機会を得ましたことを光栄に存じております。
まずもって 去る10月17日山口市で開催いたしました第29回建築士会全国大会には金常勤副会長さん他3名の役員の皆様には遠路のところご臨席いただき締上華を添えて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対し衷心よりお礼申し上げます。

顧みまするに貴協会とは18年前より友好関係にありましたが去る1985年3月29日 太田連合会会長，呉協会会長によって，本会と貴協会との間に日韓建築交流促進についての覚書を調印し 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

覚書の目的にもある通り 両国の建築士相互間の理解及び友誼増進・相互技術の交流と情報資料の交換等，両会が益々緊密な親善関係を深め，相互に訪問を重ね、情報資料の交換等を通して建築士の社会的地位の向上並びに建築文化発展のために尽く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両会とも内部的にはいろいろな諸問題を抱えこれに対応することが急務であります。しかし建築士としての立場は同じであり 国境を越えて益々友好を深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ためにも相互の訪問を重ね，その時々の諸問題等につきましてお話し合いを重ね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日本と韓国は地理的にも一番近く，又文化面においても緊密な関係にあります。両国ともそれぞれに固有な建築様式又特色もありますが、
反面たくさんの類似した形態等もあり 多くの共通性をもって発展して参りました。

昨今 テレビあるいは新聞等で貴国の建築事情が報道されておりますが、本日貴国を訪問し，改めて都市の再開発，大団地の建設等による住環境の整備，あるいはオリンピックゲームのための諸施設の建築等多くの分野で輝かしい発展を遂げられておりますことに敬意を表するものであります。

最後になりましたが，88年に貴国で開催されますオリンピックゲームの大成功と同時に大韓建築士協会の益々のご発展並びに会員の皆様方のご健康をお祈り申し上げ、ご祝辞と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カムサハムニダ

1986年10月30日

社団法人 日本建築士会連合会
会長 太田和夫

건축 3 단체 뭉쳐 권익옹호하자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 광 노

만당하신 여러 대의원님들, 단상에 계신 선배, 내빈, 전회장님단, 또 현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본인은 건축학회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길 건축은 그 시대의 문화의 꽃이며 그 시대 문화의 대표라고 합니다.
건축사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나라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셨읍니다. 또한 학생들도 그러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건축계 현실을 볼 때 업자와 기업주와의 사이에서 우리 건축사는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문에 건축과 관련한 사건소식이 날적마다 꼭 건축사가 어떻다고 기사화됩니다. 모든 사회제반도 함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유독 건축사만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인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왜 건축가들만이 유독 신문에 크게 취급되느냐, 답답할 따름입니다.
최근에는 설계입찰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한쪽에서 들려오고 있읍니다. 어느 한면에서는 건축은 예술이다. 그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의 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술품을 만드는데 너는 얼마에 만들 것이냐" 이런 입찰을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 공사감리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기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은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설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읍니다. 건축가는 현장에 나가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건축가가 내작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것은 조금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또는 주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와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잘 조화되도록 애를 쓰는 가운데 진정한 예술작품은 탄생된다고 봅니다.
설계도만 가지고는 건축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축을 짓는데 너희들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이 감독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근간에 들려오는 것을 볼 때 저희 건축학회 회원들은 통탄해 마지 않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읍니까.
이러한 마당에 건축사협회나, 건축학회나 건축가협회나 3단체가 꼭꼭 뭉쳐서 다른생각 없이 우리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도 정년퇴직하면 여러분과 똑같은 대열에 설 동지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건축사 협회야말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단체와 총력을 다해 협력을 해야겠읍니다.
오늘날 우리의 건설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읍니다. 기술도 발달했고 또한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을 과시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건축사 협회가 건설의 발달에 기여하는 크나 큰 공로에 대해 본인은 진심으로 경하해마지 않읍니다.
아까 보았읍니다만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건축작품전인 신인·학생전을 금년에 시작하셨고 또 작품전을 볼 적에 오늘날 우리나라 건축의 앞날을 보는 것같은 느낌을 가졌읍니다.
우리 건축가는 지금부터 일치 단결하여 21세기를 향해서 매진하여 건축가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찾자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축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건축문화 꽃피우는 노력에 감명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유 희 준

존경하는 오웅석회장님과 원로건축가, 정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거리를 지나다 보면 참신한 느낌을 주는 건축물들이 선뜻 선뜻 눈에 띄기 시작하더니 근년에 와서는 그 밀도와 빈도가 더 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건축사 여러분의 작품 수준에 흐뭇함을 느꼈으며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건축문화를 이 땅에 꽃피우고자 애쓰시는 건축사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감사함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의 부득이한 일로 6시30분부터 9시사이 조금 늦게 총회의 전야제에 참석을 해서 죄송하였읍니다마는 신라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에서 많은 건축사 분들께서 여흥을 즐기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건축 이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친구와 형님과 동생의 일체감 속에서 보다 인생을 정신적으로 즐기는 속에서 보람과 마음의 행복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간절한 생각을 해보았읍니다.

여러 회원님, 좋고 훌륭한 작품 많이 만드시고 모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이만 축사로 갈음합니다.

국가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기대한다

신한민주당 · 국회건설위원
김 현 수

오늘 이 자리는 오용석 회장을 비롯 전국의 2천5백여명 건축사를 대표한 대의원 여러분이 모여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로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는데 그간 여러분의 노고가 컸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인은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작년과 금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나가 있는 13개처의 해외 현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읍니다.

그럴 때마다 건축물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의 척도이며, 건축문화를 통해서 문화수준이 측정된다는 사실을 느꼈읍니다. 사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13개국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축사를 비롯한 기술진이 그 나라 건설을 담당하여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 건설진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들었을 때 흐뭇함과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본인은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세계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는 자못 큽니다. 더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겠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후진을 지도해 주고 편달해 주고 키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있는 건축물들이 도시의 형태를 변모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과시하고 있읍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작품전시회에 우수한 건축설계작품을 출품하여 수상하신 여러분에게 특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6. 10. 30

제21회 정기총회 개최
제16대 회장에 안기태 회원

본협회 제21회 정기총회가 10월 30일 본협회 회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겸한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백60명중 1백98명이 출석하였는데 특히 임원개선의 회순에 이르러서는 안기태 회원과 이춘상 회원이 회장으로 줄마 경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안기태 회원이 투표당시 재석의원의 1백54표를 획득, 약 65.8%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제16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전야제 실시

제21회 정기총회는 총회개최사상 최초로 전야제라는 서막이 준비됨으로써 〈건축사 축제〉로 부터 시작되는 경축행사로 기획의 방향이 설정되었다. 최근 몇년동안, 정부의 문호개방 시책에 따라 막이 오른 국제화시대의 흐름을 타고 해외 각국 건축사단체 총회에 참관할 기회가 있었던 여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도된 행사의 방향이었다.
미국을 비롯, 일본 동남아 등 여러 나라의 건축사 총회가 시종 축제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는 가운데 세미나, 심포지엄, 관광행사, 친교행사 등이 고리처럼 이어져 총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건축사간의 친교행사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는 것이 해외를 다녀온 본협회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계산하고 따지고 추궁하는 숨막힐듯한 회의분위기를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끼리의 반가움과 멀리 헤어져 있던 동료간의 만남의 기쁨으로 순화시켜 회의 분위기를 일신해 보자는 시도는 이렇게 회원들의 해외견문의 결과에서 연유된 것이며 이번 총회를 축제 분위기와 연결되도록 기획케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건축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중지를 모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광경은 상상만 해도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래서 누구나가 바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회원들 대부분이 이번의 시도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행사가 명실공히 〈건축사 축제〉로서 성공하려면 각종 시상도 축제의 자리에서 행하고 각 시도별로 장기(長技) 발표자를 출연케 하여 경연시키는 방안도 채택해 볼 만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10월29일 대한건축사협회 제21회 정기총회 전야제로서 실시된 세미나에서(컴퓨터 · 현대건축에 관한 세미나)라는 주제하에 한양대학교 이병해 교수가 강연을 했고

〈현대건축의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송정석 교수가 강연을 했다.
같은날 저녁 7시부터 한국유리공업(주), (주)담파, 캐논세라믹스(주)의 협찬하에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벌어진 전야제에서는 주악이 흐르는 가운데 회장인사, 참석인사 소개, 주연, 초청가수 노래등의 순서가 펼쳐져 참석한 4백여 건축사들의 흥을 한껏 돋웠다.

건축설계작품전시회 개막

10월30일 오전 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가 올해 처음 시작된 제1회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전시회와 더불어 본협회 제1, 제2 전시실에서 개막되었다. 이날 개막 테이프 커팅에는 국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익주 의원, 국회건설위원회위원 김현수 의원, 서병기 건설부 주택국장, 유희준 한국건축가협회장, 이광로 대한건축학회장, 일본건축사회연합회 野村孝文 부회장, 榛谷博行 부회장, 町田幸一 사무국장, 장기인 전회장, 강봉진 전회장이 참여 하였다.
테이프 커팅을 마친 일행은 오응석 회장의 안내로 전시장에 입장, 방명록에 서명하고 전시작품을 돌아 보았다.
86년도 회원건축설계작품전에 출품한 작품은 〈1983년부터 1986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으로 한정하였으며 8월30일 응모신청마감, 9월20일 작품접수 마감을 하였다.
그러나 9월20일까지 응모신청한 작품이 접수 안되어 9월30일까지로, 다시 10월10일까지로 접수 마감을 늦추는 한편 각지부에 소속회원에대한 독려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서울회원 응모신청자에게는 방문을 통하여 독려를 거듭 하였다.
작품 출품이 이처럼 원만치 못한 것은 각 사무소의 업무가 한창 바쁜 10월에, 더구나 타단체의 작품전개최시기와 겹쳐있는 사정 때문일 것으로 이유를 들고 있었는데 성대한 작품전을 치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동기유발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아무튼 접수된 작품은 그런 가운데서도 46개 작품에 이르렀으며 10월16일과 17일의 2일간의 심사를 거쳐 윤승중+변용(주·종합건축사사무소원도시) 회원의 작품(성균관대학교체육관)이 영예의 대상으로 건설부장관상에 확정 되었다.
김지태 심사위원장은 〈회원작품은 완성된 건축의 실재(実在)를 놓고 평가하는 것 것이므로 작품내용과 건축적인 요소는 물론이려니와 그 시대의 건축사조(建築思潮)및 시사적인 성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상(大賞)으로 성균관대학교체육관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심사평을 하였다.
회원작품 심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과 입상자 및 입상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위원장 : 김지태
위 원 : 배종명, 송종석, 윤도근, 이강식, 김인석, 박상호, 이영회, 신정환
간 사 : 이문우

한편,
신인및학생건축설계 작품은 당초 응모기간을 1986년 5월1일부터 10일까지로 정했었으나 6월30일까지로, 거기서 다시 7월10일 까지로 연장 하였다. 각급학교로 서신을 띄우고 시도지부의 지원을 구한 뒤라 거기에 젊은이들의 패기와 정열이 가미되면 5월10일까지의 단기간 이라는 제약쯤 거뜬히 뛰어 넘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쇄도할 줄 알았던 응모 신청은 의외로 저조했고 〈기대〉는 실패였다.
7월10일까지 학생 296명, 신인 192명으로부터 응모신청을 받고 나서야 일단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8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의 출품기간에는 또다시 초조와 불안에 빠져야 했다. 응모신청자의 대다수가 기일에 맞추어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응모자는 미처 완성안된 패널을 가지고 와서 협회 회관 빈터에 늘어놓고 망치질을 하기도 했다. 안타까운 광경이었다.
접수를 담당한 출판사업부 직원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고 구태여 8월30일의 마감일을 고집하지 않는 너그러움으로 출품자들을 응대해 주었다.
이제는 출품접수를 마감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을 때 달력은 9월8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학생작품 제1차 심사가 9월10일 개최되었으니까 얼마나 촉박하게 접수마감을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신인이 27작품을, 학생이 93작품을 각각 출품하여 총출품수는 1백20 작품에 이르렀다. 응모자수에 비해 보면 불과 25%정도의 출품율을 보였지만 제1회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공모전

'86회원 건축설계작품전시회 입상자

시상구분	작 품 명	출 품 자	소 속	비 고
대 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윤승중, 변 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건설부 장관상
최우수상	성심여대소피바라관	강 석 원	건축사사무소그룹가	회 장 상
우 수 상	아시아 선수촌	조 성 룡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회 장 상
우 수 상	반포로우하우스	우 남 용	가나건축사사무소	회 장 상
장 려 상	신 원 빌 딩	박 영 호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동인	회 장 상
장 려 상	패션스토아옥동	김 춘 웅	상지, 필종합건축사사무소	회 장 상
장 려 상	연희동 Y씨주택	송 광 섭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회 장 상
장 려 상	대구파크호텔	김 성 환	협동건축사사무소	회 장 상
장 려 상	3세대를 위한집	손 명 문	건축사사무소 건, 환	회 장 상
장 려 상	대구은행 본점	김정철, 홍성린	(주)정림건축종합 건축사사무소	회 장 상

으로서 이 정도 작품을 모았다면 우선은 성공인 셈이었다. 이렇게 하여 학생작품을 9월10일, 9월11일, 9월12일 3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신인작품은 9월24일, 9월25일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다.
심사위원과 심사결과는 본지 10월호 97쪽에 상세히 소개하였으므로 본문에서의 소개는 생략한다.
특기할 것은 학생부문에서 금상과 은상을 차지한 윤희진(연세대 건축과 4년)군과 최병무(목원대 건축미술과 4년)군이 아시아지역 건축사회의 (ARCASIA) 총회와 더불어 개최하는 학생건축잼버리에 우리나라 학생대표로 참가할 수 있도록 본협회가 여비와 체재비 및 잡비 일체를 부담하는 보너스를 주었다는 점이다.
본협회가 학생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기에는 다소의 무리를 감수해야 하였지만 〈신인 발굴과 후진 양성〉을 위해 〈장차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이어 나갈 후배들의 패기와 창의적 정열을 고무〉한다는 뜻에서 명쾌하게 내린 결과였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신인 및 학생 건축설계작품공모전이 개최되었는데 신인 및 학생전의 탄생의 의의는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회원건축설계작품전과 조화되어 명실공히 〈오늘과 내일을 향한 조화된 작품전시회〉로 승화됨으로써 건축문화창달이라는 대전제하에 본협회가 주력하여야 할 뜻깊은 연례행사로 정착하게 되었다.

회원 및 직원 표창

공로회원과 모범직원 표창에 앞서 건설부주택국 배종명 건축과장 (건축기정)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배종명 과장은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법령에 대한 미비점, 불합리점 등을 꾸준히 연구 개선해 나감으로써 각종 제도와 현실간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으며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건축문화 창달과 본 협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본협회가 2천5백여 회원의 뜻을 모아 총회석상에서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감사패 전달 뒤 공로패 전달과 모범 직원의 표창의 순서가 이어졌는데 표창자별로 공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로패 / 김일영(동신 건축사사무소)
건물에너지분과위원장으로서 정부 시책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방안 연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자연형태양열 및 에너지절약형주택설계 현상공모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원업무개선과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한 공로.

● 공로패 / 양창완(동남 건축사사무소)
제주도지부장으로서 협회발전과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공헌하였으며 특히 창립2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도지부 20년사 발간에 기여한 공로.

● 공로패 / 김석륜(김석륜 건축사 사무소)
제주도지부20년사 발간위원으로서 지부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도지부 20년사 발간에 기여한 공로.

• 공로패 / 강요준(동아 건축사사무소)
위와 같음.

● 공로패 / 김백교(아람 건축사사무소)
위와 같음.

● 공로패 / 김창우(우신 건축사사무소)
위와 같음.

● 공로패 / 이세완(이세완 건축사 사무소)
위와 같음.

● 표창패 / 홍진호(제주도지부 사무국장)
제주도지부 사무국장으로서 평소 품행이 바르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특히 제주도지부 20년사의 발간에 편집실무자로서 기여한 공로.

● 표창패
표창패는 평소 품행이 바르고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타직원에 모범이 된다고 고과를 통해 판정된 자료에 의거, 직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서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이경순(본부기획관리실)
• 황경숙(본부 총무부)
• 김태평(본부 총무부)
• 이상정(서울시지부 총무부)
• 강미아(서울시지부 기술부)
• 조소연(경기도지부)
• 이강애(충청남도지부)
• 김재성(전라남도지부)
• 이미자(경상남도지부)
• 김창남(강원도지부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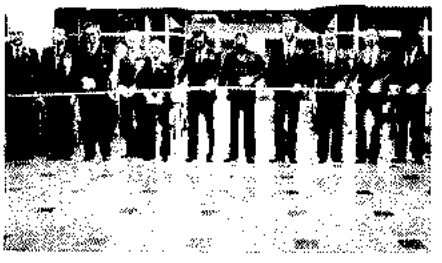
추대회원추대

추대회원은 본협회규정 제7조 1항의 〈추대회원〉 조항에 의거 총회에서

총회전야제 행사로 기획된 세미나

총회전야제 행사로 기획된 회원친교 행사

작품전시회 개막 테이프 커팅



추대하고 있다.
추대회원이 되려면 〈본협회에 공로가 많은 정회원 또는 정회원 자격을 15년이상 보유한 만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추대받은 자〉 여야 한다.
추대회원은 따라서 공로가 큰 원로회원이 대부분인데 공로라는 것이 단순한 협회발전이나 회원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총화적으로 기리는 뜻에서 추대하는 것이므로 건축사로서는 명예전당에 근영이 모셔지는 것에 못지않는 영예를 누리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추대회원으로 15회원이 추대됨으로써 지금까지 1백80회원이 추대되었다.
이번총회에서 추대된 추대회원은 다음과 같다.

- 경석구 / 21년 5월21일생
  서울 · 경석구 건축사사무소
- 김병일 / 21년 5월 6일생
  서울 · 삼산 건축사사무소
- 문용회 / 21년 8월23일생
  서울 · 세림 건축사사무소
- 유순규 / 21년 9월19일생
  서울 · 공익 건축사사무소
- 이문조 / 21년 9월22일생
  서울 · 건축사사무소 한국조경
- 이준용 / 21년 9월 3일생
  서울 · 세진 건축사사무소
- 정만선 / 21년 8월 2일생
  서울 · 영등포 건축사사무소
- 임상익 / 21년 6월 7일생
  서울 · 건축사사무소 성림건축
- 이진욱 / 21년 9월16일생
  부산 · 합동 건축사사무소
- 이종만 / 21년 9월 9일생
  대구 · 세화건축사사무소
- 조명호 / 21년 4월14일생
  경기 · 조명호 건축사사무소
- 윤문혁 / 21년 6월20일생
  경기 · 성보 건축사사무소
- 김영복 / 21년 4월24일생
  경기 · 동구건축사사무소
- 이학로 / 21년 6월14일생
  충북 · 대성건축사사무소
- 김태만 / 21년 9월12일생
  전남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길

시상, 표창, 추대의 회순이 끝나고 '86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 승인의 순서로 이어졌으며 주요업무보고, 정효환 감사의 행정감사 및 류근열 감사의 경리감사 보고가 있은 뒤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보고가 접수되었다.

다음으로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서 오용석 의장이 부의안건으로
- 제1호의안 / '86제2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의안 / '87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의안 / '87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4호의안 / 건축사연금 규정안 승인의 건

등 4개 의안을 상정, 이의없이 접수되었으며 부의안건 상정 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7분 정회하였다가 2시 45분 속개하였다.
오용석 의장의 주재로 속개된 회의에서는 상정된 의안의 심의에 들어갔는데 부의안건별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의안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오용석 의장의 부연설명이 있었다.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제2호 의안 및 제3호 의안
강봉진 대의원이 예산항목과 사업내용의 조정을 87년3월 임시총회에서 승인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과시키자는 제의를 하였다.
최춘화 대의원이 광주시 지부예산을 본 예산항목에 편입하는 조건으로 통과 동의를 제의하였다.
이명환 대의원이 축조심의 및 대체토론을 하자는 개의를 제기하였다.
의장은 이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제의 대의원에게 물어 거수 표결에 붙였으며 그 결과 1백29대 14표로 동의집이 압도, 의장이 동의집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제4호 의안
오용석 의장이 제안설명을 하였다.
김종대 대의원이 87년3월 임시총회에 보완된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조건부 원안통과를 제의하였다.
동의가 성립되었다.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회장선출

임원개선의 순서에 이르러 임기가 1년 남아있는 김규태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의는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
오용석 의장은 제2대 회장을 지낸 원로 장기인 대의원을 임원개선의 순서를 진행할 임시의장으로 지명한 후

전시작품을 둘러보는 내외빈

'86회원대상을 수상하는 윤승중, 변 용회원

신인 금상을 수상하는 이병규

이의없자 장기인 임시의장과 교대하였다.
오용석 의장과 교대하여 등단한 장기인 임시의장은 임원개선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선 제16대 회장을 선출할 것을 선포하였다. 선포에 이어 회장 선출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이봉로 대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거 종다수제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 이의없이 채택되었다.
장기인 임시의장의 제의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기전 회장에 출마한 이춘상 회원과 안기태 회원의 소신을 듣기로 하여 안기태 회원, 이춘상 회원의 순으로 소신 발표가 있었다.
장기인 임시의장은 투표용지를 감독할 감표위원 6명을 지명하였으며 4시55분, 드디어 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회장 선출의 순서에 들어갔다.
투표는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대의원들은 2열로 열지어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미리 준비된 두 군데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였으며 단상에 마련된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투표를 마쳤다.
2백34명의 재석 대의원이 투표를 끝내는 데에는 불과 2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집계가 시작되자 장내는 긴장감이 도는 듯했다. 집계결과 안기태 후보가 1백54표로 80표를 획득한 이춘상 후보를 리드하고 있었다. 안기태

학생 금상을 수상하는 윤희진

감사보고 장면(정효환 감사)

후보가 회장에 당선 되었음이 밝혀지자 장내에서는 일제히 축하의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1백54표는 재석대의원 2백34명중 약65.8%에 이르는 대의원이 지지를 표시했다는 지지율이다.
장기인 회장은 안기태 후보가 회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힘차게 세번 두드렸다.
낙선이 확정되자 이춘상 후보는 지체없이 앞으로 나와 낙선인사를 하는 신사도를 발휘하였다. 대의원들은 인사를 마친 이춘상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사·감사 선출

회장 선출에 이어 이사·감사의 선출 순서로 들어갔다.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방법은 이사 5명은 회장 당선자가 추천하고 감사 1명은 회장 낙선자가 추천키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 윤봉원 대의원의 동의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으며 오후 5시37분 이사와 감사의 선출을 위해 장기인 임시의장이 잠시 정회를 하였다.
오후 5시45분 속개한 장기인 임시의장은 이사5명 감사1명의 선출 결과를 발표하고 이사에는 강기세, 황재효, 박영익, 조춘원, 윤 옥 등 5회원과 감사에는 류근열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사와 감사 등 6회원은 장기인 임실의장의 호명에 따라 차례로 등단하였다.
장기인 임시의장은 임원개선이 모두 끝나자 오용석 의장과 교대를 하였다. 이때 등단해 있던 신임 임원들이 차례로 협회와 회원업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인사를 하였다.
신임 임원들이 인사를 마치자 오용석 의장은 폐회를 선포하고 대한민국 만세, 건축사협회 만세, 건축사 만세를 부르면서 제21회 정기총회을 대단원 막을 내렸다.
여기서 본협회 제21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화분을 보내주신 관계 인사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리며 총회축하기념품을 기탁해 주신 업체와 전야제행사 협력업체에게 감사를 드린다.

● 축하화분
이규효 건설부장관
이재준 대한건설협회장
김종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윤용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류근창 한국주택사업협회장
유회준 한국건축가협회장
이광로 대한건축학회장

● 기념품
(주)한남화학

● 안건별 처리결과

구 분	부 의 안 건	처 리 결 과	비 고
제1호의 안	1986년도 제2차 일반회계추가경정	원안대로 의결	만장일치
제2호의 안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1987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 예산안 승인의 건	부대조건부 의결 (2호 및 3호 일괄의결) *예산항목 및 사업내용의 조정은 '87.3 임시총회에서 승인받는다는 조건 *광주시 지부예산을 본예산 항목에 편입한다는 조건	거수표결
제3호의 안	1987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 안	건축사연금 규정안 승인의 건	부대조건부 의결 *'87.3 임시총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조건	만장일치

투표 광경

안기태 회원, 회장 당선 인사

만세삼창, 폐회

● 협력업체
한국유리공업(주)
(주)담파
캐논세라믹스

'87 사업계획 소개

가. 기본방향

1) 각 시도지부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사업추진

2) 건축위원회의 연구 활동 활성화로 회원의 품위보전 및 기술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건축실무 및 신공법 신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 전개

3) 건실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계몽활동 강화

4) "건축사"지의 품위와 질적향상 도모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5) 건축문화 발전 및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건축설계 작품 순회 전시회와 건축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새로운 건축 풍토 조성과 후진양성에 이바지코자 신인학생 건축설계 작품 전시회 개최

6) 회원 및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과의 국제교류 실행

7)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축분야 부조리를 제거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를 조성.

8) 회원 및 협회업무에 대한 적극 홍보활동 전개

9) 건축설계도서 검토위원회의 자율운동으로 설계도서의 질적향상 및 기술지도와 행정기관의 심의 제도 개선책 강구.

10)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거리질서 계도 등 정화 관련 사항 적극 추진

11) 기타 협회 본연의 사업과 전년도 계속사업을 지속하여 회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되도록 업무의 발전을 기한다.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시 행 방 법 및 내 용
회원복리 증진	가. 건축관계 정보 자료실 운영	1) 국내외 건축관계 기술자료를 수집 회원에게 제공하여 회원업무 활동지원
		2) 외국 및 국내의 기술개발 정보자료 교류로서 신건축 기술 보급
	나. 예규집 발간	1) 회원업무의 편의도모를 위해 변경된 예규사항 및 행정지침 등을 편람식으로 발간 전회원에게 배포
	다. 복리향상을 위한 연구	1) 회원업무와 관련된 보험업무연구
	라. 견학회 실시	1) 현장견학 실시로 작품활동의 향상 제고
	마. 회원업무 개선 추진	1) 보수요율의 덤핑방지
		2) 부당한 업무처리 방지
회원상호 친목 대회	가. 회원친목 대회	1) 각지부별 회원간 상호이해 증진과 친목을 도모키 위한 행사 개최
		2) 회원간 체력증진과 취미생활 함양을 위하여 체육행사 실시
	나. 회원명부 발간	1) 전국회원의 인적사항을 수록하여 전회원에게 배포
	다. 간 담 회	1) 회원상호 이해증진과 참신한 건축사계 풍토조성
		2) 건축법 및 건축행정상의 문제점 발췌 및 대정부 건의
		3) 협회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 청취로 협회 발전도모
건축사업무 개선	가. 건축관계법규 및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1) 건축관계 법규의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정(안)연구
		2) 건축행정 제도 개선 연구
		3) 건축사업무의 제도 개선 연구
	나. 건축위원회 운영	1) 각 분과위원회 활성화 도모
		2) 건축관련분야 문제 연구개선, 보완, 시정 건의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시 행 방 법 및 내 용
		3) 연구결과 회지게재, 책자발간 배포 4) 외국제도와의 비교 검토 연구
	다.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	1)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설계 및 보수기준 현실화 도모 2) 건축물 용도분류, 종별 규정 개정 도모 3) 보수요율 재조정 도모
	라.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연구	1) 설계도서 검토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 행정기관의 심의제도 개선 연구 3) 효율적인 건축사업무 풍토 확립
전시회 개최	가. 회원 작품전 전시회	1) 회원의 창작의욕 고취 2) 일반인에게 건축의 이해증진 도모 3) 기술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4) 전시회 개최의 다변화 도모
	나. 신인, 학생 작품 전시회	1) 건축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 제고 2) 새로운 건축 풍토 조성 및 후진 양성 도모
	다. 우수건축자재 전시회	1) 회관 전시장에 국내 생산 우수건축 자재의 상설 전시로 국민편의 도모 2) 각종 우수자재의 용도, 규격,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비치하여 회원업무에 활용토록 기여
회원품위 향상	가.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1) 실무에 필요한 강연회 등 세미나 개최 2) 관계법령 해설 및 토론 3) 건축사 윤리관 함양 4) 국가관 및 안보강연회 5) 현대건축, 신개발자재 세미나 6) 신공법 및 사용방법 7) 건강관리 및 정신교육 8) 건축과 에너지
	나. 작품집 발간	1) 순회전시 작품을 수록 발간 2) 회원 및 유관기관에 무료 배부함으로써 설계작품 향상 인식제고
지도 계몽	가. 회원사무소 및 업무에 관한 지도 계몽	1) 비위원회원 단속 및 조사처리 2) 회원간 분쟁 조정 3) 업무제도 및 질서 확립 4) 성실회원 권익보호
보조원 자질향상	가. 건축사보 및 보조원 강습회	1) 건축사보와 보조원의 자질향상 도모 2) 업무취급 요령 및 교육
출판 사업	가. 회지 "건축사" 발간	1) 건축사지 발간으로 회원 대변지로서의 역할 수행 2) 회원의 설계작품 및 논문으로 내용 충실편집 도모 3) 해외 및 관련기관에 배부로 협회 홍보 4) 회지발간 개선 • 특집호 발간회수 및 지면의 색도화 확대 시도 • 취재기사 및 지부활동 기사확대 • 지방지부회원 참여의식 고취
국제 교류	가. 국제교류 추진	1) 외국의 건축정보 및 기술교류를 적극 유도 2) 건축관계 국제기구 활동적극 추진 3) 해외건축계 시찰 적극 추진
감사 활동	가. 정기감사 실시	1)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강화 2) 지부 감사의 분소업무 지도 강화
	나. 특별감사활동	1) 사정업무와 관련된 지도활동 전개 2) 특정지역에 대한 수시감사 실시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시 행 방 법 및 내 용
사회정화 운동 전개	가. 의식개혁운동 나. 거래질서 확립 다. 기타교육 캠페인	1) 직장 정화위원회를 통한 정화운동 적극 전개 1) 직업윤리관 확립으로 건축사업무 및 보수 요율 질서확립 촉구 1) 정화교육 시행철저 2) 각종 캠페인 전개
새마을 운동	가. 직장새마을 운동 활성화	1) 직장 새마을운동의 정착화 2)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 3) 농어촌 일손돕기 4) 거리질서 및 상거래 질서운동 적극 전개
예산 및 물자 절약	가. 근검절약운동 전개	1) 예산낭비 및 비효율 요인의 제거로 검소한 협회상 정립
봉사 활동	가. 건축행정 상담실 운영	1) 건축민원 상담 전개 2) 건축민원 상담을 통한 대외홍보 및 대민봉사
홍보 활동	가. 홍보활동	1) 일간신문 및 방송에 회원 및 협회업무 홍보 2) 국민에게 건축사업무의 인식제고 3) 지역별 홍보 활동 강화
인력관리 및 업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협회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 연구	1) 직제기구 등 직원의 활용적정 검토 2) 협회업무의 제도 개선

본협회 임원진 소개

직 위	성 명	사 무 소 명	주 소	주 요 경 력	취임일자
會 長	安 箕 泰	(주)원일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장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자문	1986. 11. 10
副会長	金 基 壽	대한건축사협회	서울 강남구 서초동 1603-55	건설부 관리국장 정무장관보좌관 직무대리	1984. 5. 18
理 事	宋 基 德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용산구 서계동 209	서울 동남로타리크럽 회장 경기대학 강사	1985. 11. 11
理 事	李 榮 一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대한주택공사 설계과장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985. 11. 11
理 事	安 將 元	신아 건축사사무소	서울 은평구 녹번동 82-1	한국건축가협회 이사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	1985. 11. 11
理 事	李 文 雨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세종대학교 강사 국전 건축부문 초대작가	1985. 11. 11
理 事	黃 在 淳	오주·일민 건축사사무소	부산직할시 서구 부민동 1가7-1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지부장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1986. 11. 10
理 事	尹 鈺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대구직할시 중구 동문동 13	대구직할시 건설국 건축계장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1986. 11. 10
理 事	姜 基 世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3-2	한국은행본점 건축본부 기술실장 서울시 교육위원회 영선과	1986. 11. 10
理 事	趙 春 元	대원 건축사사무소	전남 광주시 동구 대인동 177	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전남지부장	1986. 11. 10
理 事	朴 榮 翼	원·안산·다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4	보건사회부 건축기사 풍림산업(주)사우디주재 공무이사	1986. 11. 10
監 事	鄭 孝 煥	정이화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성동구 구이동 252-16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정이화건축사사무소 대표	1985. 11. 11
監 事	柳 根 洌	중도 건축사사무소	충남 대전시 중구 대흥동 479-8	대전시 도시계획 심사위원 민정당 충남 운영위원	1986. 11. 10

취임인사

신임임원 취임인사

이사 윤 옥

이번 제21회 정기총회에서 본인을 이사로 선임하여 주신 회장단과 전국대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새로 선출된 안기태회장은 본인이 평소 존경하는 분이며 회장으로 출마하시면서 전임 오응석회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임기내에 기여히 결실을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셨기에 총회가 이를 환영하고 기대를 걸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몸담게 된 본인으로서는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회원 여러분에게 다짐 합니다.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은 전체회원을 위하여 존재하고 전체회원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한 마음과 부단한 노력으로 회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전체의 여망은 총회에서 수렴 반영 되겠읍니다마는 그 총의는 회원각자가 자신을 아끼고 전체 건축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협회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우릴때 비로소 발전적인 총의가 모아진다고 믿읍니다. 무관심이나 요행은 발전을 저해 할 뿐 아니라 가진것도 잃게되는 불행을 자초 할 것입니다.
원컨대 본인은 회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 속에서 많은 성원과 지도 그리고 따가운 질책을 받으며 보람된 임기를 채워 볼까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소원이 이루어 지시기를 충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 1926. 3. 13 대구생
•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경상북도 지부장, 본부 감사 역임
•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이사 조 춘 원

이번 제21회 정기총회에서 학식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을 이사(理事)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퍽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편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임기를 통해서 안기태(安箕泰)신임 회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이사님들과 2천4백여 회원님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받고 보다 향상된 건축정책이 나오도록 건축에 관한 문제점을 타개, 구현함으로써 건축사 업무의 불편 해소와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젠 우리 협회도 20년이 넘는 성년이 되었읍니다.
우리 건축사도 젊음을 바탕으로 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사회가 우리에게 바라는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 모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권익옹호와 건축문화 창달에 더욱 정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지부(支部)운영을 해본 경험을 토대로 회원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가를 협회운영에 반영하고 계획된 협회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읍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성원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 1938. 6. 10 전남생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전라북도 지부장 역임
• (현) 대원 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사 박 영 익

어느덧 협회는 스물 한살의 나이를 꼽을만큼 크게 성장 하였지만 거수거목(巨樹巨木) 정도로 성장하려면 아직도 더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멀고 험난한 길을 무리없이 가려면 먼저 우리가 화합 단결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2천3백여 건축사가 화합 단결이라는 목표를 성취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나〉와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기주의가 꿈틀거리는 〈나〉, 사리사욕에 젖어있는 〈나〉, 배타제1주의에 빠져있는 〈나〉 —그 〈나〉를 소멸시키는 진정한 내적 싸움이 마음 바탕에서 치열하게 벌어져야 하며 그 싸움에서 여지없이 〈나〉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건축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긍지를 회복하고,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높이고… 바라고 바라는 바 이같은 몇 가지 현안(懸安)은 〈우리〉가 형성될 때 자연적으로 순리에 따라 성취하게 된다고 확신 합니다.
본인은 이제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사(理事)로서 회원의 업무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라는 조화로운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 1939. 5. 16 서울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 풍림산업(주) 이사
- (현) 원·안산·다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황 재 효

천학(淺學)한 사람이 이사(理事)의 중임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금할 길 없옵니다.
협회가 성년을 맞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 임원님들의 크나큰 노고에 다시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선배 임원님들 께서 그동안 이룩해 놓으신 업적의 바탕 위에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님들을 모시고 회원 여러분의 권익신장은 물론 협회의 더욱 큰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협회는 오늘날 대내외적으로 공히 중대한 당면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더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회원 모두의 이해와 협동으로 결속하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을 배가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획기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돌이켜 볼 때 지난 20여년의 대내외 정세는 참으로 험난하고 숨가쁜 격변의 연속이었으며 협회는 창설과 더불어 격랑에 휩싸여 갖가지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국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의 개선과 주거 공간의 창작을 이룩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하여 왔읍니다.
이 모두가 회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피땀어린 각고의 소산이기에 더욱 값지고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겠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이

이사 강 기 세

- 1935. 12. 20 서울생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 중앙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대표

(미국 출장중)

아직도 우리들의 노력과 공적에 대한 대가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지나온 발자취를 교훈삼아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충실을 기하여 우리들의 면모를 일신하고 협회의 융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다같이 명심해야 하겠읍니다.
특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건축사법의 처벌규정(處罰規定)의 개선완화 문제나 건축법령상의 경직되고 획일적인 건축규제 사항의 시정을 비롯하여 협회의 연합회(聯合会) 제도 및 지부 독립채산제(独立採算制) 실시 문제 등 이러한 일들은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성취시키기 어려운 것이며 전회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속에서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번영이 곧 회원 개개인의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진지하게 자세를 가다듬어 회원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922. 11. 21 부산생
- 국방부 건설본부
- 부산직할시 지부장 역임
- (현) 오주일민 건축사사무소 대표

일본 건축사전국대회 참관기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전국대회는 47개 県建士會 (우리나라 시도지부에 해당)를 순회하면서 개최한다. 따라서 한번 주관한 県建士會는 47년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므로 정성을 다해 지역특성을 살려 준비를 한다.

김기수 /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전국대회를 마치고 축연장에서 벌어진 여흥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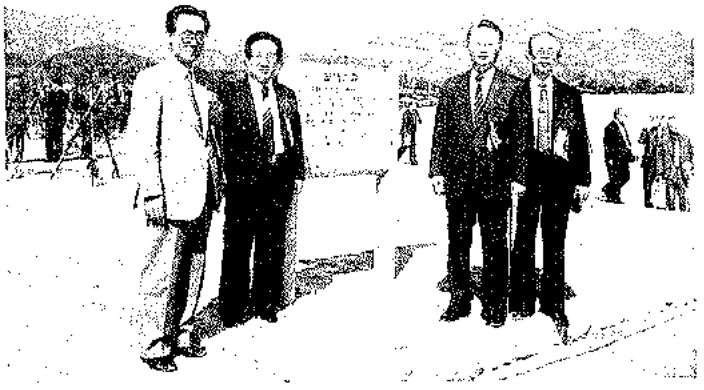
〔1〕

지난해 3월 29일 본협회 회관준공행사의 일환으로 日本建築士會聯合會와 본협회가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친선과 기술정보 및 자료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교환한 각서의 취지에 따라 양국의 대회 등 행사시에 서로 대표단이 참가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일본연합회측의 초청을 받아 본 협회 대표단 일행으로 본인을 포함한 4명 (이사 김규태, 이사 신정환, 구조분과 위원장 김창서(비용 자기부담)이 일본의 제29회 建築士會聯合會 全國大會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이 대회는 전국의 건축사를 참가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대집회이며 연구발표회와 축제, 그리고 상호친선단합의 위락 및 관광을 겸한 대행사로서 일본건축사연합회 산하 47개 지방건축사회(우리나라의 지부에 해당)가 1년에 1회씩 순회형태로 해당 지방건축사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방별로 서로 특색있고 그 지방여건에 알맞는 행사 계획에 따라 추진하게 되어 있어 결국 47년에 한번씩 그 기회를 갖게 마련이다.
이번 29번째의 행사 주관은 山口縣 山口市建築士會인데 개최지는 인구 12만의 쾌적하고 나름대로 정돈된 조용한 작은 도시이며 이 山口가 자리하고 있는 山口지방은 일본 본토 서단에 위치하고 山口 산맥을 경계로 하여 3면이 日本海, 瀨戸內海, 響灘住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륙부는 아름다운 계곡과 삼림의 대자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室町시대에는 大內文化가 번영하여 「西의 京」이라 하였고 그 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거쳐 明治維新 개화에 크게 공헌하였다 하여 이른바 「維新의 마을」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곳 건축사는 앞으로 건강, 복지문화 및 경제 등에서 조화가 이루어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이룩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山口 전국대회의 슬로건은 「미래에 이어지는 문화와 역사!/ 山口大會」로 하였다 한다.

〔2〕

약 4천명의 건축사가 참가한 이번 전국대회의 행사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첫날 행사는 山口市에 있는 山口縣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연구집회인데 제1부는 개회식으로서 日本建築士會 連合會 연구집회위원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하여 「건강의 즐거움—주거와 건강」을 연제로 기조강연(강사 : 의학박사 小川(씨)이 있었고
제2부, 분과회에 있어
제1분과회는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의 테마로 20명의 파넬라와 7명의 각 지방건축사의 발표자로

진행되었고 제 2 분과회는 「주거와 건강」의 테마로 역시 발표자는 7명이었다. 제 3 분과회는 「維新의 마을에서 이야기하자… 매력있는 建築士會」의 테마로 각 지방을 대표하는 7명의 건축사가 발표를 하였는데 이들 연구발표는 그들대로의 바람직스러운 「연구하고 일하는 건축사상」을 부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사 스스로의 사회적인 인식의 제고와 권익신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47개 都道府縣의 건축사회가 소속지역을 상징하는 縣木을 기증하여 조성한 「우정의 숲」앞에서

제 3 부 懇親會는 연구집회행사를 환영과 좌담과 여흥 등 축제분위기 속에서 마무리짓는데 連合會 회장단과 47명의 각 지방 건축사회장이 建設省 고급관리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베풀어진 懇親이란 이름의 주연은 서로가 예찬하고 격려하며 화평과 겸손으로 건배를 이어가며 만세 3 창으로 막을 내렸으며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기에 대한민국과 대한건축사협회 만세를 불렀는데 그들 전부가 소리높이 본인의 선창에 따라 삼창을 서슴치않아 가슴 후련함이 적지않았다.

둘째날은 山口市의 縣立스포츠문화센타에서 건축사회전국대회행사가 4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 1 부는 기념식수, 제 2 부는 식전, 제 3 부는 향토예능, 제 4 부는 축연 순서로서 많은 식전에서 볼 수 있는 격식과 의전 절차에 따라 인사말씀, 축사, 회무보고 등이 있었으나 이날의 부별행사에서 특히 인상적인 행사는 기념식수와 향토예능이었다.

이 중 향토예능은 일본 특유의 전통적인 장구 등의 놀이로서 우리나라 향토의 특색있는 노래와 춤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옆방 보자기에 넣어 두기로 하지만 제 1 부의 기념식수행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어 소개하겠다.

이 기념식수는 「미래에 이어지는 문화와 역사! 山口大會」의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建築士會 全國大會를 기념하여 다음에 山口를 방문했을 때의 성장을 즐겁게 보기 위하여 각 都道府縣 47개 지방에서 기증된 縣木을 식수하여 「우정의 숲」(友情の 森)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 「友情의 숲」은 일본열도의 모양을 그 형태로 하여 각 지방의 지리적 위치대로 정하여 47개의 나무를 정성스레 심은 것이다. 멀리 北海道로부터 남쪽 끝인 沖繩까지…

그 나무들이 언제까지 커서 진짜 숲을 이룩할 것인지 알 수 없어도 아마도 10년이 지나면 그들나라의 성장과 발맞추어 무성하고 포근한 푸른 정이 넘쳐흐르기를 바라면서 심었으리라.

일본측 회장단과 우리 일행

세째날은 주최자측에서 마련한 여러 스케줄에 따라 각자가 자유로이 취미와 팀 별로 관광, 견학, 위락 등을 즐기는 것으로 하여 전국대회의 모든 행사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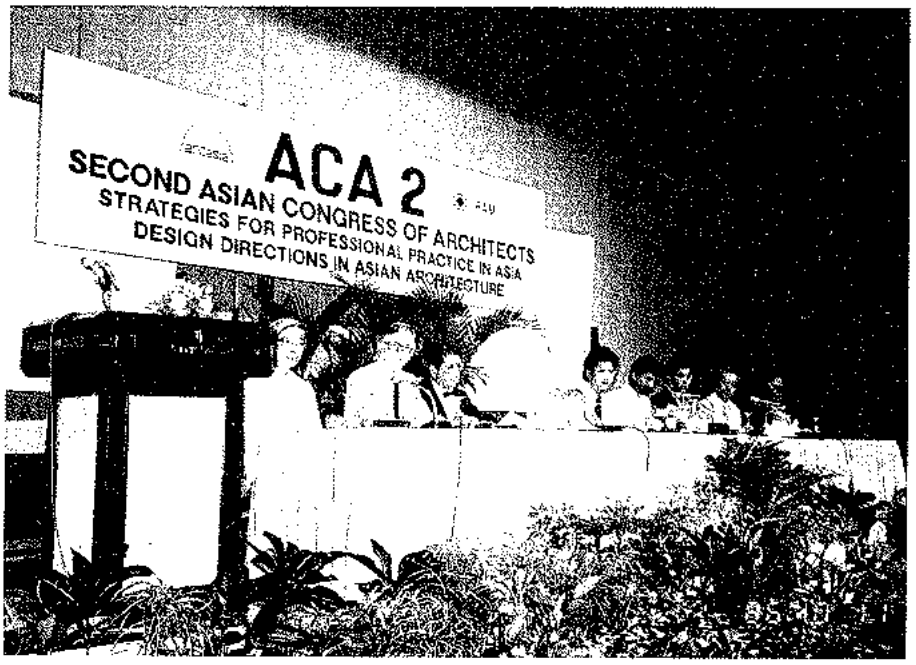
나는 이들 일본 건축사들의 전국대회를 참관하고 본대로 느낀대로 여기에 소개를 하였다.

그들은 이 행사를 47년에 한 번 밖에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이날을 위해 1년동안 대내적으로는 물론 관계단체 기관 등과 수 많은 계획, 협의, 협조를 거쳤으며 보다 뜻있고 자랑스러운 대회를 장식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으면서 그리고 또한 이 행사를 위한 협찬자가 각계각층의 협회, 단체, 업체 등이 6백 60여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들의 단합적기질을 다시한번 마음깊이 새기면서 그곳을 떠났다.

끝으로 日本建築士會聯合會 회장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석상에서 우리나라 건축사법제도가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좋은 점이 아주 많다고 항시 이야기하는 日本連合會 太田회장이 본인에게 들려준 말을 여기에 남기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금년여름 日本建築學會 창립100주년 행사(일본 황태자 부부 임석)에서 中共의 건축학회회장이 나에게 우리도 이제 건축사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그 때 나는 서슴없이 우리나라 법은 별로 참고가 되지않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건축사법을 연구하면 아주 좋은 법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일러주었노라」고.

제 2 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



제 2 회 아시아건축사 회의광경 (UIA 대표단이 동참했다.)

REPORT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by Kim, Chi Dok

김지덕 /
유신건축사 사무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머리에

1986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풀에서 개최된 아시아 지역 국가 건축사단체의 모임인 제 2 회 아시아건축사회의 및 제 7 회 ARCASIA 총회에 본협회 오웅석 회장, 송기덕 국제위원회 위원장, 김지덕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전봉수 국제위원회 간사, 이영일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우성 국제위원회 간사, 조재원 국제위원회 간사, 박규영 국제위원회 간사, 임인혁 본협회사무처장 등 9명이 이사국 건축사단체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985년 11월 15일~11월 19일까지 인도의 봄베이에서 개최되었던 ARCASIA에 제 6 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사협회로서 만장일치로 회원국에 가입됨과 동시에 이사국으로 승인된 바 있다.

제 7 회 ARCASIA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 일행은 본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위시, 각국 건축사협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상호관심사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나누었다.

회의 진행중 특히 오웅석 회장은 3회에 걸친 의견 발표를 했으며, 송기덕 위원장은 본협회의 85~86년의 2년간의 활동상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총회기간중 실시되었던 제 1 회 학생 쟘버리 대회에는 본협회에서 주최한 제 1 회 학생건축설계작품공모전에서 금상과 은상을 차지한 윤희진(연세대)군, 최병무(목원대)군을 파견, 참석시켰으며 이 두 학생은 아시아지역국가 건축전공 학생들과 5박6일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말레이지아 공과대학(I. T. M. Institute of Technology of Malaysia)에서 장래 건축사로서의 꿈을 키우는 뜻깊은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벌였다.

이영일 연수위원회위원장이 학생 쟘버리에서 행한 한국건축과 교육에 대한 토론은 많은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5백여명의 각국대표가 운집한 총회석상에서 행한 〈우리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비교〉제하의 멀티비젼 쇼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재원 국제위원회 간사는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킹톤루 건축사가 행한 〈전문건축설계에 대한 현황〉제하의 주제발표 뒤를 이어 우리 한국과 비교 검토하는 논제 발표를 하며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본협회가 1988년도에 개최될 제 3 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국으로 추천을 받아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력, 대표단의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와 참석성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 7 차 아카시아(ARCASIA)이사국

총회에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

나. 제 1회 건축전공 학생 잼보리 (Jamboree) 대회에 한국학생 2명 파견.

다. 〈한국 전통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의 설계측면에서의 비교 검토〉 제하의 연구문을 심포지움에서 발표.

라.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의 주제 〈아시아에서의 전문 설계용역 전략〉 이란 제하의 각국대표 논문 발표에 참석.

마. 본협회 연수위원회 이영일 이사 참석하에 〈아시아 건축과 학교교육〉 에 관한 제반문제의 상호 의견교환, 우리나라 건축전문교육과정에 대한 보고문 발표, 및 종합토론 진행.

바. 〈아시아 건축설계의 새로운 설계방식〉이라는 주제하에 말레이시아 건축사 킹톤루씨가 〈전문건축설계에 대한 현황〉 제하의 논문을 발표, 본협회에서 연사 토론 심사자(panelist)로서 참여, 토론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발표도 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따른 활동을 전개.

사. ARCASIA 이사국 총회 최종일, 본협회가 1988년도 제 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국으로 추천되어 각국 이사들의 승인 획득.

특히 제 3회 아시아 건축사회의를 본협회가 서울에서 개최케 된 것은 본협회를 방문한 바 있는 ARCASIA의 멘도자 회장의 강력한 추천에 의거,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안건을 찬성, 통과시키는데 기인했다. 멘도자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본협회는 차기 아시아건축사회의의 개최에 대한 멘도자 회장의 조심스러운 타진을 고사했었는데, 협회의 건물, 강당, 단합된 협회조직, 가장 많은 건축사 수, 아시아지역에서 제 1회 연회비 운영, 그리고 아름다운 4계절에 대한 동경과 한국건축물에 대한 호기심 등을 들어 한국이야말로 차기 아시아 건축사회의 개최의 최적지라고 이사국들을 부추켜 만장일치라는 찬성표를 유도해 내면서 강력하게 밀어부쳤던 것이다.

제 7차 ARCASIA 이사회의

제 7차 이사회의는 제 2회 건축사 회의가 진행되기 앞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13개국의 대표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 이사회의에는 우리나라 오응석 회장과 송기덕 이사를 비롯, 홍콩의 에드윈 윙(국가공무원 건축사), 인도네시아의 아디 모이시드 (adhi moersid) 회장 등 각국 협회의 현직 회장과 국제관계 이사들이 주로 참석했다. 본 이사회의 의안은 제 6차 때 토의된 안건의 승인을 비롯, 이미 토의하기로 각국의 회장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중심이 되었다.

a) IIA의 제안인 Exchange of Faculty (교환교수)

b) SIA의 Architectural Competition (건축작품전)

c) DR. Ken Yeang의 ARCASIA Publication(아카시아 문서발간)

d) UAP의 제안인 외국자본의 투자와 설계로 이루어지게 될 프로젝트의 해외 및 국내연합 콘설턴트 사업.

e) 새회원국 입회에 대한 새규정 협의

f) 1986년도 ARCASIA 회장 Report 검토

g) 1986년 제 2회 건축사 회의 Forum 진행보고

h) 각국의 건축사협회 활동 보고

i) 각국의 건축사 업무, 건축사법, 정관, 윤리규약, 표준설계비에 대한 각국의 Data 교환

j) 1988년도 ARCASIA 이사회 이사진 선출, 새회장 선출

j) 제 8차 이사회의 개최지 결정

k) 제 3차 아시아 건축사 총회 개최국 선정.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위원회의 회의가 따로 진행되었으며 아울러 학생 잼보리 대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잼보리 건축과 학생대회에는 아시아 지역 13개국에서 학생 38명이 참가했고 성황리에 끝났다. 금번 회의도 위에 열거한 안건 모두를 아카시아 정관의 원칙에 입각, 협의 진행했다. 원래 ARCASIA 정관에 표시된 대로 아시아 지역간의 각국 건축사협회간의 우호적 지성적 예술적, 교육적 및 과학적 유대강화에 대한 일과, 회원 협회들간에 전문분야에 관한 연락, 상호협조 및 지원을 강화, 유지하는 일에 대한 협의,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회원국의 건축사들을 대하고, 사회에서 건축가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오응석 전회장의 한국대표 연설

있게 되도록 노력하는 일과 건축가들이 직업인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전과 교육을 촉진시키는 일과, 건축환경 부문의 연구와 기술적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원칙대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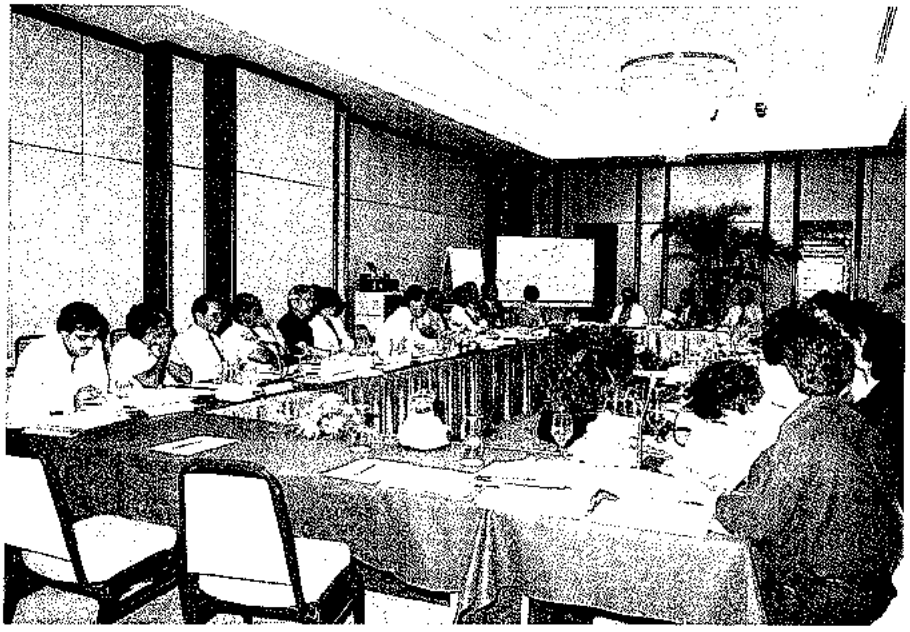
원래 ARCASIA 정관에 표시된 대로 ARCASIA의 이사회는 각국의 회원 협회의 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1명은 회장 또는 그가 지명한 대표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협회도 회장단의 참석이 꼭 필요했던 바이다.

본 협회는 이사국으로 등록이 된 후의 첫회의라 의의가 자못 컸었다고 생각된다.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앞서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공리에 열린 제 1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ACAI)에 이어 건축사 아시아 지역이사회(ARCASIA)의 국제 대회였다.

제 2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ARCASI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건축사 협회가 주최했다.

ACA-2와 동시에 ARCASIA 이사회의 도중, ARCASIA 건축교육위원회 회의, 건축사 UIA (세계건축사 연합회) 제 4지역 국제연맹 및 영연방아시아 지역 건축사협의회 회의 등이 열려서 건축인은 이지역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했다.

아시아지역 건축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다른 다양한 문화와 사회의 출신이면서도 그들을 결속시키는 많은



ARCASIA 이사회의 광경

유사성들을 지니고 있다. 그들 중에는 함께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과정을 거친 사람들도 많고 또 서방산업 사회라는 외지에서 함께 건축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양한 변화를 하나로 융합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또 발전도상국 공통의 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목적의식에 있어서 다른 국제적 모임들의 모범이 된 제1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서 결속과 따뜻한 친구로의 우정을 엿보게 했었던 것이다.
제2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는 건축사의 영업활약성과 설계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뤘다.
전자의 주제인 아시아에서의 건축사의 직업적 활동을 위한 전략에서는 건축사가 그 기술을 연마하여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따라서 직업활동에서 새롭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도, 그 궁극의 목적은 보다 낳은 건축을 창작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연속 기획으로 진행됐던 논단(ARCASIA Forum)인 아시아 건축에 있어서의 설계방향 제하의 논제는 설계에 관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아시아 각국의 건축들을 소개하여 검토를 받고, 소견을 듣기 위한 광장이였다고 판단한다.
그 목적을 현대적이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지닌 건축의 탐구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는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방적 특성을 지닌 건축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되는 건축사 모두의 대화의 장소임을 확인하는 장이 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의에서는 제1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에서(1984년 10월25일~29일) 결의됐던 국제 콘설팅 용역 계약에 대한 국제윤리 규약의 각 협회 이용에 대한 재 천명과 1985년 1월 카이로 이집트 회의때 UIA 국제회의에 정식 제안했던 보고사항의 재확인,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각국가의 차관 단체 및 국가기관에 배포하는 보고 상황에 대한 적용 및 확인 등이 있었다.
U.I.A 제4지구 부회장인 킹톤루씨도 ACA1의 결의문에 대한 사항을 1985년 UIA 카이로 대회에 정식 제출하였음을 확인했다.
이 국제 콘설팅 규약은 앞으로 있을 1987년 UIA Bublin 국제 건축사 회의에 각국의 국제관계기구가 적용하도록 UIA New Letter를 빌려서 세계 각국에 1986년 9월2일 배포됐음을 이번 ARCASIA이사국 회의가 확인했다. 본 ARCASIA의 단체에 대하여 서울지역 건축사 회원중 일부회원이 저개발국가단체에 우리 대한건축사 협회가 가입해서 시간과 돈을 쓰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저개발국가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 그분이 계신곳을 보았다. 그러나 본인은 ARCASIA가 저개발국가의 회의가 아니라 전 세계속의 건축사 단체임을 이기회에 밝히고자한다.
우리 협회가 ARCASIA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 해 온 건축사의 활동실상을 알리고 또 그들이 겪는 창작활동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문화생활과 문화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뜻이 있으며 세계의 새로운 건축기술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속한 사회속의 역활을 재조명 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데에서 진정한 뜻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지금 세계는 점점 좁아져가고 있으며 우리 협회만 고립해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ARCASIA 회장은 각국의 건설에 주요한 역활을 하고있는 장관들을 만나서 우리의 역활과 목적에 합당한 노력을 하고있다는 사실도 이자리에서 확인했었다. 또한, 이번 이사회의에서 1986년 4월23일~26일의 4일간 싱가폴에서 제65차 UIA 이사국회의에서 국제콘설팅규약에 배서(Endorsement)했음을 확인했다. 이 문서는 UIA 4지구 이사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세계건축가협회(UIA) 제4지구와 ARCASIA의 활동과 계획등에 대하여 상호협력과 협동으로 양조직이 적극 공동협동으로 노력한다.
둘째 : 1985년 UIA 카이로회의에서 제안된 ARCASIA의 국제 윤리규약의 모든 문서에 UIA이사회의에서 요청된 UIA세계국가로부터의 논평에 재고할것을 확인해야하고
세째 : 65차 UIA이사회의에 아카시아 국제콘설팅윤리규약의 제출과 승인 및 그 결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계속적 활동(안)에 대한것 등의 보고를들었다.
이 이사회의에서는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 코라손아키노여사에게 ARCASIA의 국제윤리규약이 필리핀 건축사 연합회에서 공식문서로 정식 제출된 보고사항도 보고받았고, 이 문서는 기술사 협회, 해외 자본 승인 국가조직(국회차관단)에게 제출되었다는 보고도 자세히 들였다.
또한 필리핀 건축사협회는 필리핀 5개의 전문용역설계 단체인 기술사 단체에게도 그 실행에 대한 촉구문서를

정식 발송,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활동 상황의 보고도 들었다.
금번 이사회의에서는 앞으로 1987년 UIA Dublin총회에 대한 행동강령의 협의와, 아시아 국가정부에 이 국제 윤리규약의 적용 권유를 이해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했고, 세계자금융자기관에 ARCASIA가 어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국제 윤리규약에대해 이해시킬것인가, 하는 토의를 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도 깊이 생각, 대정부, 대국회 대유관기술사 단체에, ARCASIA에서 채택한 전문기술용역인들의 보호육성및 한국기술자업무 보호육성을 위해서도 공식문서를 작성 제출해야될줄로 생각한다.
본 이사회의에서 아카시아 뉴스전달매체인 시사통신(News Letter)의 보급과 출판, 각국의 건축사활동 내용의 통보등에 관한 협의도 했었다.
금번 회의에서 자유중국과 북경의 중국건축사회의 가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이 승인된 것도 이사회의 결과이다. 중공을 방문했던 ARCASIA회장은 중공의 DAi Nian Ci 차관과 접견하고 그곳의 국제심포시움에 참관했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중공은 아카시아가 국제적 선진기술을 보유한 단체로서 아시아의 유일한 기술및 자문기관임을 확인하였으며 아시아제국에 정부적차원의 기술협조 기관으로 계속 활동해줄것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했다.
본 이사회의에서는 지난번 한국건축사협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멘도자회장과 로널르푼의 한국방문에 대한 소감발표도 있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활동상황과 우리협회의 역사, 건축사의 활동, 설계작품의 역사적 배경등 회원국 대표에게 상세한 한국의 소개와 보고를 했으며 앞으로 아시아제지역 건축사활동 단체로서 또한 전문기술자로서 참가하게됨에 따라 한국의 설계실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었다. 본인은 여기서 우리협회가 ARCASIA의 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뜻을 명료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역시 우리도 ARCASIA와 함께 활동할 결의를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생각되었다. 금번 이사회의에서는 새회장에 말레이지아 건축사인 게네드·양 박사(DR. Ken-neth young)를 뽑았으며 이.회장이 앞으로 1987년 1988년 2년간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ARCASIA는 이처럼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그치지 않으며 즐거운 사교적 행사가 곁들여지기도 한다. 우의와 친교관계가 형성된 칵텔파티, 초청회사와의 만남, 각국대표들 끼리의 사교 등 오래토록 유대를 지속시킬 많은 부수행사들이 있었다.
건축사들의 이런 모임에는 참으로 숭고한 목적이 깃들여 있으며 제2회 건축사회의는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것이 입증되고 있었다. 제3회 아시아건축사 회의는 한국에서 해줄것을 요청받았으며 본협회 오웅석회장은 인사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되여 반갑다는 인사말과 우리의 협회에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이사회의에서 다루었던 교환교수안건과 ARCASIA신규 회원국에대한 조건은 다음에 원문으로 소개한다.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금번 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아시아 건축과 학교교육에 대한 서로의 정보교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한 건축사협회는 이영일 연수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아카시아 교육위원회에 참석했었다.
이 교육 위원회에서는 학생 잼버리(Jamboree) 활동과 앞으로 ARCASIA의 장래를 이어나갈 학생 교육에 대한 협의를 주 안건으로 다뤘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관심은 각국의 건축과 학생이 자국내에서 어떠한 교육적 배경을 갖고 공부하여 몇년후 어떠한 시험을 거쳐서 건축사가 되는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우리는 회의에 임하기 전에 편지로 요구해온 바에 따라 본협회 연수위원회 위원이신

아카시아 가입회원국에 대한 조건

ITEM 6.05 OF AGENDA

CRITERIA FOR MEMBERSHIP TO ARCASIA (amended 17/9/86)

1. The applicant must be a membership organisation to which only architects and those aspiring to be architects can belong as members.
2. The applicant or ganisation must have a constitution or a set of objectives that represents the professional aspirations of architects.
3. Membership to the applicant organisation can only be effected upon compliance with the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professional practice experience required for an architect.
4. The applicant organisation must have a presiding leader who is elected by its members and who shall represent the organisation in Arcasia council and its other activities.
5.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towards the collective professional and societal interests of the majority of the architects of the country and must be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as having that status.
6. The regular members of that organisation must be professional architects whose qualifications are recognised by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7.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ofessional ethnics for its members eg. a Code of Conduct and Ethnics.
8.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for professional competence i.e. it must be vigilant on the competence and standard of performance of its members and shall take punitive action on those who do not fulfill such standards.
9. The organisation must subscribe to the objectives of ARCASIA.
10. The organisation must be financially sound and undertake to pay its subscriptions to ARCASIA.
11. The organisation must not be a member of any other organisation that has objectives contrary to the objectives of ARCASIA.
12. The organisation must have responsibilities for the professional education of architects eg. architectural education policy for the country, the conducting of examinations in the professional registration of architects in that country.
13. The organisation must have "learned society" responsibilities ie. seek to advance the body of knowledge of architecture and its development.
14. The organisation must be recognised by its own country Government as representing the majority of the architects that country in an international context.

연세대 박영기교수가 건축과 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작성해주어 그것을 ARCASIA회원국에 배포했었다. 물론 우리나라 건축과 교육전반에 걸친 과목과 학점배점과 4년간 학생들이 공부해야할 필수과목과 교과과정에대한 정확한 교육과정도 함께 작성해서 각국에 배포 했다.

교육위원회의는 ARCASIA에 속한 한 활동단체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원칙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에서 인정한 부대 사업만을 교육위원회 사업으로 규정하고있다. 교육위원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매년 ARCASIA의 이사회의가 개최되기전 개최지에서 회의를 하며 총회원국의 50%이상이 참가해야 정족수로 회의가 성립되도록 되어있다. 금번도 회장엔 역시 스리랑카의 건축가이며 대학교수인 구랏낫나롯치씨가 만장 일치로 당선 됐다.

이교육 위원회의 회의에서 이영일위원장은 우리나라 학제와 건축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내설명을 행하였으며 각국 나라의 대표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문서로 또는 회의중에 전부 회신해주는등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이번 교육위원회의에서 토의됐던 제일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 잼버리행사는 계속하기로 결의 했으며

둘째 : 학생들 방학중 학생스스로 희망한다면 각국의 환경, 사회교육, 건축예술의 상태를 공부할수 있도록 각국협회에서 적극도와줄것에 합의했고, (6명한)

세째 : 각국의 교육프로그램(Program)을 상호 매년 교류할 것에 합의했고,

네째 : 학교를 졸업한 학생스스로 취업길을 택하기전 에서 학생의 수만큼 교환해서 생활비만 제공하여 훈련의길을 터줄 수 있는길을 서로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다섯째 : 학생작품교류전에 적극참여하고

여섯째 : 각국 개업건축사의 타국여행에 협력할것 등에 합의했다.

각국의 대표단 참석명단

OCTOBER 8-13, 1986 KUALA LUMPUR, MALAYSIA

ARCASIA MEMBER/ OBSERVER INSTITUTE	7TH COUNCIL MEETING		ACA-2	FORUM FORUM 3
	OFFICIAL DELEGATES OFFICERS/ADVISERS	ALTERNATES OR OBSERVERS		
1. UAP – Philippines	F. Mendoza-Arcasia Chairman R. Tobia-Arcasia Hon. Sec./Hon. Treas. C. Canchela M.C. Simpliano-ACAE		F.M. Mendoza-Session Chairman C.V. Canchela-Panellist F.L. Hong-Speaker	M. Simpliciano-presentor
2. IIA – India	R.S. Khambatta-Arcasia Deputy Chairman Sirish Desphande-ACAE		R.S. Khambatta-Session Chairman A.P. Kanvinde-Speaker	Prof. Sirish Desphande-presentor
3. PAM – Malaysia	Haji Abdul Majid Dr. Ken Yeang-ACAE David Teh-ARCASIA Deputy Chairman Kington Loo-ARCASIA Adviser		Haji Abdul Majid-Session Chairman John Koh-Panellist Kington Loo-Speaker David Teh-Conference Chairman	Dr. Ken Yeang-Speaker Jimmy Lim-Panellists Ruslan Khalid-presentor
4. IAP – Pakistan	Akeel Bilgrami Dr. Pervaiz Vandal-ACAE	Shahab Ghani Khan	Arshad Abdulla-Panellist	Zaigham Jaffery-Panellist Arshad Abdulla-Presentor
5. KIRA – South Korea	Woong Suk Oh Young Il Lee-ACAE	Kee Duk Song Joseph Kim	Joe Won Cho-Panellists	Woo Sung Kim-Presentor
6. ASA – Thailand	Prof. Songkoon Atthakor-ARCASIA Deputy Chairman Pracha Suk Udom-ACAE		Prof. Songkoon Atthakor-Panellist	Sumet Jumsai-Speaker Mati Tungpanich-Presentor
7. SLIA – Sri Lanka	Lala Adithiya-Past Chairman P.G.K. Fernando Lochi Gunaratna – ACAE Chairman	Lakshman Alwis	P.G.K. Fernando-Panellist	
8. SIA – Singapore	Yang Soo Suan Chia Kok Leong		Yang Soo Suan – Speaker	Meng Ta-Cheang – Panellist

학생 JAMBOREE 대회

ITM(Institute of Technology Malaysia)의 주최로 14개국의 학생 38명이 참가한 본학생 Jamboree에 대한 건축사협회에서는 2인의 학생을 대표로 파견, 숙소인 ITM의 교정에 머물면서 10월 9일(목)에는 건축과 학생 교육에 대한 발표(Presentation)를 하였고, 오후에는 각국의 건축과 학생들이 제작해온 자국건축물 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그들 국가의 교내 건축Program을 소개하는등 많은 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본건축사 대회기간중 함께 총회에 참석했으며 말라카(Malaca)에 여행, 그나라 고건축에대한 견학을 했다.

이학교는 ITM의 건축과가 주관하여 행사를 치뤘는데 쿠알라룸풀(Kuala Lumpur)국내에서도 25km떨어진 곳에 위치는 아주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캠퍼스내에서 있었다.

학생들은 자기나라 학교의 자랑, 학교에서 가져온 책자교환, 교과과정 비교, 손수 만든 설계 작품의 비교, 그들 건축과 학교의 문제점과 앞으로 지속해가야할 학생 잼버리의 방향제시 등등 많은 숙제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 학생들은 지방특색의 인식과 학생교환의 뜻과 각국의 건축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등 서로에대한 학생들스스로의 판단에 많은 교훈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이 학생 잼버리는 ARACASIA 교육위원회가 존속하는한 계속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번 학생 Jamboree 의 Program을 갖는 목적은

첫째, 아시아에서 건축학과를 전공하고 공부하는 재주있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으로부터 접하는 건축물과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얻는 특수성에 익숙해 지기를 바라며

둘째는 자국에 존재하는 여러 조건과 제반문제점들과, 타국이 접하고있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건축가를 육성하기위한 촉진제가 추출되기를 바라고

각국의 대표단 참석명단

OCTOBER 8-13, 1986 KUALA LUMPUR, MALAYSIA

ARCASIA MEMBER/ OBSERVER INSTITUTE	7TH COUNCIL MEETING		ACA-2	FORUM FORUM 3
	OFFICIAL DELEGATES OFFICERS/ADVISERS	ALTERNATES OR OBSERVERS		
9. HKIA – Hong Kong	Ronald C.Y. Poon – ARCASIA Adviser Edwin Wong James Kinoshita			Ronald C.Y. Poon – Session Chairman James Kinoshita – Presentor
10. IAB – Bangladesh	Mabub Haque Haroon Ur-Rashid			Bashvirul Haq
11. IAI – Indonesia	Adhi Moersid Mochamad Danisworo			Suwondo B. Sutedjo
12. Chinese Architects (Beijing)	Dai Nian Ci Wu Liang Yong Chen Zhanxiang	Three other delegates		Chen Zhanxiang – Panellist
13. Chinese Architects (Taipei)	Kun-Nan Hsu Yu Ming Kuo – ACAE	Tze Hwan Chung		Haigo T.H. Shen-Presentor Joshua Jih Pan-Presentor & Panellist

COUNTRIES ARCASIA GUESTS	7TH COUNCIL MEETING GUEST DELEGATES	ACA – 2	FORUM 3
1. Japan		Dr. Takekuni Ikeda-Speaker	Mr. Hiroyasu Higuchi and Ms. Reiko Hayashi of Team Zo-Speakers
2. U.S.A.		A. Eugene Hohn-Speaker	
3. AUSTRALIA		John Davidson-Panellist	
4. UNITED KINGDOM		John A. Wells-Thorpe-Panellist	
5. NIGERIA		Dr. Wale Odeleeye-Panellist	

세째 : 아시아지역내 전문기술용역 설계자로 내부의 인사교류를 지속하면서 건물특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하며
네째 : 아카시아와 ACAE(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아시아 건축학도들 사이에 우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래각국의 협회 발전에 그들이 기여토록하며
다섯째 : 우리를 가운데에서 다음세대를 이어주는 실존의 인물로 우리자신들의 실존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한것 등에 금회 Jamboree 의 의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학생들 스스로가 영어회화에 자신들이 없어서 의사 소통에 애로가 있었고 학생 스스로도 하고 싶고 묻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 이루 다 표현 못하여 큰 애로를 느꼈다고 했다. 차기회의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선발해줬으면 하고 느끼는 바이다.
제3회 아시아건축사 협회는 서울에서 1988년 11월초에 개최될 제3회 아시아건축사 대회는 서울에서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최할것으로 최종 합의 했다.
우리는 아카시아의 초년생협회이고 좀더 선배국가의 활동을 연구한 천천히 개최국이 될것이 좋겠다고 설득했으나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ARCASIA회장단의 강력한 추천으로 오웅석회장이 최종 승인 발표를하기에 이르렀다. KIRA가 제3회 아시아건축사 회의를 한국에서 해야한다는 그들 주장엔 자기들 모두가 한국에 가보고 싶고, KIRA는 자체의 협회건물이 있어서 타국의 경비지출에 절감이 되며, 기후의 온화함, 4절기의 분명함, 찬란한 문화와 역사의 자랑 등을 들고 있었다.
더욱이 최고의 회원수를 포용하는 협회로 자랑스러운 자체 건물이나 1년예산액만도 타회원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금액이라하여 이들이 적극 한국내에서 제3회 아시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이다.

제2회 ASIA 건축사회의 목차

10월11일 첫째날
회의제목 : STRATEGIE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ASIA.
첫째연사 : Eugene Kohn, 미국인건축사
연설제목 : Marketing of Professional Services
둘째연사 : DR. Takekuni Ikeda, 일본인건축사
연설제목 : Marketing of Pro fessional Services

10월12일 둘째날
세째연사 : Dato Kingtou Loo, 말레이시아인, 건축사
연설제목 : The State of the profession
네째연사 : Yang Aoo Suan, 싱가폴인, 대학교수
연설제목 :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
다섯째연사 : A. P. Kavinde
연설제목 : Diqqerent style of practice
여섯째연사 : Froilan L. Hong
연설제목 : Diqqerent styles of practice

10월 13일(월) 세째날
일본인, 일본동경에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일곱째연사 : Mr, Hiroyasu Higushi
일본인, 동경에 사무실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Atelier Zo회사의 설계 주역 Miss Reiko Hiyashi의 자기들 작품 세계에 대하여 논평·비평 그리고 건축적인 경험을 발표했다.
여덟째연사 : Sumet Jumsai 박사 (타일랜드인)의 자기가설계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아홉째연사들 13명을 위한 제목 : "ARCASIA Forum on Design Disection in Asian Architecture"
각국의 전통 건축물과 현대건축물의 설계 방식에 대한 Slide show와 설명을 곁드린 자국건축에 대한 Forum 이 진행됐다. 각국13명의 대표들에 의해 自口의 설계작품 Presentation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우성 회원의 아주 멋진 Multivision Slide Show를 진행했다. 모두가 진지하고 많은 찬사를 들었다. 이번 회의의 꽃이라 할만했다. 총21명의 연사가 출동한 셈이다. Panelist까지 합하면 33명의 연설자들이 금번 2회 Asian Architect Congress를 빛내 주려고 Kualar Lumpur에 왔던것이라 생각된다.

제3回 Asian Architects Congress를 대한 건축사 협회가 1988년 10월중진행 하기로 결정된 지금 우리 협회가
(가). 무엇에 대한 회의를 할것인가?
(나). 어떻게 이런 국제회의를 진행 할것인가?
(다). 어떠한 발언자가 선택되어야하나?
(라). 전국의 건축사들 모두에게 유익한 회의가 되기위해서 어떻게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까?
(마). 혹시 전국의 회원이 이런 국제회의를 왜 대한 건축사협회가 주관해야 하느냐고 시대에 뒤진 예기로 호응을 안하면 어떻게할까 하고 몹시 마음조려진다. 이제껏 실무의 일선에서 일해온 필자로서는 좀더 전국의 뜻있는 회원 모두가 이번 국제회의에 모두 합심해서 성공적인 회의가 이뤄졌으면 하고 희망한다. 우리가 이뤄놓은 건축사 작품을 보여주고 우리의 전통 생활방식을 서로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건축설계 분야의 새로운 기술적 방식의 연구를 위해서도 이런 국제적 회의를 좀더 연구 발전 시키며 우리의 전문용역 건축사의 앞날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연구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우리의 3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 뜻있는 회원의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글을 마치고자한다. 앞으로 건축사지에 한두편 2回아시아 건축사 회의의 연사 논문을 번역 소개해 드릴것을 약속하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규준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일시 : 1986. 12. 13(토) 13 : 00 – 17 : 40
장소 : 건설회관 2층 회의실(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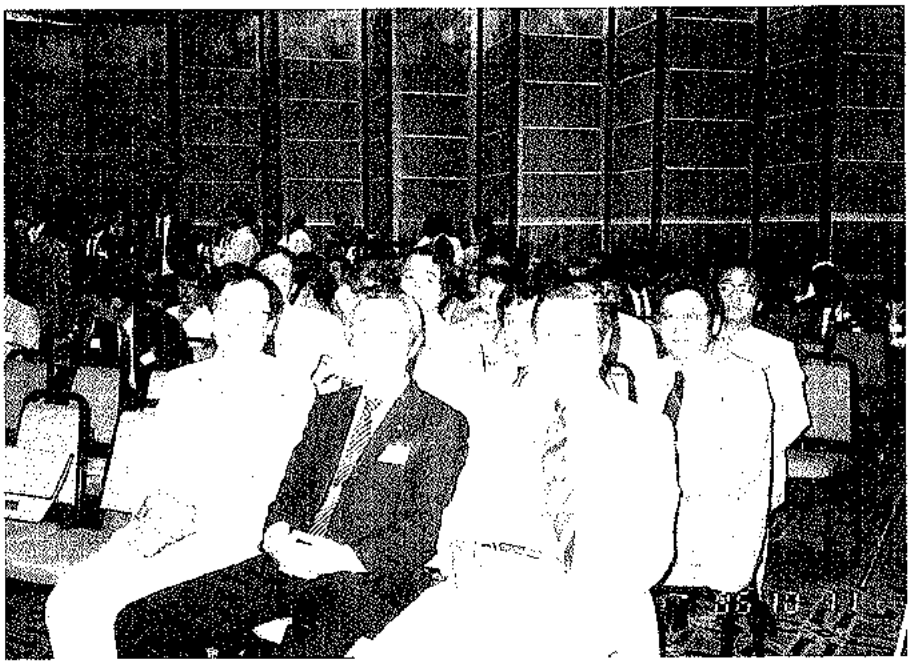
제 2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 다녀와서

REPORT

2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by Jeon, Bong Soo

전봉수 /
(주) 창조건축사사무소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제 2 회 ARCASIA 회의장에서 우리대표단 일행

처음에

협회국제위원으로 초년생인 필자가 ARCASIA에 대해 낯설기는 다른 회원과 다를 것이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풀에서 개최되는 제 2 회 건축사회의(제 1 회 아시아학생 잼보리 대회겸)에 국제위원이 참관해야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면무식이나 하려고 제 1 회 대회에 참가했던 분들의 보고서며 제 6 회 이사회 참관기 등을 찾아 읽고 금번 대회의 개최국 말레이시아 건축가협회(PAM)로 부터 보내진 문서들을 뒤적이며 ARCASIA란 정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도 아시아 국가간 친선 단체려니 하는 막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카시아 꽃이 피는 나무는 acasia로 쓰고 그것도 아카시나무라고 해야 옳다는 것도 그때 안 만큼 필자의 소양은 형편이 없었다.
출발 한달전 쯤부터 이번 회의에 대비하여 한국건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김우성회원(아키플랜)을, 회의 주제 트론자(패널리스트)에 조재원회원 ((주) 창조)이 추천되어 그분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사전준비를 하였고 그 성과도 매우 훌륭하였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려야겠다.
김 우성회원이 제작한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건축"이란 주제의 Slide를 이용한 멀티비젼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이를 상영하기 위한 프로젝터(3대), 녹음기,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콘소올 및 장비 설치대 등이 개최지에서 구할 수 없다 하여 서울에서 전장비를 운반하였다. 김포공항에서 세관원과의 실갱이가 있었고 말레이시아 세관에서도 미화 200불의 공탁금을 내고야 통관이 되었다.
현지 도착 즉시 한국대사관에 대표단의 도착 목적 및 체재기간 등을 전화로 알렸다. 체재기간중 단 한차례의 확인도 하지 않은 우리대사관과 자기네 건축가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대회기간중 회의장 주변을 맴돈 북괴 대사관과는 대조가 되었다.
1986년 10월 8 일 부터 1986년 10월14일 까지의 일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 7 차 이사회(1986. 10. 9~10)에서

투숙한 샹그릴라 호텔의 지하 1 층. 케다룸 회의장. 50여평의 회의장 중앙에 32개의 대표단 좌석이 □자 모양으로 배열되었고 대형녹음시설과 칠판이 걸려있고 몇개의 화분이 실내 분위기를 차분하게 하였다. 공식대표 (우리는 오웅석 전회장과 송기줄 위원장) 이외는 대표단 의자 뒷덕에 배열된 좌석에서 회의의 진행을 지켜 보았다. 대표단과의 귓속말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협회에서 준비한 각종 홍보물(협회소개 팜플렛,

건축사지, 88올림픽 안내서, 연간 실적보고서, 윤리규약, 건축사협회 보수기준, 호돌이 뱃지, 기념주화, 협회 뱃지 등)을 회원국에 전달하는 일, 주최자측과의 잡무연락과 MARA 공과대학(ITM)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잼보리 대회와의 연락 등을 맡았다.
참관인은 14~15명이었다. 우리가 (김지덕 위원및 필자) 2명 (패널리스트인 조재원 회원, 프레젠테이터인 김우성 회원과 교육분과 위원장인 이영일 이사를 빼고), 중공 3명, 대만 2명, 홍콩 2명, 파키스탄 2 명 및 PAM 3~5명 등이었다.
이사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CAA 아시아지역 부회장의 축사를 필두로,
- 6차이사회 의결사항 확인
- 예산집행결과 심의
- 회원국의 대표작품집 발간
- 아시아지역 설계사무소 총람의 발간
- 각국의 연간 업무보고
- 중공과 대만의 가입 승인
- 새 회장 선출
- 차기 이사회 및 총회개최지 결정

등이었는데 회의 이틀간 모두 아침부터 자정이 임박해서야 끝을 낼만큼 열심들이었다. 토의 결과 소개보다 느낀 점 두 가지만 정리하겠다.
하나는, 방글라데시. 인구 1억에 등록건축사 145명, 협회 연간예산이 $300~$450인 초미니급. ARCASIA 회원국은 매년 $500의 회비를 내는데 그 나라의 형편을 감안하여 $200로 감액해 주어 왔으나 그도 벅차니 $100만 내도록 선처를 비는 방글라데시 대표의 호소에 정관상 근거를 명백히 하자는 극성파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돕자는 분위기에 만장일치로 승인.
또 하나, 중공과 대만의 동시 가입. 회의 초기엔 서로 나란히 앉은 대표자끼리 얼굴도 대하기를 꺼려하는 듯하더니 시간이 경과하자 이번엔 끼리끼리(?) 모이는 중국인의 풍모를 보였다.
사전 막후조절을 해서인지 별탈 없이 가입이 승인되었다. 다만 두 대표단은 China Architect 라는 이름을 공용하되 소속국은 표시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덧붙여 구분한다. 또 이사회나 총회를 주최하지 않고 회장단에 대표자를 내보내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회의가 끝이난 후 현지 중공대사관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후문이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았다.

2차총회 (1986.10.11~13)에서 (ACA·2, Second Asian Congress of Archtect)

같은 호텔 지하2층. 그랜드 볼룸. 500여석의 이동좌석과 단상의 9개 좌석. 단상 후면 벽에는 회의 사실과 주제가 써 붙여져 있고 양측은 스크린을 겸한 백색패널.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회의장 입구에 현지의 남녀민속무용수들이 두 줄로 도열하여 북을 치고 꽃잎을 뿌리며 도열 사이로 입장하는 회원들을 환영하였다.
요란스런 축사의 연속 끝에 금번 회의의 주제인 "아시아지역에서의 설계용역의 전략"과 "아시아지역의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연속적인 토론에 들어갔다.
7편의 논문 발표와 각논문마다 2명씩의 토론자(패널리스트, 조재원 회원이 14명의 토론자 일원)들의 의견발표가 있었고 객석에서의 질문도 만만치 않았다.
건축설계 분야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미국에서 비교적 성공한 유진·코온 (Eugene Kohn)씨의 자랑섞인 경험담과 일본설계주식회사 사장이자 공학박사인 이께다씨의 가스의가세키 건물의 설계경험을 듣고난 방글라데시의 세이커씨는 "우리는 마아케팅을 해야 할 마아케트도 없다"고 하여 장내가 숙연했다.
이 회의에는 학생잼보리 대회가 끝이 나서 우리대학생 2명도 참석했고 협회 사무처장도 참여 회의외적인 사항도 살폈다. 그 다음날도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설계 방향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되었다. 며칠전 도하신문의 해외 토픽에 보도된 로보트 건물의 설계자인 태국의 건축가인 슈메트 줌사이 (Sumet Jumsai)씨는 기고만장했으나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어떤 상관이 되느냐는 객석의 한 학생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없었다. 일본 동경에 있는 아뜨리에 조오(Atelier Zo)라는 설계사무소의 일본인 남녀 건축가는 준비한 프로그램을 서툰 영어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번갈아서 설명하여 호감을 샀다. 그들이 중요하는 3가지는 「냉난방시설」, 「격식갖춘 양복」과 「아지노모토 조미료」라고 청중을 웃겼다. 그 다음엔 각국이 준비한 자국의 건축현황 프레젠테이션. 11개국은 제한된 25분 이내에 설명하였는데 제한시간을 넘겨 사회자의 정지신호에 쫓겨 내려온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비하였는데 다른 회원국들은 Slide Show로 평면적으로 강의식 진행을 하여 다소 지루한 점도 있었다.
당초 우리의 차례는 6번째였는데 주최측이 우리가 준비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다른 회원국이 준비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하여 전체적인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맨 끝으로 순서를 재조정하였다.
그 전날 멀티비젼(multi vision)을 상영할 화면이 작으므로 교체해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협조에 소극적이었다. 호텔내를 여기저기 찾아 다닌 끝에 스크린으로 적합한 휘장막을 찾아 내어 밤늦게까지 설치작업을 하여 우리 차례에 대비하는 우리의 극성에 주최측은 어이없어 했으나 그 스크린으로 다른 회원국도 설명 를 가질 수 있었다.
맨 마지막 차례.
어둠 속에서 장비의 조립연결에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 몇차례 예행연습까지 다시하였다. 붉은 갈색의 지구와 푸른 바탕의 한반도가 우아한 아악의 선율과 함께 화면에 나타나자 금방 탄성이 일었다. 내용의 진지함에는 조용해지는 청중. 아무튼 성공적인 휘나레라는 인사를 받기에 바빴다. 애쓴 보람이 있었다. 차기 회의 개최국이 된 한국의 오회장의 인사를 끝으로 총회는 막을 내렸다.
총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각회원국 협회는 건축용역의 마케팅에 대한 신방식을 보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둘째, 국가차원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제3의 수준에 있는 전문용역의 마케팅과 개업건축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세째, 건축설계나 건설용역의

마케팅에 있어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관찰하여 지역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네째, 전문분야의 규정을 검토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연구소는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가의 역할이 정도 이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건축가의 자국내 활동을 허용할 경우는 적절한 행정력과 법적인 기구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그 지역의 산업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여섯째, 국가차원의 연구소는 소속 국가의 정부가 그 지역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인정하고 활용토록 강조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미 아시아지역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턴·키(Turn Key) 방식 프로젝트나 조직화하는 전문기술과 같은 것은 서로간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아시아국가끼리 공유하여야 한다.
였다.

회의진행을 위한 공용어에 대하여

금번의 각종 회의는 당연히 영어만으로 진행되었다. 당연하다 함은 ARCASIA 회원국 12개국중 9개국이 영어가 일상 공용어였으며 7개국은 아예 영국의 영향적인 영연방(Commonwealth) 국가였으니 말이다(표 1 참조). 따라서 동시통역이니 하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할 여지도 없었다.
이사회에서도 한국, 중공과 대만의 대표들은 언어문제로 자연히 발언의 기회가 적어 듣는 편에 서는 소극적인 자세였음을 보았다.
총회시에도 주제 논문이나 패널리스트의 의견서가 사전 배포되지 않아서 필자의 경우는 생으로 마구 쏟아지는 영어의 홍수 속에 주제 토론에 참가하여 질문도 하는 여유는 커녕 내용파악에도 쩔쩔매는 역부족을 실감하였다.
국제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노출되었다.
동남아지역의 영어가 각나라 고유의 억양과 강세로 옥스포드영어나 아메리칸 영어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가 서로 다른 그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았다. 피부색깔, 얼굴 모양만이 아시아인이지 영어의 구사에는 영국인이요 미국인이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총회의 두번째 발표자인 일본설계주식회사 대표이고 공학박사인 이께다다께꾸니씨의 경우, 주제 발표는 준비한 원고를 읽었으므로 무사(?) 했으나 패널리스트와 객석에서의 질문에 두 손을 들고 수행한 직원의 도움을 청했다. 질문과 답변이 통역에 의하였으므로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내용 자체가 다소 김이 빠지게 되었다. 청중들은 단상에서 당황해하는 두 일본인을 보고 웃게 되어 분위기도 어색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는 착잡했다. 동남아국가들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음은 그들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덕분(?)인데, 하고 내심 자위도 하였으나 실력이 부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공의 패널리스트인 대학교수 한 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생활을 해서인지 어느 미국인보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서 더욱 오그라 드는 기분이 되었다. 학생잼보리대회에 참석한 우리학생의 경우는 더 심했다고 들었다. 의사소통이 워낙 원활치 않자 대학측은 한국대사관에 탐문하여 통역을 주선하였는데 우리말과 말레이어를 하는 분이어서 말레이어와 영어를 하는 학생을 또 통역으로 채용하여 2중 통역을 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했다.
차기회의를 주최하기로 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부분이다. 누구탓도 아니리라. 상황에 그러하니 대책을 이에 맞게 세워야 하겠다.

좌측부터 필자, 김우성회원 · 송기덕위원장 · 김지덕부위원장이 보인다.

필자가 이해한 ARCASIA

ARCASIA는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 (영연방국가 아시아지역 건축가 대회) 회의시 회원국 6개국 (방글라데시,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이 주동이 되어 발족되었고 1970년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이 가세했고, 1972년에 필리핀과 태국이 가입했다. 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영어문화권의 동남아 국가들이었다.
설립 목적은 7 가지 였는데 그 내용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회의에 참석하면서 ARCASIA에 관해 나름대로 느낀 것을 정리해 보면,
홍콩과 싱가폴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회원국의 국민소득이 $2,000을 크게 밑도는 빈곤국이 대부분이다.(표 1 참조) 대부분이 영국의 식민지를 벗어난지가 반백년이 안되고 지금이라도 미국의 한개주로 가입하자는 정당이 있는 나라도 있다.
착취당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어서 일까. 자본침략국에 대한 반감은 대단히 거셌다. 특히 신흥 자본국인 일본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한 듯했다. 총회시 일본인 이께다씨의 발표시 서투른 영어에 대한 관중의 빈정거리는 태도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는 듯 했다. 일본의 가입이 자의건 타의건

ARCASIA 교육위원회 회의광경. 이영일위원장 · 김지덕회원이 보인다.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음이 그것이 아닌가 한다.
ARCASIA 회의는 CAA 이사회나 UIA 제4지역회의와 함께 열린다. 회원국들은 몇차례 회의를 동시에 참가하는 셈이다. 같은 종류의 모임이 있는데 구태여 아시아권만이 중심으로 ARCASIA를 창설하였음은 영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입김이 없는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싶어 했음이라고 짐작되었다.
자국내의 건설과 설계시장이 침식당해도 참을 수 있으나 자국의 건축가가 참여조차 못하는데 대한 분노는 상상보다 커 보였다. 우리의 경우 해외 건설이 새로운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동남아지역을 무시할 수 없다. 그들과의 교류없이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건축계가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창구는 UIA와 ARCASIA 다. 그나마 UIA 경우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견해가 많다. 국제교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1985년에야 가입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아주 늦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니까.

끝으로

여행자가 가졌던 동남아지역 여행에 건 다소 비밀스런 기대는 호텔 객실과 회의장을 오간 스케줄로 무산되었다. 8박9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결과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첫째, 말이 같은 아시아지역내 국가들이지 서로 너무 다른데 놀라워 했고 또 너무 서로를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았고,
둘째, MARA 공과대학에서의 학생작품을 보고 대학교수와의 이야기를 통하여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내용은 우리보다 월등한 점도 보였으며 젊은 세대의 건축가의 역량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수함을 발견하였다. 아시안게임의 획득메달수와 국가간 건축가의 능력 차이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다.
세째, 동남아지역 건축가들과의 교류 없이 그 지역의 건설시장 확대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했으며
네째, 동남아건축가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10회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여서 인지 "거친 완력"과 "역사의 깊이에 대한 경이로움"이 섞여진 미묘한 느낌이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고
다섯째, 기왕에 결정된 차기대회는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하겠구나 하는 점이었다.
말레이시아 건축가인 42세의 약관(?) 신임 ARCASIA 회장인 Dr. Keneth Yeang은 각 회원국에 공개질문서를 보냈다.
1. 귀협회는 ARCARI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2. ARCASIA가 귀협회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3. 귀협회는 ARCASIA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3가지 질문이었다. 답신을 곧 보내야 한다. 무엇이라고 답을 할 것인가. 회원들의 의사가 궁금하다.

(표 1) ARCASIA 회원국 현황

국 명	국토면적 (한국=1.0)	인구(1980) (한국=1.0)	국민소득 $1984	공용어	영연방 관련여부	참석한 건축가 단체, 단체장
한 국	1.0	1.0	2,110	한국어	×	KIRA W.S.Oh
방글라데시	1.6	2.3	70	영어 벤갈어	○	IAB
홍 콩	0.01	0.13	6,330	영어	○	HKIA E.Wong
인 도	36.3	18.0	260	영어 힌디어	○	IIA R.Khanatta
인도네시아	22.5	3.9	540	영어 바하사어	×	IAI A.Moersid
말레이시아	3.7	0.4	1,980	영어 말레이어	○	PAM H.Hajeedar
파키스탄	9.8	2.2	380	영어 울투어	○	IAP
필리핀	1.4	3.0	660	영어	×	UAP C.Canchela
싱가폴	0.06	0.08	7,260	영어 중국어	○	SIA Y.S.Suan
스리랑카	0.7	0.4	360	영어 신화자어	○	S.LIA P.fernando
태 국	5.7	1.2	860	타이어	×	ASA S.Attakor
중국, 북경	105.5	25.1	310	중국어	×	중국건축학회 N.Dai
중국, 대북	0.4	0.4		중국어	×	중화민국 건축사회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심사를 마치고

심 사 평

주거부문의 작품출품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김지태
'86회원건축설계작품심사위원장

올해도 우리회원들의 주옥같은 작품을 놓고 입선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고 나아가 시대적 건축사조를 창출하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출품 회원들께 경의가 표해진다.
출품된 작품수는 총46작품이며 주거 부문이 7작품, 비주거 부문이 39작품 이고 '85년도에 비하여 출품수는 줄어들었으나 실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수준작 이상으로 평가되는 것들이 많았다.
건축물은 구조, 기능, 미를 갖추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형물을 창출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출품된 작품을 통해서 본인은 시대적인 감상과 변천하는 시공 속에 공간구성의 연출솜씨와 표현의 기법이 괄목할만큼 발전향상되었고 또한 연구하고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0, 70, 80년대 후반에 접어든 오늘날 작품에서 받는 느낌은 성장하는 소년보듯 격세지감이 들었다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심사위원들의 수고끝에 탄생된 입선작품 중에서 대상(大賞) 수상 작품과 우수상(優秀賞)수상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이 분분했는데 이는 단적으로 각 작품들이 그 우열을 가리기에 힘들 정도의 수작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회원들의 작품은 완성된 건축의 실재(実在)를 놓고 평가하느니만치 작품내용과 건축적인 요소는 물론이려니와 그 시대의 건축사조(建築思潮)및 시사적인 성격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경로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최우수작 〈성심여대 학생회관〉은 조형적인 외관구성과 무리없고 다양한 내부공간 처리로 이목을 끌었고 우수작인 〈반포 로우하우스〉는 앞으로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무엇인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건축적인 요소와 독특한 주택외관 구성처리는 상당한 연구의 결과라고 보아진다.
입선 이외의 여러 작품들도 훌륭한 작품인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제한된 입상폭(入賞幅)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 것뿐이다.
회원들은 협회 발전을 위한 작품전에 출품하는데 그 뜻을 두고있는 이상 이에 개의치 않으리라고 믿는다.
금번 심사를 끝내면서 우리회원들의 작품도 선진외국의 어떤 건축작품들과 견주어 볼 때 다소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손색없는 수준급 작품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흐뭇하기 이를데 없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작품성에 문제가 있어 그러한지 일반서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주거부문의 작품이 예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주거부문의 작품 출품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협회회원작품전을 빛나게 해준 출품한 회원들께 다시금 사의를 표한다.

지방작품의 참여가 아쉬워

박상호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심사위원

대상수상 작품은 아시안게임에 일역을 한 체육관으로서 건축물의 미적, 기능적 면과 현대적 건축자재에 의한 복합적인 구성으로 종합기획된 작품으로서 건축적인 기법면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안정된 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최우수상은 교육시설로서 학생들의 집회장의 다양성과 다기능, 다용도의 복합적인 내용을 잘 조화통일시킨 건축적 평면기획 기법의 우수성과 단일건재인 적벽돌로 많은 외형의 변화에 대한 입면적 구성의 특징을 잘 살린 점이 매우 좋았다.
전체적으로 주거용도의 작품수의 부족과 대구지방을 제외한 타지방 작품의 참여가 아쉬웠다.

작품성과 시사성에 관심

이문우

본협회 설계감리분과위원장

우선 본인이 '86년도 회원작품전을 위한 심사위원회 간사로 심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에 대해 여러회원님께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려야 될 것같다.
'86년도 회원작품전은 어느덧 12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간 각시도 전국의 순회전시를 통하여 건축사의 창의성과 위업을 이 사회에 많이 알리게 되었으며 이로써 우리의 권익신장에도 이바지 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회원 작품 접수현황은 13개 시, 도중 6개 시, 도에서 각 분야별로 47개 작품만 제출되어 아쉬운 감이 많았으나 제출되지 않은 작품중에도 좋은 작품이 많이 있음을 우리 협회지를 보아서도 알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많은 회원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작품 심사를 함으로써 우리 회원들이 하나의 건축물이 설계에서 시공을 통하여 완성되기 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작품에의 접근이 조심스러웠으며 그러한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면서 건축사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려고 노력하였다.
심사에는 우열을 가려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더욱 어려운 점은 동료건축사의 작품을 놓고 어떤 상을 주어야 할지를 정하는 일이었다. 특히 최종까지 경합을 벌인 2점의 작품 중에서 어느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이르러서는 많은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투표에 의거,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심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대상 수상작품 선정의 경우 작품성과 시사성 등등에 심사위원들의 관심이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수상하지 못한 회원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물은 그 시대의 거울이라는 것을 금번 회원작품 심사를 통하여 더욱 절감하게 되었으며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회는 번영하게 되고 우리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도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다.

수 상 소 감

대상(건설부장관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

변 용

(주)원도시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모든 집들은 각각 지은자와 설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지어야 하는 필요도 있어야 집을 짓게되고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집니다.
제공자(건축주)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협동하여 완성시켜 놓읍니다. 물론 집은 외형적인 완성보다는 생활이 풍족히 담겨 있을 즈음에야 집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바로 이때가 평가의 시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들은 그 시대의 여건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이 평가되는 것은 유독 누구 한사람의 역할로 인식되는것은 아니였으면 합니다. 같이 평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 이용자는 결과만으로만 평가하고, 전문가들은 여러 안목으로 평가할 수 있읍니다.
설계자는 이 두 개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상을 준다는 것과 탄다는 것은 조심스럽읍니다. 좀 특수하기 때문에 상을 탄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특별한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기 때문에 상을 탄다는 것 보다는 가장 보편타당 하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통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통의 것들을 좋아하시기에 세상은 보통의 것들로 채워져 있읍니다.
이 성대 체육관도 시간이 흘러 우리 건축의 가장 보통의 수준의 집으로 남아 평가 되어지면 좋겠읍니다. 그때에도 평가되어져야만 상이 정말로 인정될 것입니다.
상을 타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우수상

성심여대 소피바라관

강석원

건축사사무소 그룹기

내가 만나는 건축주들은 첫마디가 「가장 경제적이고, 멋있으며, 튼튼한 건물」을 설계해달라는 분이 대부분이다. 누구나 이렇게 설계해 주길 바라며 나 자신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적당히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마는데, 퍽 어려운 주문이다. 어쩌면 불가능한 주문일 수도 있고, 모순되는 주문일 수도 있다.
학생회관 하면 간단히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정의된다. 도서관과 학생회관은 대학 캠퍼스의 핵으로서 하나는 연구의 장으로서 정적인 공간이며, 하나는 휴식의 장으로서 동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건축주를 만나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다.

학생회관에 당연히 들어가는 편의시설 외에 일종의 기숙사인 퍼정의 집 — 가톨릭 계통의 대학이기 때문에 — 음악대학의 일부와 교수식당, 이 정도만 되어도 내가 갖고 있는 학생회관의 개념과 어우러져 상당히 복잡하기 마련이다.
건축주가 조직체일 경우 요구조건이 너무나 다양하여 서로 중복 모순되기 십상이고 협의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대지는 심한 경사지인데 요구조건을 많이 생략하더라도 동선 체계는 이미 상당히 복잡해져 있다. 다중인을 수용하는 건물치고 동선이 복잡하면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
나름대로 하나 둘씩 기능을 집합·분산시켜 정리해 나갔다. 어느정도 동선체계가 정리된 후에는 과연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첫째 문제였다.
대학생만을 위한 이 공간은 이들이 꿈과 낭만, 하늘같은 포부까지도 수용해야 되며, 이들에게 신선하고 디체로운,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자면 단순한 박스형의 평면적인 구성보다 입체적인 형태구성이 더욱 어필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평면은 보편적인 공간구성의 원형인 직각보다 각을 많이 사용하여 정리했다. 필요한 곳은 서슴없이 예각을 사용했으며 상하좌우의 계단은 강한 수직선을 강조하기 위해 Open 시켰다. 동선의 연결도 평면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계산된 계단을 이용해 싸로고 연결해 나갔다.
층의 구성은 3개 층으로 구성하되 모두 옥외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게 정리하여 경사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갔다.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형에 밀착시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시켜 나갔다.
결과적으로 건물은 수평·수직선이 상하게 교차하도록 되었고 내가 바라던 대로 입체적인 형태감과 퍽 다이나믹한 동적구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인 소견이다.

끝으로 심사해주신 여러분과 시상을 마련해주신 협회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우수상(회장상)

반포 로우하우스

조성룡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어릴적부터 시작하여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상을 받은 경험이 있을것이다. 공부를 잘 하여서 우등상도 받을 수 있고 결석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면 개근상도 준다. 요즈음은 모르겠지만 정근상이란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신이 나는 일이다. 그래서 「다음에 또」하거나 「다음에는 더큰」식으로 욕심도 부려보게 된다. 상이라는 것이 이렇듯 우리를 즐겁게 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한 격려를 주기도 하는 반면에 또한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여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유혹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올해로 학교를 졸업한지 20년, 내년이면 사무실을 개설한지도 벌써 만 10년이 된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사고의 정립도 제대로이지 않고, 감정에 흔들림이 지나칠 정도이며, 이렇다하고 이루어 놓은것도 없이 지금에 이른다.
하룻밤에도 수없이 만들고 부수고 깨뜨리고 하던 이, 삼십대의 시간이 이미 지나고 이제 겨우 사람이 살아야할 환경쯤, 그리고 공간쯤 제대로 고민할 시간에 다달운것 같으나 아직껏 자신이 서지 않는다.
오늘의 상이 무척 기쁘기는 하지만 자칫 더 나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솔직히 감추기가 어렵다. 그러나 격려에 다시 한번 힘 입어 나약함을 극복해야 할 의무도 함께 느끼며 그동안 힘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이미 그들의 사무소를 개설한 원래의 멤버들을 포함하여) 사무소의 스탭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
선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고마움을 표합니다.

우수상(회장상)

아시안게임 선수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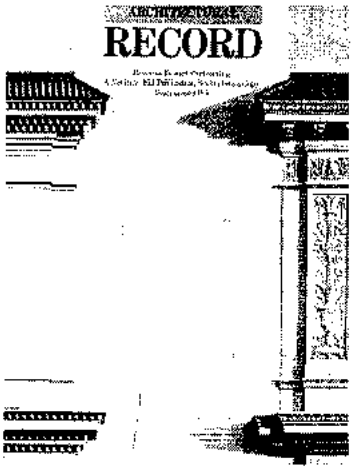
우남용
가나 건축사사무소

무한한 창작과 모방의 소산인 건축물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조형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숨쉬는 장소로써, 이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후일에야 가능하리라 믿어 왔지만, 뜻밖의 수상소식을 접하고 보니, 건축을 한다는 것이 사회실존문화 창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짧은 시간들의 연속이었던 지난 작업들은, 좁고 길다란 언덕의 땅을 접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방향의 종점은 둔덕 아래 기존 단지와 연계성을 갖는 주거공간 형성에 촛점을 맞춰, 지형과 도로의 굴곡에 따라 각개 평면의 정리에서 부터 외부공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독주거 형태를 하나의 공동주거 환경군으로 연결시켜, 자기 거주영역 확대라는 인식을 부여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일을 보낸 뒤의 일이다.
일반적인 공동주택형성 개념인 공동에서 개체공간 확보라는 사고로 부터, 개체공간의 연결이 곧 공동주택이라는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의 또 다른 산물인 "반포 로-우 하우스"는 기존 "강남원 테라스 하우스"와 어느정도 주변환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소망을 그린 것이다.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한 것같은 순간들을 보낸 지금, 이들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성원을 보내준 건축주, 시공자, 항시 격려를 아끼지 아니한 주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항시 사회의 각 공간을 마음을 비우고 담담히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건축인으로 남기를 바란다.

OPEN

건축 전문 서적센타

- 국내 · 외 서적 총망라!!
- 곳 : 대한 건축사 협회회관 2층
- 때 : 1986. 9



ARCHITECTUAL RECORD

- All major building Types
- House presentations
- Structural design technigues and building technology
- New products and materials
- Building news, construction costs
- 구독료 : (14권 / 년 = 110,000 원)
- **전화문의 : 586-4494-5**

특집
SPECIAL SECTION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전 수상작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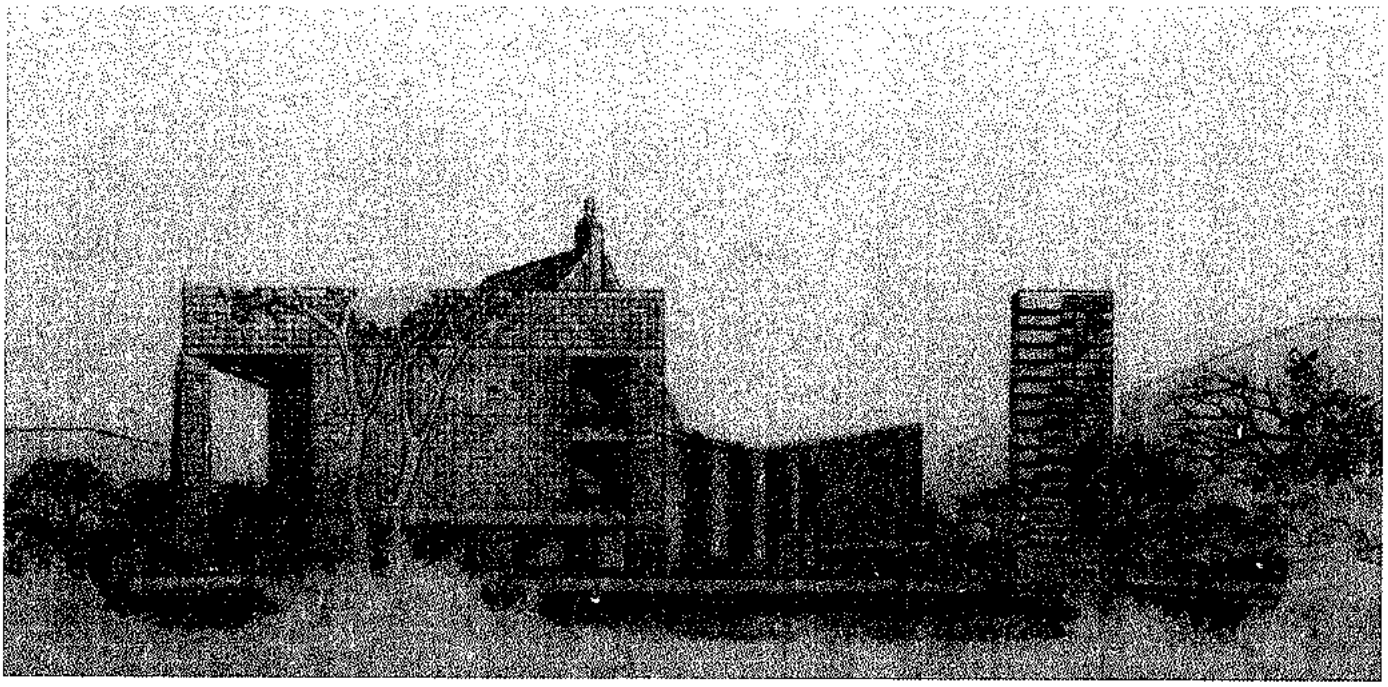
신인작품 금 상 : 창작세계(PLAZA OF ART)
은 상 : 충 혼(국립묘지 관련시설)
동 상 : DREAM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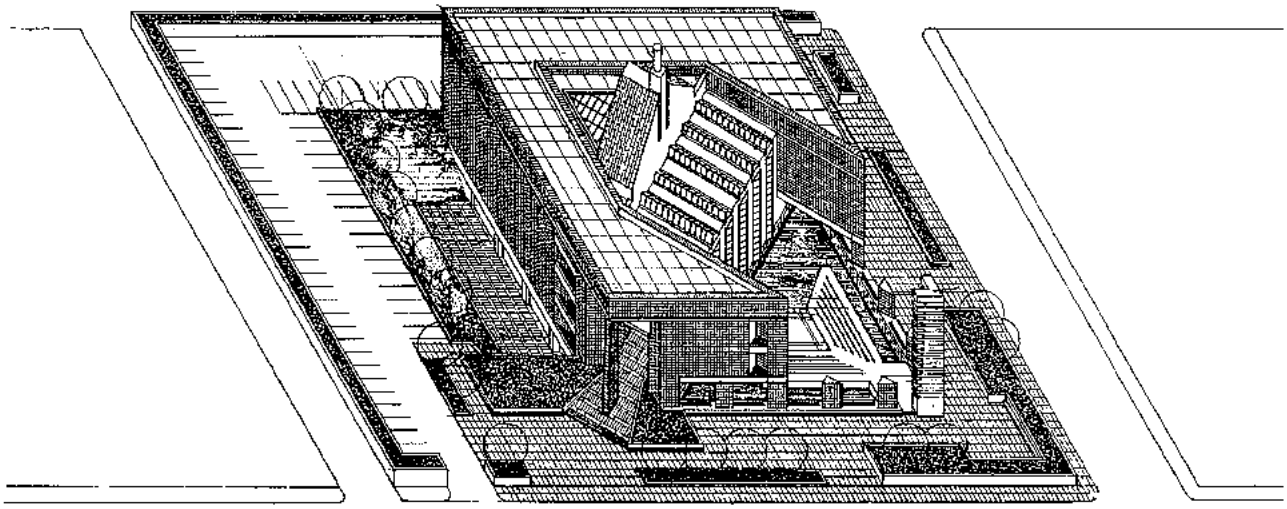
학생작품 금 상 : ART COMPLEX
은 상 : 새로운 삶의 형상
동 상 : 고분군 환경계획안

신인부문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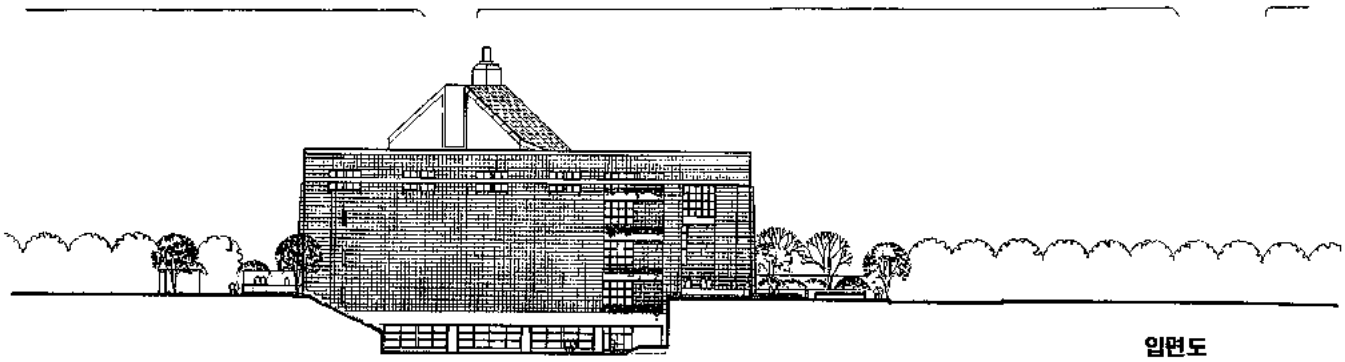
PLAZA OF ART

이명규 / 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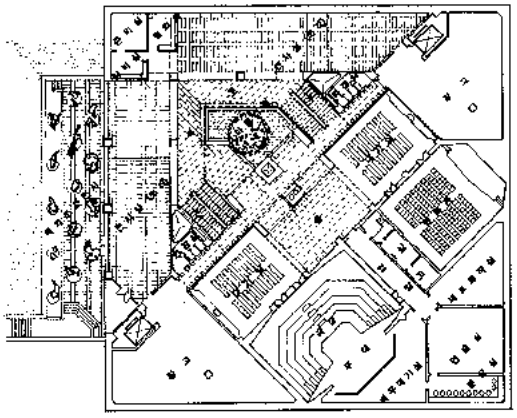
입면도

계획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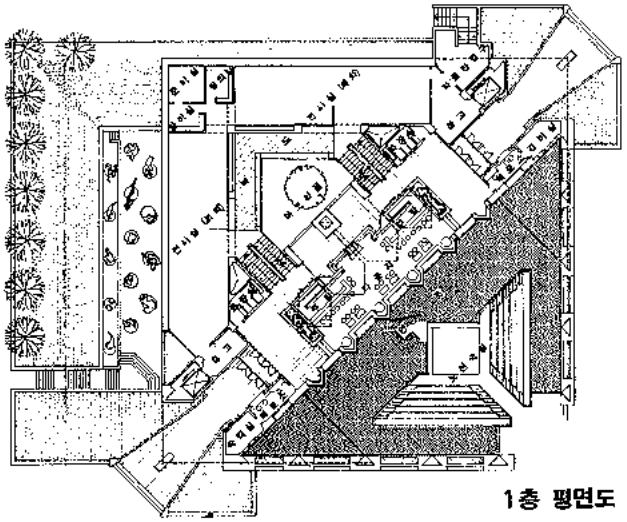
현대의 복잡한 도시생활은 문화적 활동의 필요성을 어느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의 생활공간과 매우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화적 활동이 한 곳에서 공간을 이루어 표출된다면 쾌적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우리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PLAZA OF ART인 창작세계를 테마로 삼았다.

계획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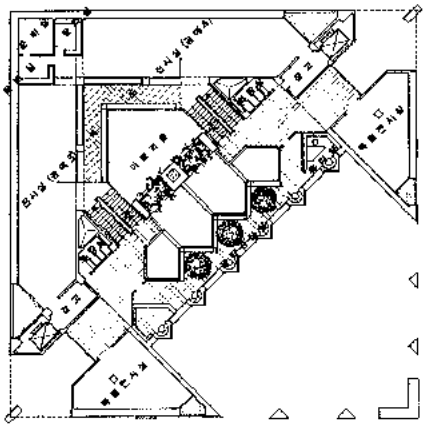
- 대학로 진입의 GATE로서 IMAGE표현
- 쾌적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문화공간이 되도록 계획
- 도시 LAND MARK로서 시민과의 친근성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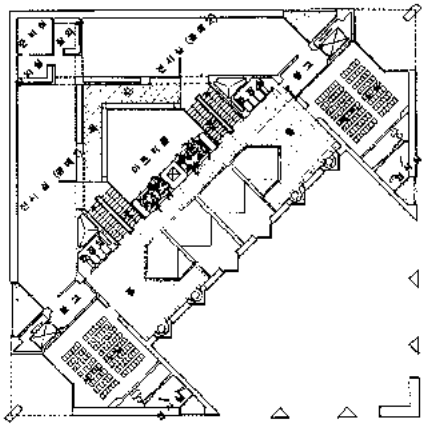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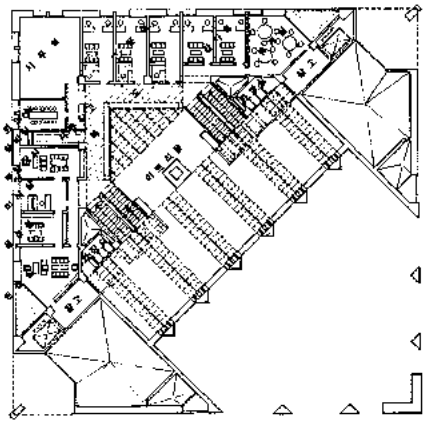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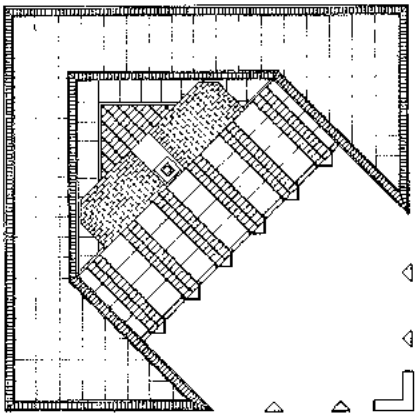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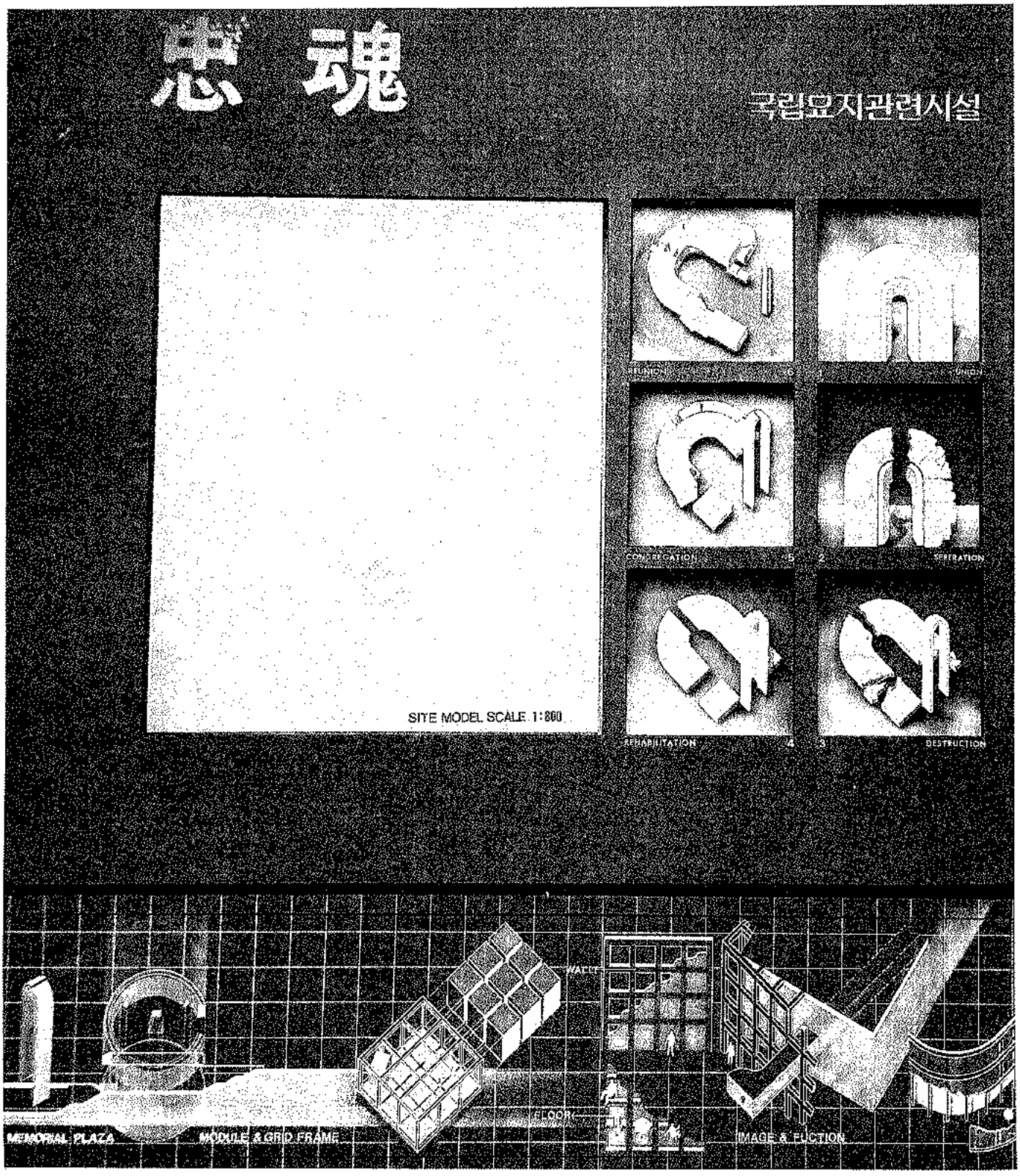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신인부문 "은상"

충혼 (국립묘지 관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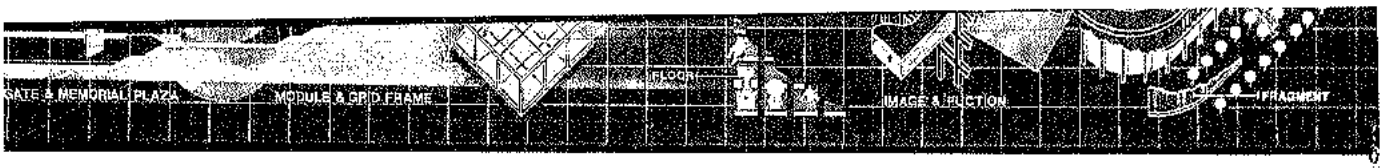
강홍구·강창구·서광수 / 홍익대 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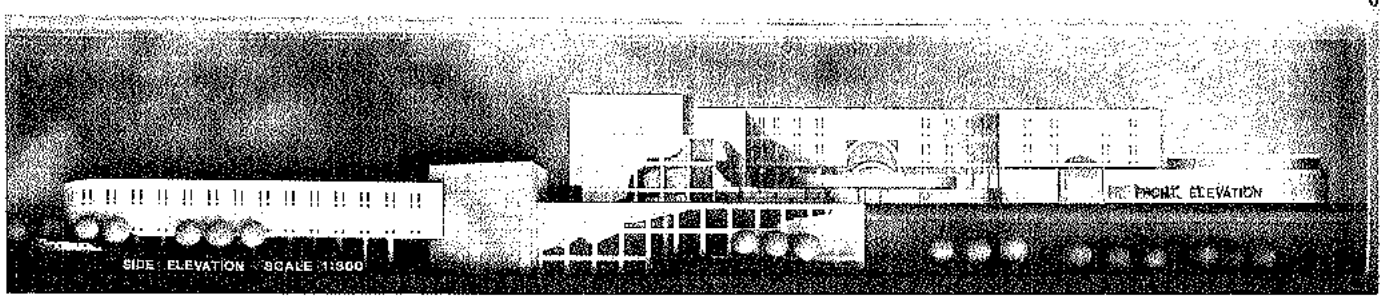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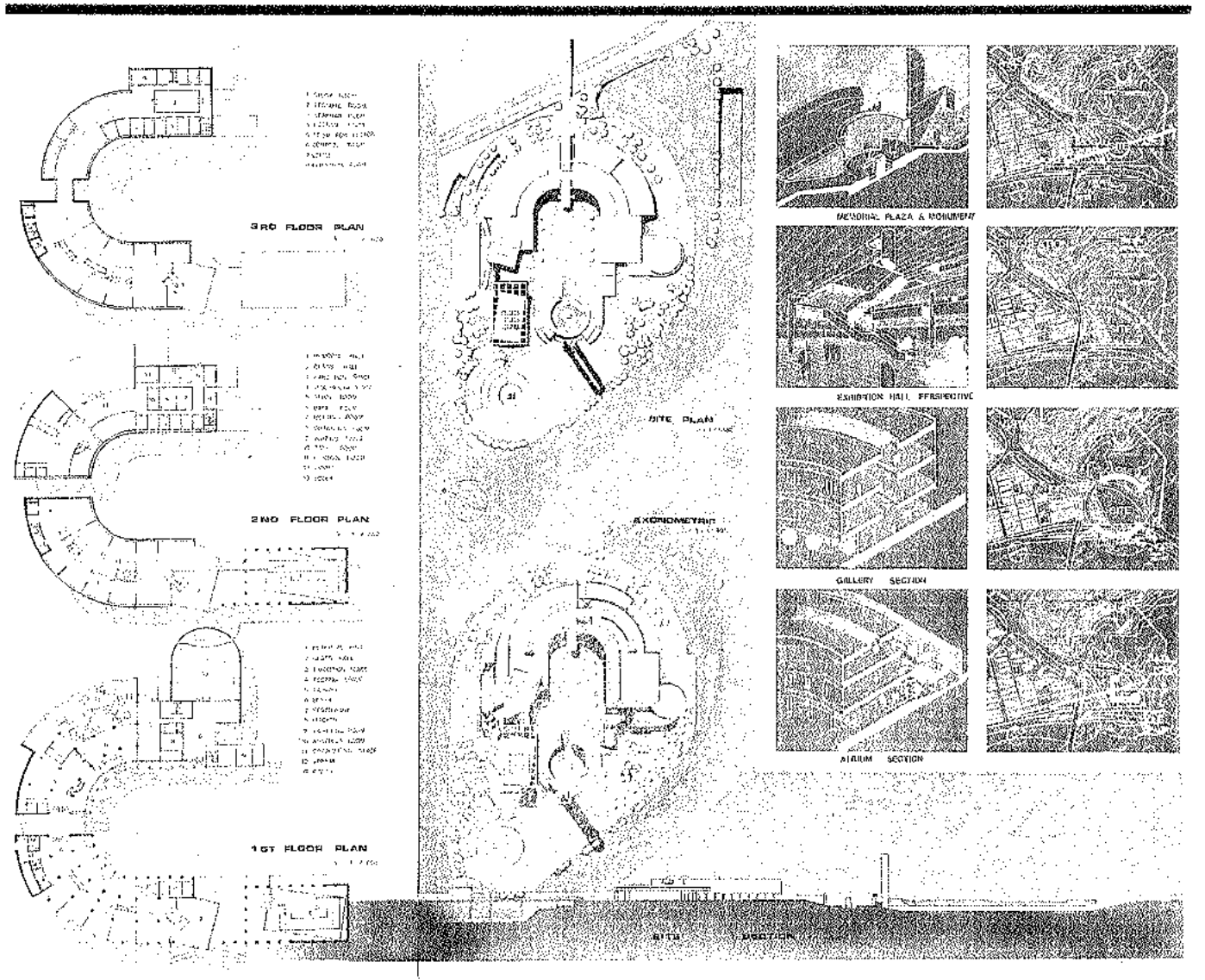
설계개요

6.25동란이 발발한지 30여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에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 보며 조국의 새로운 출발의 디딤돌이 될 역사적인 교육의 장이 없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100여년의 세월도 아닌 30여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대 안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해석과 그것을 발판으로 한 조국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기억과 희망의 장소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몇몇의 산재된 소규모의 기념관을 탈피하여, 국립묘지라는 역사의 장에 인접하여 새로운 우리의 역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을 계획하게된 동기이다.







신인부문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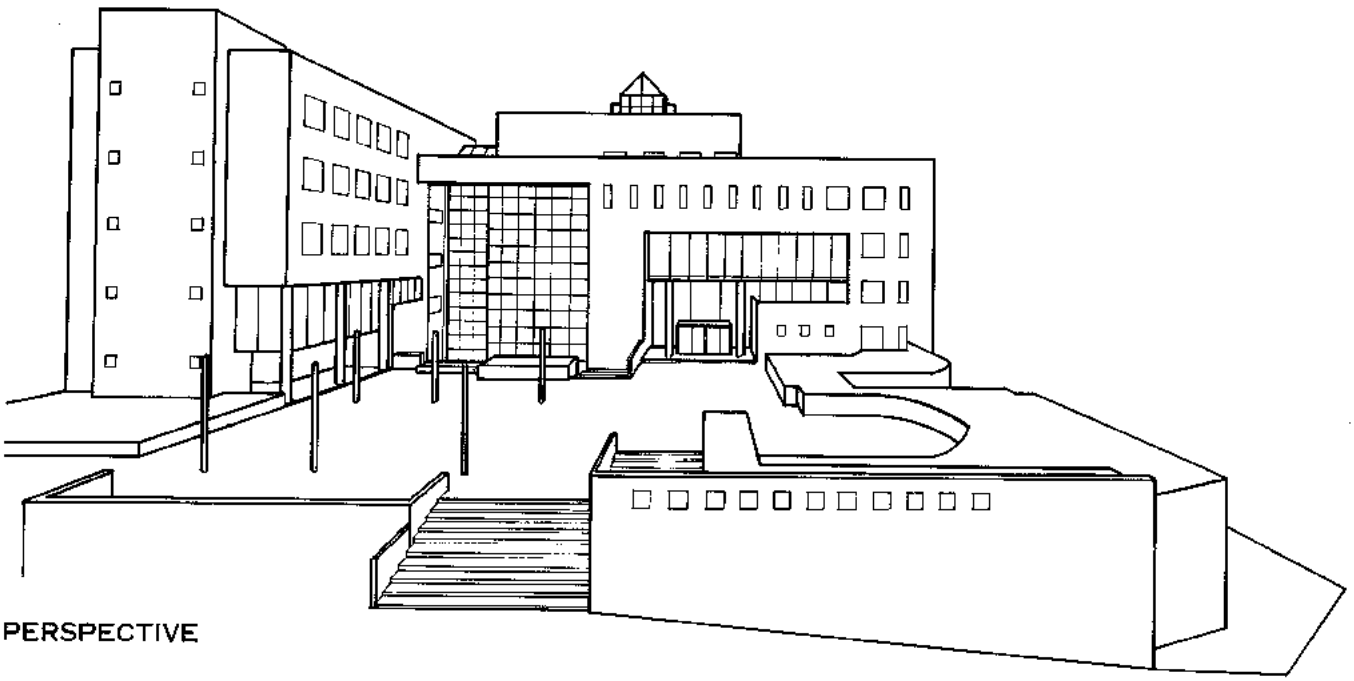
DREAM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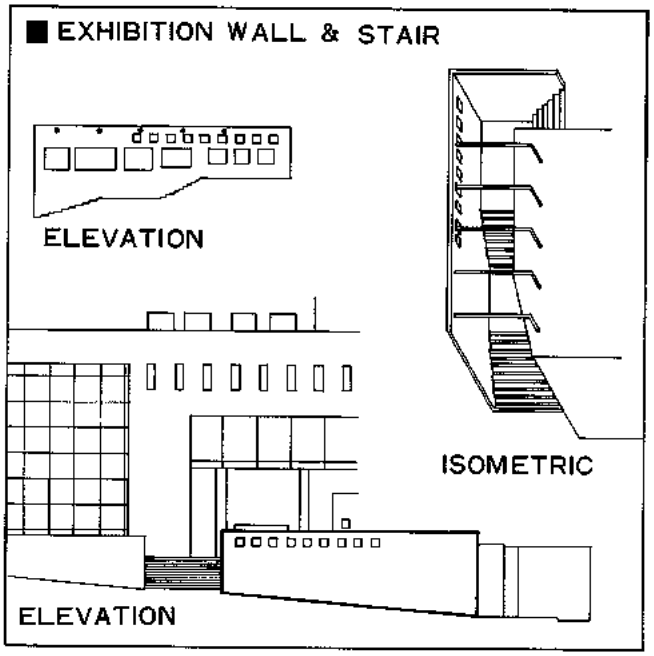
김희진·김경원 / 고려대학교 대학원졸업·고려대학교 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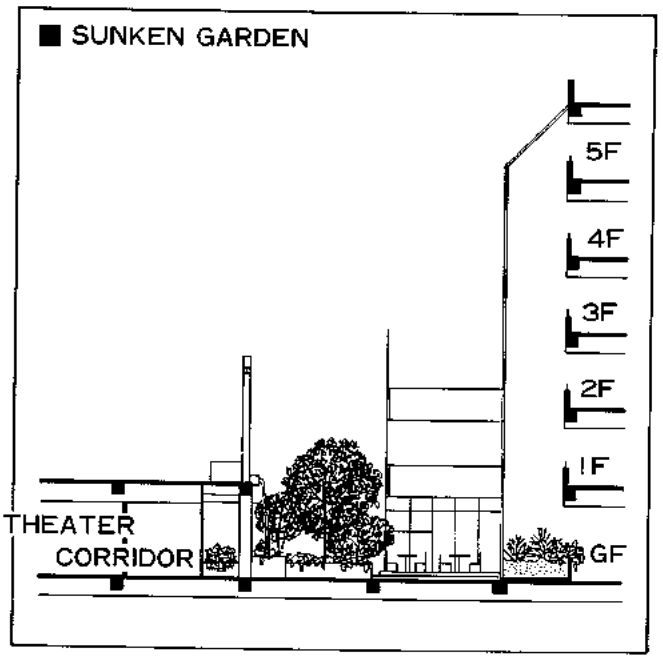
설계개요

건축가가 자신의 생활공간이나 작업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일은 작가 자신에게 큰 의미를 주는 작업이며 또 작가의 작품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본 계획은 건축가가 자신의 작업공간을 계획하는데, 토탈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







인 작업공간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사회에 대한 기여로서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시킨 건물을 디자인 한 것이다.

1. 현상

○주거지를 배경으로 건립되는 대다수의 건축물들은 주변상황에 대해 고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주거지에 있어서 그 지역의 지역공동체(community) 활동을 위한 공간이 결여되어 있다.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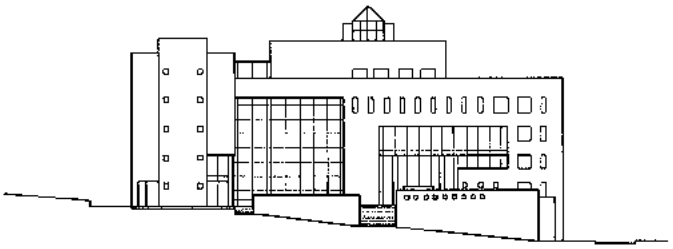
○가능간의 상충

○주거환경의 악화

○지역공동체 형성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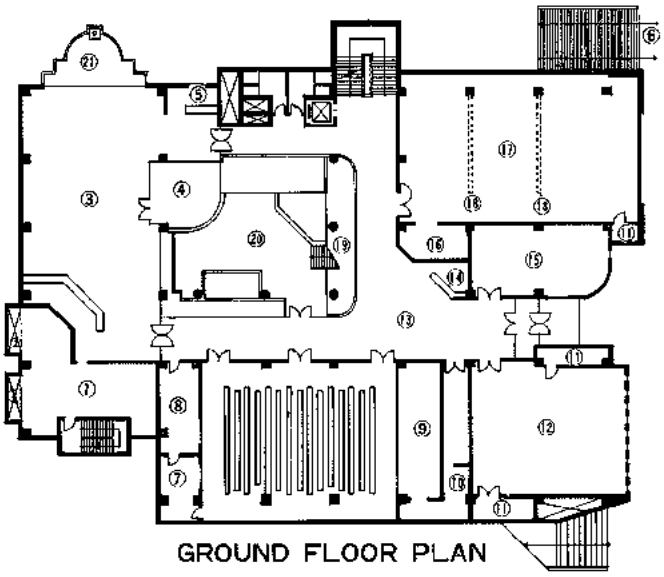
3. 제안

○주거지를 배경으로 하는 건축물들은 상업적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을 띄어야 할 것이며, 가능한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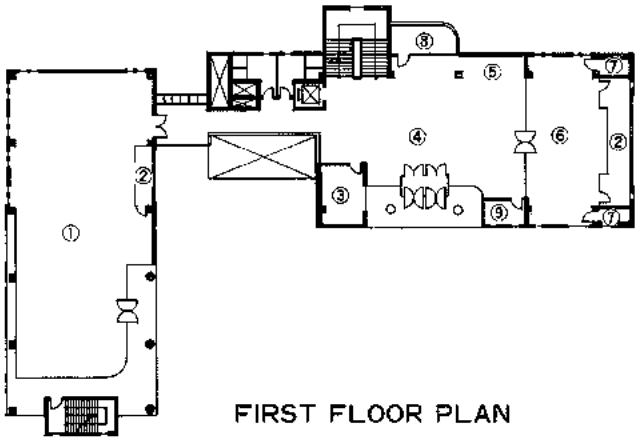
WEST ELEVATION

SOUTH ELEVATION



GROUND FLOOR PLAN

① KITCHEN
② DRY AREA
③ CAFE
④ CAFE' TERRACE
⑤ COUNTER
⑥ RAMP
⑦ ACOUSTIC & LIHTING ROOM
⑧ PROJECT ROOM
⑨ STAGE
⑩ ANTER ROOM
⑪ STORAGE
⑫ MULTI PURPOSE ROOM
⑬ HALL
⑭ INFORMATION
⑮ MEETING ROOM
⑯ PREPARATORY
⑰ GALLERY
⑱ MOVABLE WALL
⑲ LOUNGE
⑳ SUNKEN GARDEN
㉑ FOUNTAIN



FIRST FLOOR PLAN

① FURNITURE SHOW ROOM
② BALCONY
③ JANITOR'S ROOM
④ HALL
⑤ LOUNGE
⑥ CRAFT SHOW ROOM
⑦ STORAGE
⑧ TERRACE
⑨ SERVIC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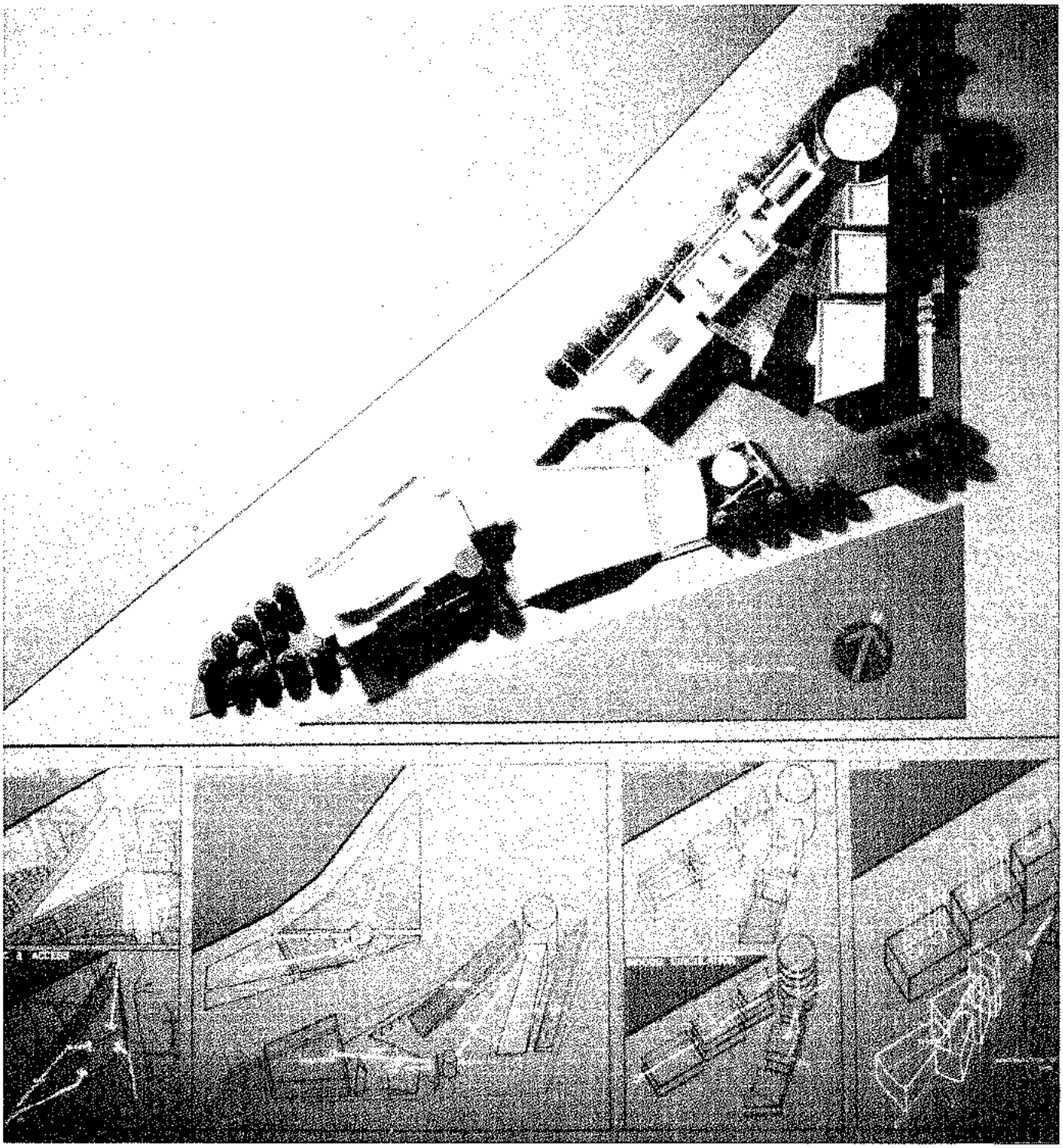
학생부문 "금상"

ART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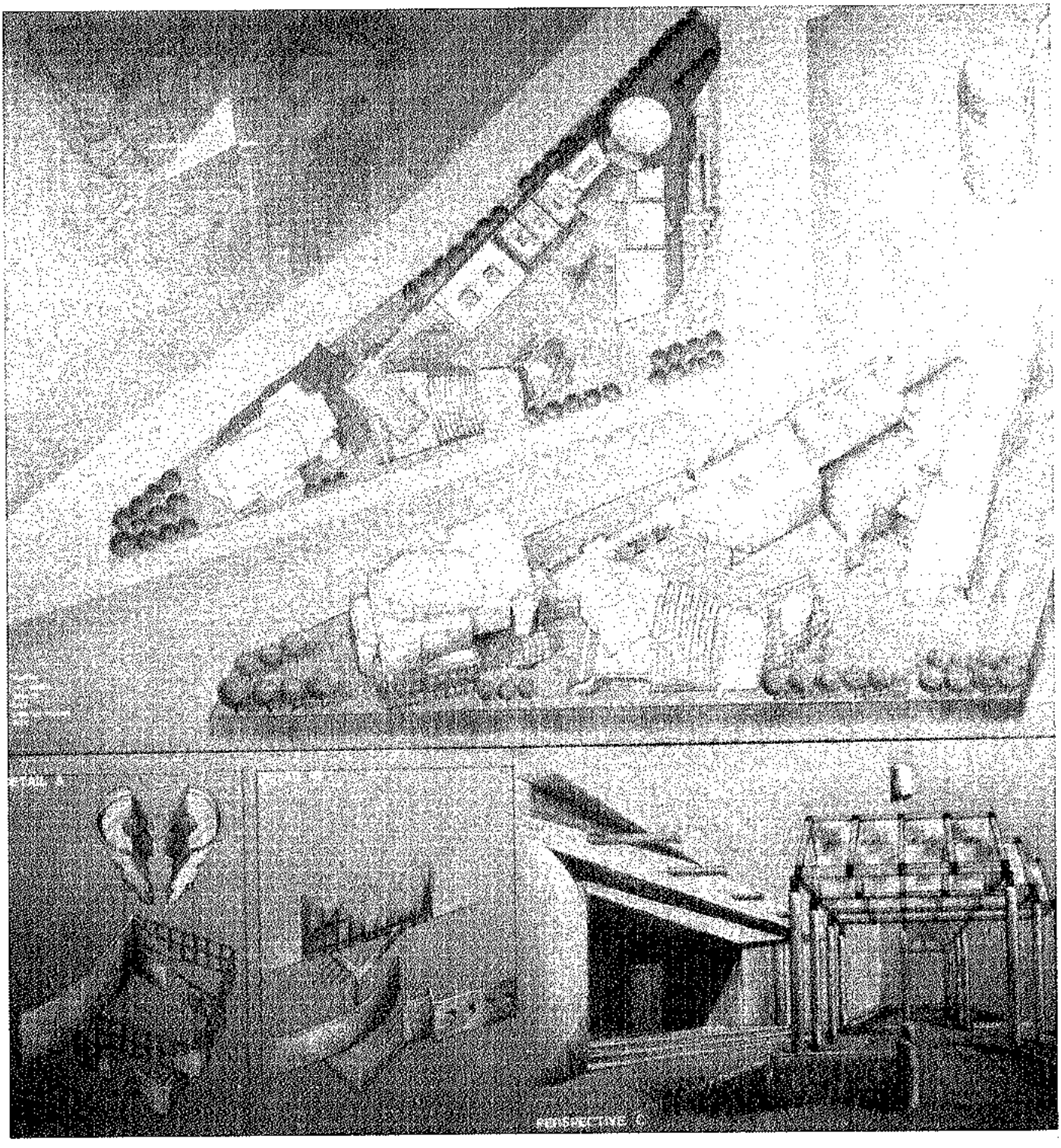
윤희진·김재학·곽영구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계획개요

도시의 건물설계에서는 항상 그 도시의 일반적인 맥락을 찾는 일과 주변 환경의 특수성에서 오는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결부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설계안은 명륜동에 위치함으로써, 창경궁 쪽에서 오는 역사적 이미지와 대학로의 현대 문화적 이미지라는 주변의 특수성을 혜화동



로타리라는 도시의 일반적 성격이 강한 절점(Node)을 중심으로한 상징적 이미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즉 이러한 현대도시의 복합적 이미지를 다양한 예술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Complex Building에 대응시킴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중앙에 생긴 광장은 획일적이고 통일된 공간구성보다는 복합적이고 암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면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대지 형상이 길고 예리한 예각을 지님으로써 생기는 동선의 분리라는 물리적인 문제점과 결부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벨차를 지니고 부정형적인 형태의 Plaza를 두었는데 그리하여 생긴 Deck 하부에는 주차 시설을, 상부에는 Circulation을 위한 공간과 노천극장으로 표현하였다. 건물의 블록플랜에서는 중앙광장의 부정형적이고 보다 인간적인 공간에서 모서리의 도시적 상징성을 연계성을 갖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리드미컬한 메스의 상승 효과와 Solid한 덩어리의 대립을 Void한 공간의 삽입으로 무마시켜 통일성을 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입면계획에도 사용하여 현재의 획일적이고 부조화된 가로변 파사드가 아닌 복합적이고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을 모서리의 강한 도시적 이미지로 상승시켜 통일시키는데 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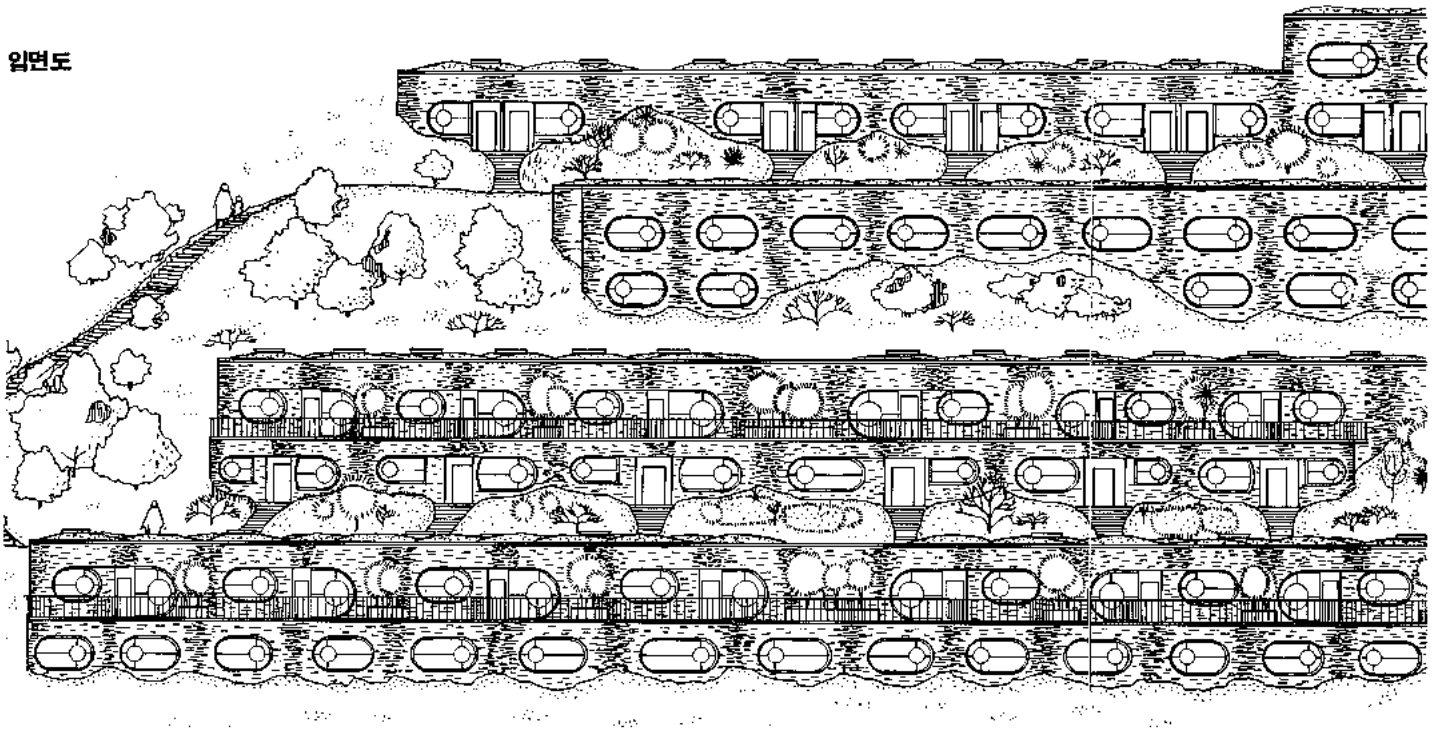


학생부문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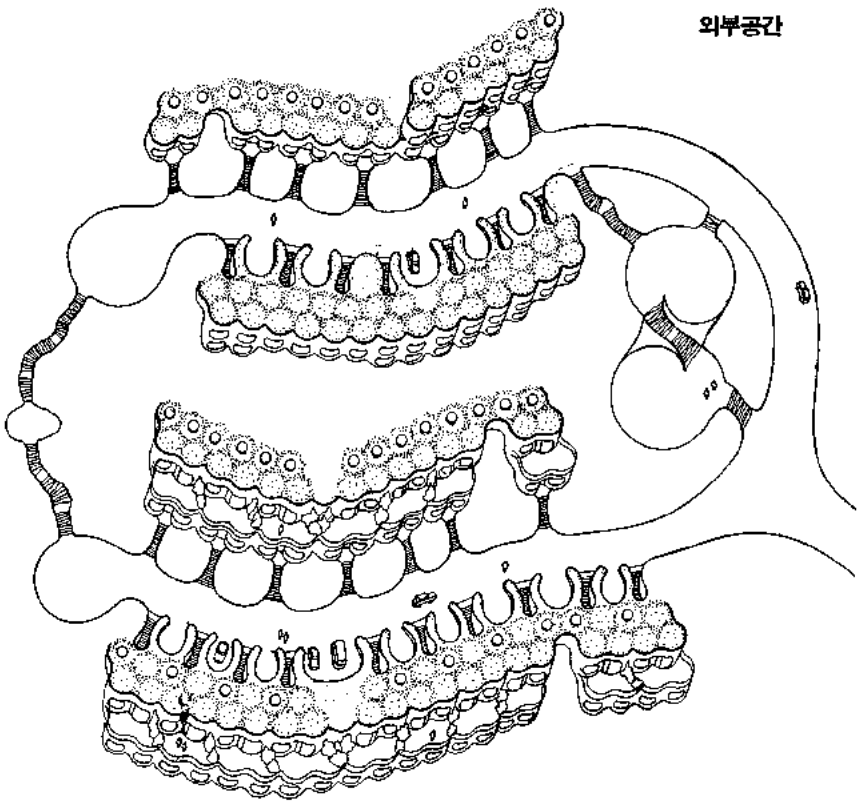
새로운 삶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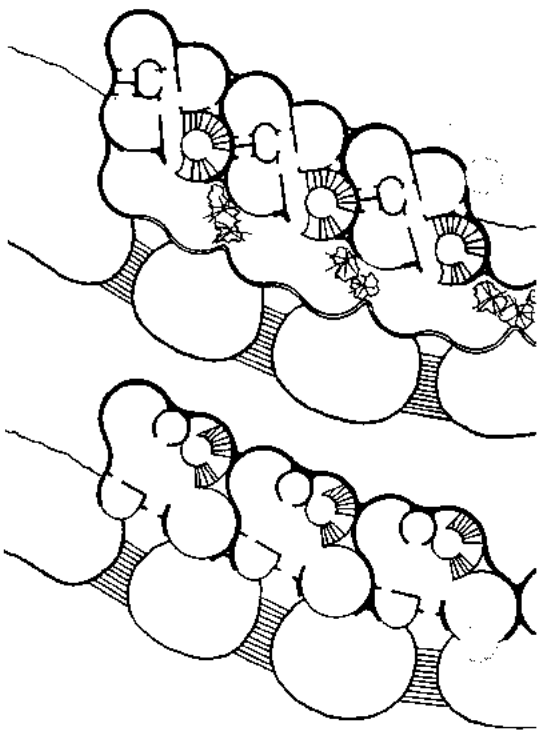
최병무·김승근·최봉성 / 목원대학교건축학과 4 년

입면도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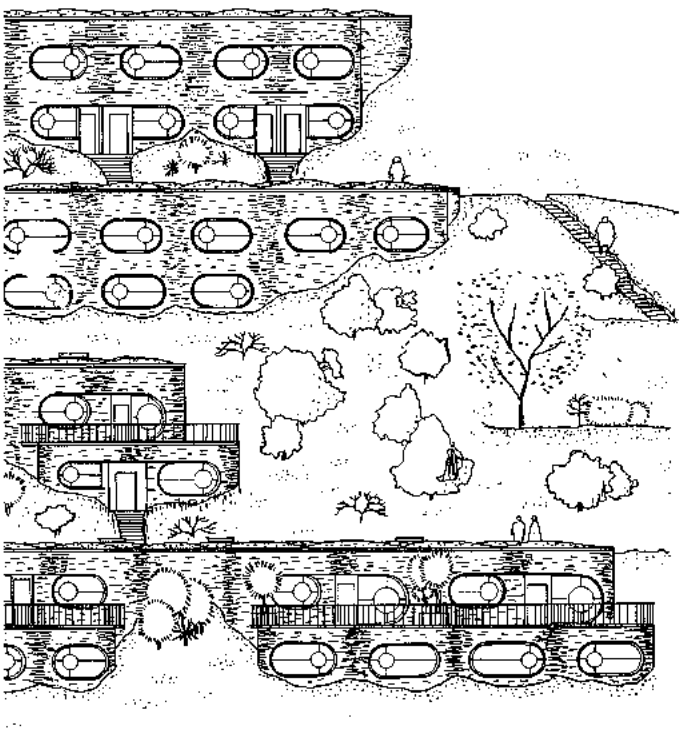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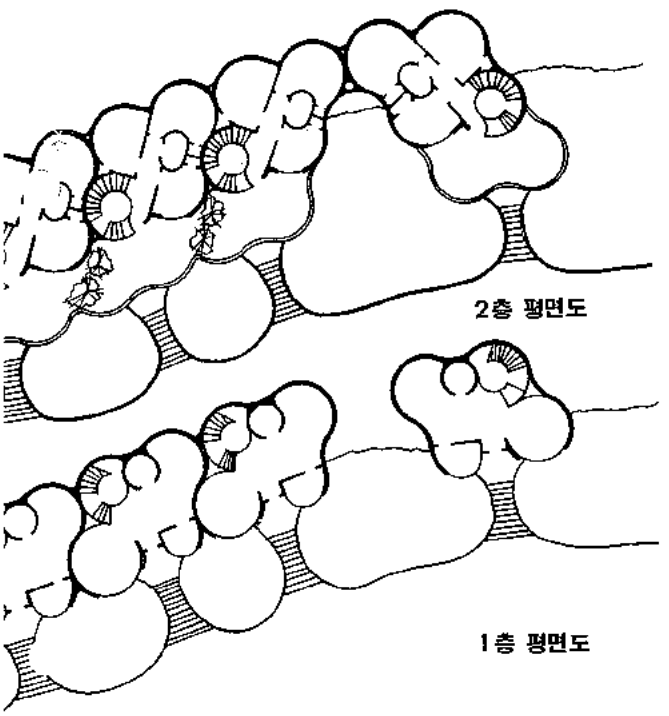


계획방향

오랜옛날 인류는 자연발생적인 동굴주거에서 시작하여 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간을 창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는 인위적인 큐빅에 의하여 획일화되고 무기적인 사각콘크리트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연계에는 하나의 원에서 시작하여 직선을 포함치 않는 정사면체 구조로 성장하여 결국 구체군으로 맺어지는 조직으로 이루어졌고 생태계는 그 구조속에서 유기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그들이 자연에 순응하는 지혜에서 우리의 보금자리도 리듬과 표정이 있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 ……

본 연립주거 계획안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유리한 주거환경을 이루는 원시동굴 개념의 복토주거에서 출발하여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사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유기적인 공간성을 부여 · 효율적인 경사지 복토주거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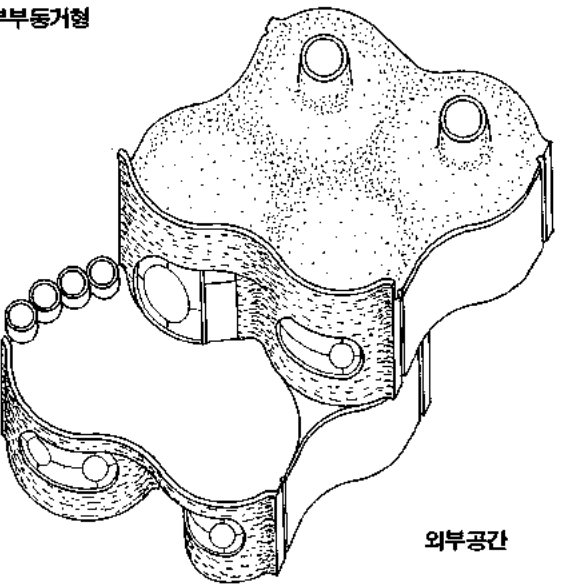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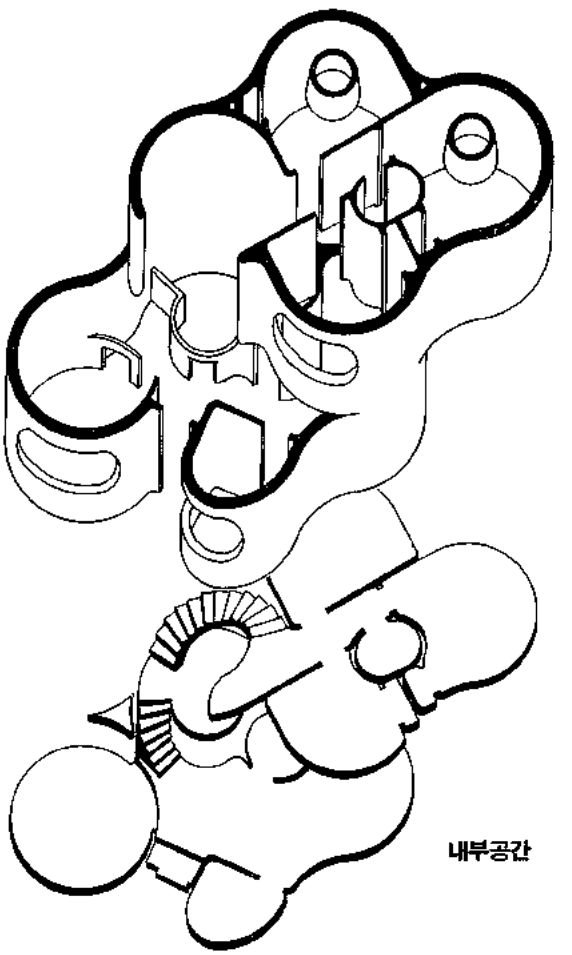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부부동거형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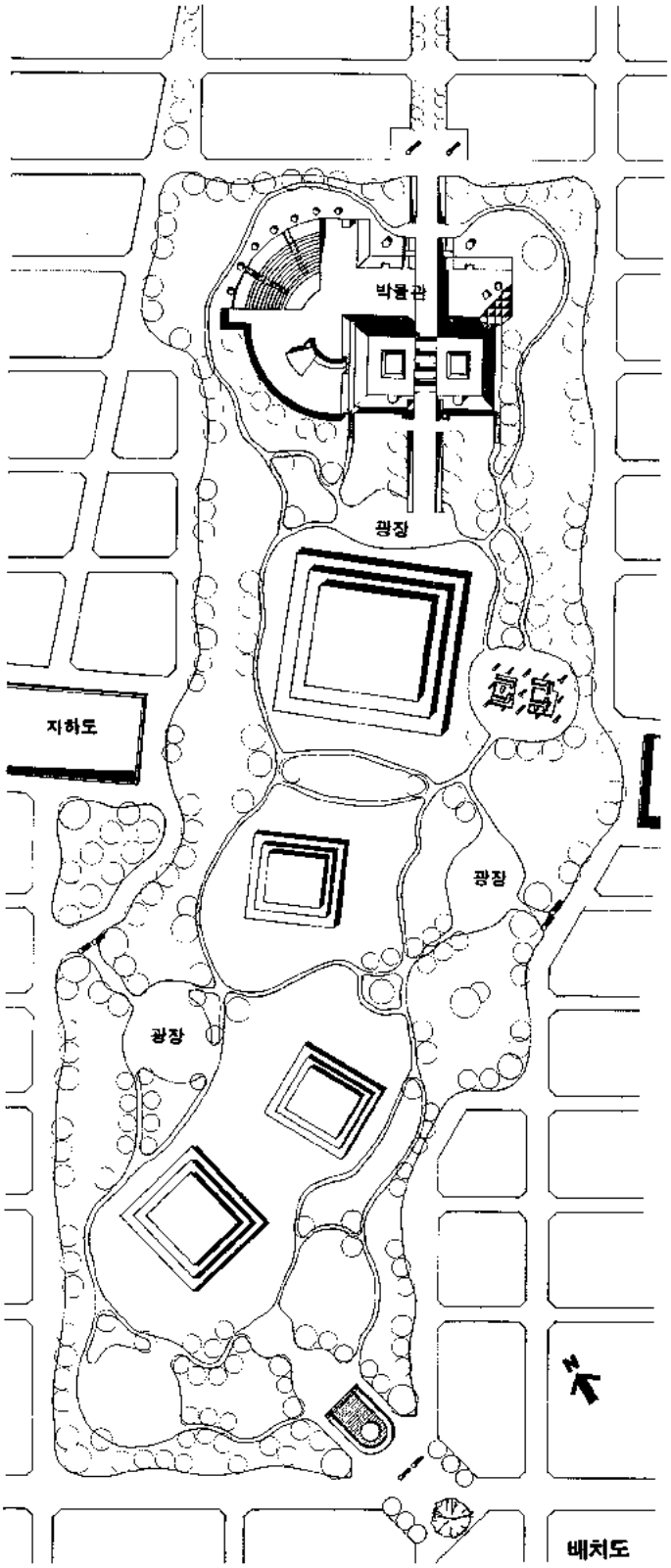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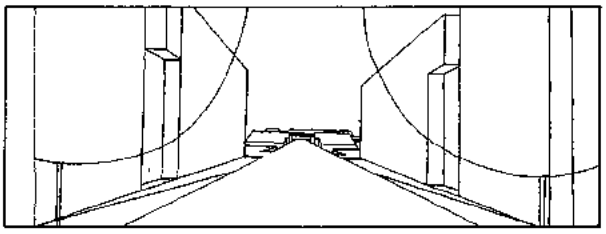
내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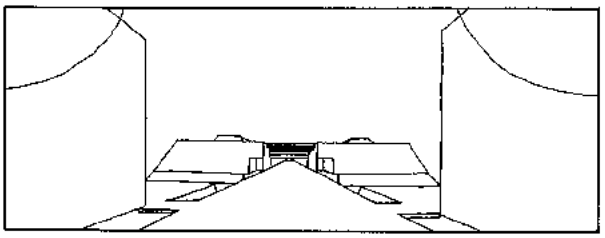
학생부문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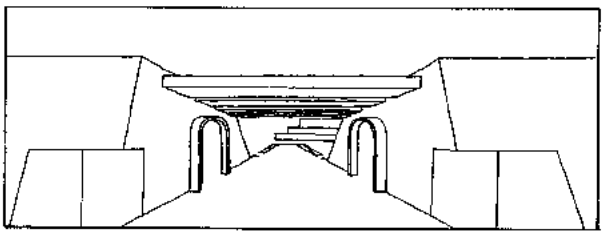
고분군 환경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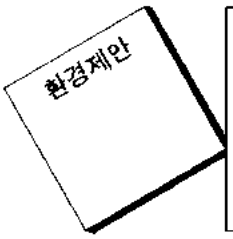
김재식·나상균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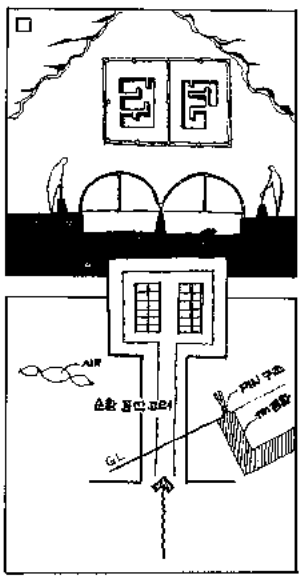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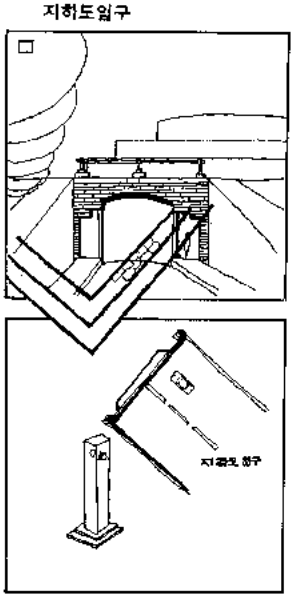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촌동
대지면적 / 13,000평
건축면적 / 637평
연 면 적 / 1,050평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벽돌

발굴현장보존



지하도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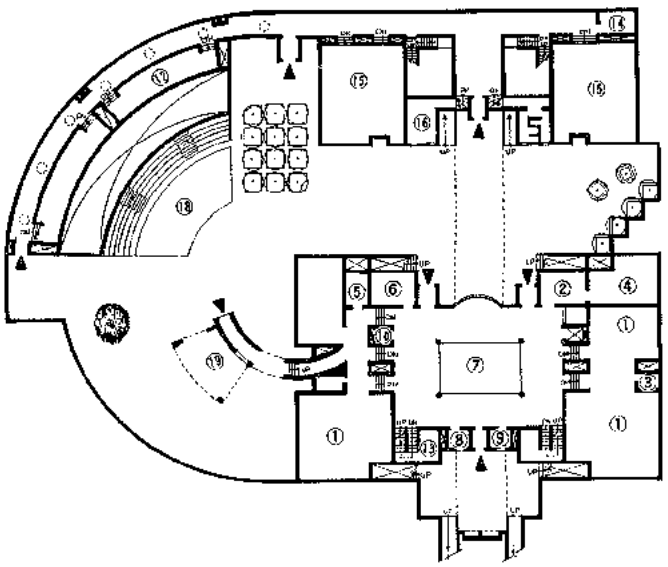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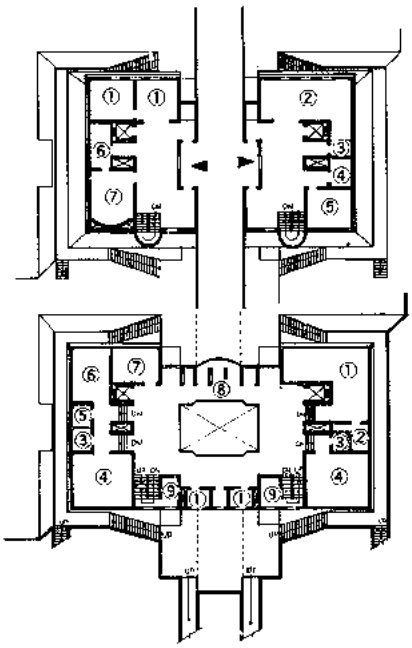
설계개요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부재된 서울의 강남문화를 되찾고 백제의 도읍지로서 남아있는 고분을 재현하고자 본 계획에 임하게 되었다. 특히 강남과 강동으로 급속히 들어선 주택단지와 부대시설 그리고 올림픽과 아시아공원 등의 등장으로 집중된 시각을 고분군의 재현을 통해 우리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미비했던 환경의 개선으로 유도해 보았다.

구체적인 공간계획에 있어서는 최대한 고분의 입면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공간을 마련했으며 진입에 있어서는 고분에 접근하는 과정 보다도 쉽게 전시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생각했으며 고분의 발굴현장 보존에 있어서는 정지된 시간속의 갇혀진 공간이 아닌 현장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겠금 했으며 주변 어느 곳에서도 고분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지하도 입구의 모습 등을 고려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끝내면서 기존의 유물·유적의 개발계획에서는 선인의 생활을 발굴현장 그대로의 모습에서 접할 수 있게하여 史的으로서 훼손되지 않은 산교육의 현장으로서 보존되도록 하는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웠다.





1층 평면도 S : 1/300

1. 전시실
2. 작업실
3. 조정실
4. 귀중품고
5. 설계실
6. 회의실
7. 로비
8. 숙직실
9. 경비원실
10. ELEV(화물)
11. ELEV(장애자)
12. 대회 전시실
13. 화장실
14. 비품실
15. 백제생활관
16. 관리실
17. 대회전시실
18. 야외강당
19. 야외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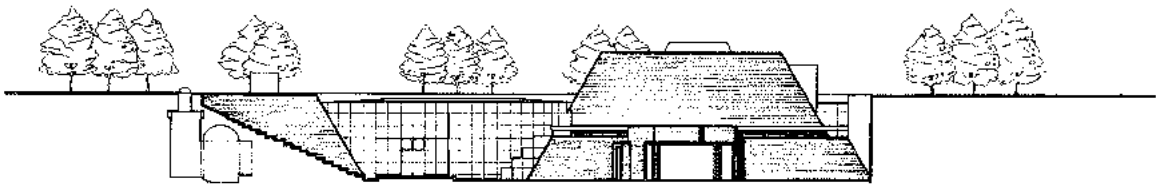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S : 1/300

1. 자료연구실
2. 암실 · 복사실
3. 작업실
4. 전시실
5. 관리대기실
6. 수광고
7. 관장실
8. 정기간행물코너
9. 화장실

3층 평면도(GL LEVEL)

1. 사무실
2. 휴게실
3. 창고
4. 관리실
5. 중앙동제실
6. 조정실
7. 멀티비전실
8. 화장실

FRONT ELEVATION



SIDE ELEVATION

신인 및 학생건축설계작품전 심사경위

1. 개최목적

신인 및 학생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일반인의 건축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건축풍토를 조성하여 건축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창달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최.

2. 부문

건축 및 단지계획설계 등 임의선택

3. 응모자격

• 신인 : 건축을 전공한 자로서 설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대학원생 포함)

• 학생 : 각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4. 응모기간 : 1986. 5. 1~8. 30

5. 심사

• 일시 : 1986. 9. 23~25

• 장소 : 본협회 전시실

6. 심사위원

●신인부문

직 위	성 명	소 속
위원장	송기덕 (A)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위 원	이영일 (B)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이문우 (C)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윤승중 (D)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	이강식 (E)	아도무·완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진일 (F)	한양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	이정희 (G)	연세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	윤도근 (H)	홍익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	안영배 (I)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김진균 (J)	서울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	이춘상 (K)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원·신양
간 사	강기세	건축사사무소 (주)범건축

●학생부문

구 분	심사위원	소 속
위원장	이영일 (A)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위 원	이문우 (B)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	김봉훈 (C)	종합건축사사무소 신신
〃	안장원 (D)	신아 건축사사무소
〃	이영희 (E)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안기태 (F)	(주)원일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종언 (G)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장석웅 (H)	아도무 완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인석 (I)	일건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용하 (J)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	유정철 (K)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7. 특 전

학생작품중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86. 10월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ARCASIA 총회와 학생건축 잼보리에 파견하는 특전 부여.

○신인작품 1차심사 결과

작품번호	작 품 명	심사위원 A	B	C	D	E	F	G	H	I	J	K	점수집계
1	Complex Building												0
2	Harmony			×	×								2
5	고궁전이 공간						×				×		2
7	DREAM WORLD												0
8	창작세계(PLAZA OF ART)												0
10	모임·이웃·인정	×						×		×			3
12	제3의 공간				×	×							2
14	소 극 장			×			×						2
15	충혼(국립묘지 관련시설)												0
17	경사지 국민학교									×			1
19	MOBILITY HOUSE												0

○신인작품 2차심사결과

작품번호	작 품 명	심사위원 A	B	C	D	E	F	G	H	I	J	K	점수집계
1	Complex Building							×					
2	Harmony				×		×	×	×				4
5	고궁 전이 공간	×					×		×		×		5
7	DREAM WORLD												
8	창작세계 PLAZA OF ART												
10	모임·이웃·인정 임	×	×						×	×			4
12	제3의 공간					×			×	×			3
14	소 극 장												
15	충혼(국립묘지 관련시설)				×								1
17	경사지 국민학교	×	×		×		×			×	×		6
19	MOBILITY HOUSE												
	계 11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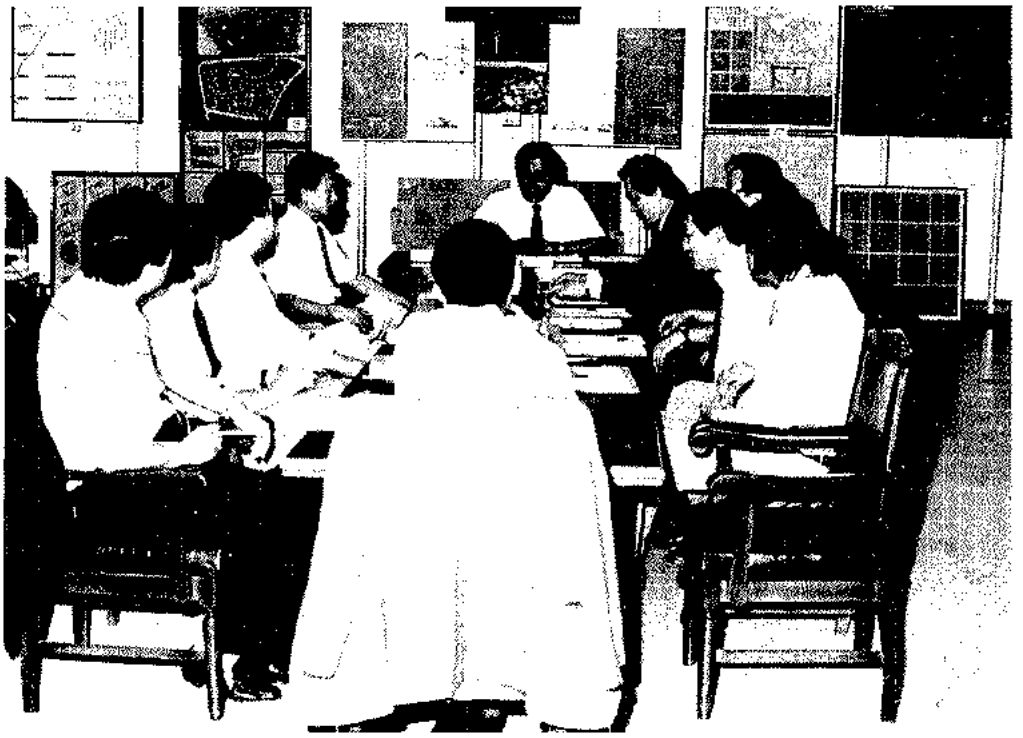
○학생작품 1차심사 결과

작품번호	작 품 명	심사위원											점수집계
		A	B	C	D	E	F	G	H	I	J	K	
13	터(NEIGHBOR HOOD)									×	×	×	3
19	우리동네 동사무소와 마을회관											×	1
26	ART MUSE			×								×	2
32	사회체육 시설과 기존국민학교 운동장의 유기적 결합									×	×	×	3
36	UNIVERSITY HAN YANG OF ARTS CENTER												0
42	종로재개발 계획안		×	×			×				×		4
45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	×				×						3
46	ELEMENTARY SCHOOL			×									1
47	목 토 주 택	×	×			×					×		4
49	인사동에 가면			×		×						×	3
52	M.X.D IN SEOUL					×	×			×	×		4
54	천·지·인		×				×					×	3
55	ESCAPE(UNIT PLAN에 의한 주거계획)		×					×	×	×			4
58	천 이	×		×							×		3
59	삼세대를 위한 다세대 주택	×	×				×				×		4
64	과학박물관+일일과학학교										×		1
70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시설	×					×					×	3
71	고분군 환경 계획안					×							1
74	HUMANITY ON OUR CITY	×	×						×			×	4
75	ART COMPLEX					×						×	2
85	SLOOP PARADISE		×					×	×		×		4
86	전쟁과 평화 6.25반공교육관							×	×	×		×	4
80	세대형태에 따른 타운하우스 계획안	×					×	×			×		4
90	새로운 삶의 형상								×				1

○학생작품 2차심사

작품번호	작 품 명	심사위원											점수집계
		A	B	C	D	E	F	G	H	I	J	K	
1	대학문화의 장	×	×	×			×	×	×				6
3	비둘기 박물관	×	×	×		×	×	×	×				7
4	바람을 이용한 자연형 태양열 주택	×	×	×		×	×	×	×				7
5	탄생의 현장			×		×	×	×	×				5
7	경사지를 이용한 교육시설		×	×		×	×		×				5
9	생과 사 그리고 삶 (종묘앞 광장 박물관 계획안)	×	×	×			×	×					5
10	주택지에서 세워진 생활인의 조공간	×	×			×			×				4
11	WELCOME TO SEOUL	×	×	×		×		×	×				6
14	3세대를 위한 아파트	×	×	×				×					4
16	3세대 주택	×	×			×		×					4
17	시 민 회 관	×	×	×	×		×	×					5
20	수평분리식 주거복합 건물		×	×	×	×		×	×				5
23	빌 - 라	×	×	×		×	×	×	×				5
27	동네시장의 활성화 방안	×	×	×		×	×		×				6
30	구릉지의 연립주택 구상	×	×	×		×		×					5
31	모임터(근린공원내의 유아원·경로당)	×	×	×		×	×	×	×	×			7
33	장애자를 위한 주거 계획안	×	×			×	×	×					5
37	유 치 원	×	×	×		×	×	×					6
39	LIBRARY	×	×	×		×	×	×	×				7
40	농 촌 주 택	×	×			×	×	×	×				6
44	2026(경사지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	×		×			×	×	×				5
48	계단 그 위 아래		×	×		×	×	×	×				6
51	미술 전시관		×			×	×	×	×				5
53	한강로 시점 이미지		×	×			×	×					4
62	세종로 86~09번지 계획	×	×	×			×						4
63	FINANCIAL AGENCY	×	×	×		×	×	×	×				7
65	미 술 관	×	×			×		×	×				5
66	교회 계획안	×	×	×		×	×	×	×				7
72	IMAGE DESIGN	×					×	×	×				4
76	3세대 주택	×	×	×		×	×	×	×				7
78	3세대 주거계획		×			×	×	×					4
79	ORDINARY PEOPLE	×		×		×	×	×	×				5
80	우리가살곳(NATURE HOUSE HODULE)	×	×			×		×	×				5
81	무언의 인식처	×		×		×	×	×	×				6
82	경사지 봉토 연립주택	×				×	×		×				4
83	느타나무의 공간	×	×			×	×	×	×				6
91	ELEMENTARY SCHOOL PLAN	×				×	×	×	×				5
92	터전(민속공연장)	×	×	×		×	×	×	×				7
93	우 리 마 당	×	×			×	×	×	×				7

신인 · 학생 건축설계작품전 심사를 마치고



심사광경

공모시기를 적절히 조절…

김진균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국각지에서 학생들이 응모한 많은 수의 작품을 대하고, 그 우열을 가리기에 앞서 학생각자가 작품을 만드느라고 쏟은 열성과 노고를 치하한다. 얼마나 많은 여름밤을 땀으로 지새웠을까… 근년에 와서 이와 비슷한 공모전이 눈에 띄게 잦아졌으나 모두 비슷한 시기로 그 마감일을 잡음으로 해서 응모자 측으로는 어떤 전시회에 출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에도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며, 주최측으로 봐서도 표(?)가 걸리는 난점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인지상정으로 상금이 많은 쪽을 택하는것 아니냐? 上協會는 나름대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의 건축계라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볼때, 공모시기는 적절히 조절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다음으로 느끼는 점으로는 우수작 선정의 범위와 기준을 다양하게 하여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는사람이나 받는사람이 상의 의미를 확실히 새길 수 있을것 같다.

아카데미상에서의 극부분, 비극부분별로 각기 작품상, 미술상, 감독상 등을 나누듯이 이왕 적지않은 수의 상을 낼 바에야 건축에서도 주거부분, 문화시설부분, 에너지부분 등에다 아이디어상, 주제상, 도면효과상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작품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사성같은걸로 눈치(?)살필 필요도 없게 하고, 현란한 색채나 시적인 구호로 도면을 호도함으로써 자기를 주장하는 열기를 갈아 앉힐 수 있겠으며, 심사하는 측에서도 많은 좋은 작품을 보고도 동시에 금을 줄수 없어 '아깝다. 아깝다'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는 고행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금, 은을 못받았다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의 출품전은 100m달리기 운동회가 아니다. 일등과 이등이 따로 없을 뿐더러 더더구나 학생전은 경쟁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떳떳히 발표해 보는, 그러는중에 서로 사귀는 젊은이들만의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더클 것이다. 한편 주최측으로는 내년 출품된 작품들은 한권의 견실한 책으로 묶어 후대로 하여금 앞선 세대의 학생때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을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줄로 믿는다.

인간화의 방향으로 노력을…

김진일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울안에서 벗어난 야생마처럼 넓은광야, 높은 창공에서 방향감각이나 고도감각에 당혹하면서도 생각을 멀리, 그리고 높게 펼쳐보았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학도에게 올해부터 해마다 이러한 설계경기의 「판」을 제공한다하니 이렇듯 고마운 일이 또 있겠는가.

학생들은 시공을 초월한 고분군, 천·지·인, Woman plaza 등 다양한 작품 주제로서 기성건축인들의 오랜 체증을 발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복지사회 시설의 주제가 주종을 이루니 역사를 통해서 배양되어온 문화적 지혜와 감각, 논리적인 구축능력이나 상상력이 질서를 유지 발전 시키려는 도덕적, 논리적인 강한 억제를 또한 보여주었다.

인간이 사물을 감수한다는 일을 「본다」로 규정짓는다면, 많이 보는일과 잘 보는일,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일상생활 주변의 훌륭한 관찰자를 회화의 세계에서 더 많이 발견하는데 그들은 생활의 객관적인 관찰자로써 사물을 파악하여 화폭에 담고 있다. 더러는 묘사적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범위를 넘어 선과 색조의 조형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소재에 접근하려고 하니 이는 건축에서도 매우 교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근대를 높은 대가를 치루고 서양에서 수입하여 왔다. 그것은 학문과 기술이었으나, 교활과 고도의 사기술도 묻혀 들여왔다. 이러한 근대에 대한 학도들의 예리한 관찰에서 이미 화석화되어가려는 자생의 근대와 전승되어 온 근대를 재인식하려는 시도가 작품명칭에서 주장되고 있다. 서양의 근대는 한 인간의 인격, 인간 그 자체를 몇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므로, 그 인간의 전인격의 긍정과는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우리의 전승된 근대나 자생의 근대는 한 인간의 존재를 몇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보다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다분히 복합된 근대의 배경을 갖는 주관적인 이번의 작품들이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였다.

어느 작품에서나 경지의 초입에서 주저하면서도 획일적인 것에서 개성적인 것으로, 장치화된 것에서 인간화의 방향으로의 공통적인 노력이 보였다. 또 개중에는 역사의 한 사건이나 시점을 응축하여 이를 조형화시켜 기념비적으로 표출하려는가하면, 현대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구조나 미뿐 아니라 醜(Ugly)와 혼돈(Chaos)마저도 건축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무모함과 대담성도 있었는데 이것이 젊은이의 특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혼돈의 예로서 「다세대 주택과 3세대 주택」이라는 주제가 있었다. 서양적 근대의 주거양식인 아파트먼트나 연립주택의 생활감각이 건축적으로 우리에게 정착되기에는 일천한 이때에, 다세대 주택에 이어 「3세대 주택」의 출품은 놀라운 일이다.

학생들의 출품작의 작업이 한창일 때, 바로 위의 「3세대 주택」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으니 모주최측의 의도가 학생에 침투된 것이니 이것도 성공으로 봐야 할까 신문에 의하면 3세대 주택에는 저소득층 저리융자, 세금감면, 단지내 일정 비율건축의무화,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설계도 보급할 기세인 듯하다.
이처럼 주택시장에 새 상품을 제공하려한다면 건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기에 상품개발에는 어휘의 (3세대와 3世帶)혼선이 없기를 바란다. 연립, 다세대, 3세대 주택은 3쌍둥이냐, 3형제이냐고 되묻는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런것들이 우리에게는 과도적인 주택이라고 평가되기 쉽다.

입선에 끼이지못한 작품중에도 매우 애석한것이 적지 않었음을 추기하고싶다.

그 누가 그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이강식
아도무·완 종합건축사사무소

첫회에 출품수로 보아서 93점이란 많은 작품을 보고 앙에 놀랐고 작품의 화려함에 놀랐다.
출품작 모두를 입선전시하여도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작품들이였다고 본다. 전시장의 제한으로 당락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괴로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각 개인이 그 무더운 여름방학도 잊어버리고 특출나게 기량을 발휘한 땀의 결정을 아카시아 총회에 맞추어 동행하여야할 학생을 선임하여야만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연 삼일간을 심사하여야하는 고충을 가졌다.
두달여에 걸쳐 만든 작품을 몇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쉬운감을 갖게 한다. 한 작품 한 작품을 대할때마다 바다 위에 뜬 어름덩어리 같이 일부만을 보는 것같아 미안한 감을 갖으며 학생들의 특출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생작품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한껏 나래를 펼쳐보는 작품, 한편으로는 자기 주위 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작품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한껏 부푸른 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한낱 꿈으로써 사라지는 경우가 많을 것같다. 즉 표현부족으로 실을 찾지못한 경우이며 후자는 너무 실리를 추구하여 꿈의 결핍으로 졸렬성을 갖게하는 작품이 되기 쉽다.
이 두가지에 얼마만큼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이므로 경험이 많지 못한 학생으로서의 특유한 작품 내지는 신선함을 갖는 학생다운 작품을 바란다. 이는 기성인들에 주어지는 법규의 제약, 대지의 제약, 건축주에 의한 규모 제약 및 조건의 제약 등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작품을 말한다.
작품은 제약과정 및 환경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며 세대에 따라 또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하지만 한 눈으로 보아 너무나 시대적 조류에 민감하게 Post Mordernism에 끌려든 듯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조류에 휩쓸리지 않은 작품이 아쉽다.
작품의 경험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과 너무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작품으로서 보다는 실리주의에 빠지게 하는 수도 있으며 경험에 따라 가치기준도 다르게 느껴지는 수도 있다. 이와같이 경험도 우리에게 양면성을 갖게한다.
경험에 따른 완숙함보다는 자기 꿈을 펼 수 있는 경험을 아쉬워한다.
작품이란 논리와 이론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험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표현기술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만족으로서만 이루어진 작품도 아니다. 일반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35작품을 입선 선정함에는 심사위원들이 거의 일치를 보았지만 상 선정에서는 많은 논란으로 인사동에 가면과 Art Complex와 대결 or 아이디어면에서 Art Complex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표현의 기법에서는 인사동에 가면이 탁월했다고 본다.
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은 참신한 작품으로 좋은 작품이었지만 장려상에 그치게됨을 아쉬워하며 한정된 상을 수를 더 늘려서라도 상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이었다.
전반적으로 한껏 욕심을 부렸지만 끝마무리에서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던것 같이 느끼며 명년에는 더욱 발전된 작품들이 속출되리라 기대해 본다.
금번 공모는 첫회로 많은 수의 출품은 우리건축계에 큰 수확이라 생각하며 작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달라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공모시테마
금번 공모에서는 주제가 주어지지 않아 너무 방대한 넓이의 작품으로 내실을 기할 수 없었던 것같다. 매년 행사로 실시한다 하니 더욱 바랄나위 없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설정하여 출품학생이 선정하여 작품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토대로 각 주제별로 설계에서의 토대로 정리되어 갔으면 한다.
기타
학생들의 작품활동 및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되게 작품을 소개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축사협회에 감사하며 학생들은 젊음을 불사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작품을 하여 본 학생과 하여 보지 못한 학생과는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앞날에도 기회갖게 한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작품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스스로가 생각하며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몇날 몇일을 머리에 담아 고심하다 해결점을 찾았을 때의 희열, 그 누구가 가져다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는 그 누가 참범할 수 없는 자아의 세계이며 작품을 하여 본 사람만의 특권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세계로 초대하며 기대하여 본다. 올림픽의 100m터 선수가 몇초를 뛰기 위하여 몇년을 연습하였던가. 하지만 목에 금메달을 단 순간 그 희열은 그 자신만의 것일것이다. 그 누가 그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

지방작품수준이 매우 높다.

이경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번 학생작품공모전은 무엇보다도 건축교육면에서 불때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미래이나마 건축문화창달의 역군이 될 건축학도들의 작품활동을 진작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축작품에 대한 시계를 널필 수 있는 의욕적인 기회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작품응모기간이 짧은데 비해 전국적으로 30개 대학에서 93개의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서울이 지방 15개교로 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어느때보다도 높은것을 알 수 있다.
작품내용과 수준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지방의 건축학생 작품수준이 매우 높은것을 알 수 있었다.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가 작품내용이 특색이 있고 표현력 구상력이 뛰어난 작품들로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입선작품중에서 작품수준이 밀도가 높고 착상이 훌륭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편 작품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작품의 표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설계과정을 건축적언어로 전개시키는 수법이 부족하였고 작품내용보다는 표현에 집착한 작품이 많았다. 둘째로 주제도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주제의 특성이 결여된 점, 도면처리의 짜임새가 부족한 작품들도 많았다.
향후 공모시 테마와 제출도면 규격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표한다면 작품의 수준과 내용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고 동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작품표현방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령 동일한 대지조건 및 설계조건을 제시하고 그대안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또는 몇개의 건물유형별로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 특정 설계제약조건(例 에너지문제, 자연채광문제 등)을 제시하는 방안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공모방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모전을 통하여 학생작품의 수준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 스스로 각종작품의 기법을 배울 수 있을뿐 아니라 한편 건축설계교육에 대한 정보입수의 좋은 기회가 되므로써 우리나라 건축교육 전반에 걸쳐 지대한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기성건축가들에게 젊은세대들의 참신한 작품세계를 알 수 있으므로서 창작내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사업을 매년 연례사업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깊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이문우
본협회 설계감리분과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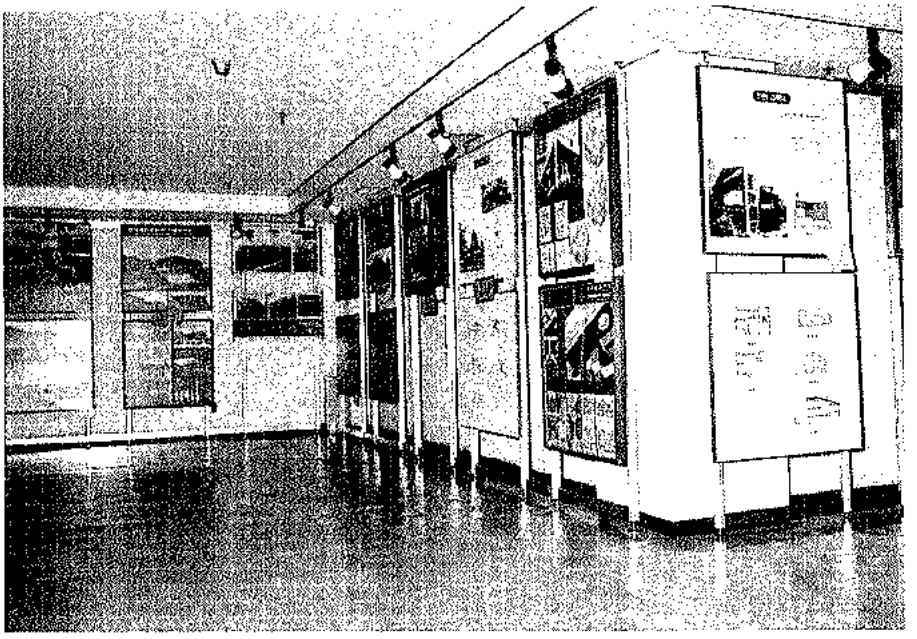
우선 전국적으로 93점이라는 많은 응모가 있었읍니다.
응모하여 주신 학교 및 학생에 대하여 본 작품전을 주무한 설계감리분과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전시회도 참관하여보고 85년도 건축대전 등을 참작하여 보아 전체적으로 작품수준의 질이 높았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특히 여름방학동안에 열심히 작품을 구상하고 만드느라고 애쓴 흔적이 보여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품작품들의 주제 선정, 의지의 표현,

계획방법, 접근방법, 표현방법과 기법 등도 순수한 학생수준을 넘지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뜻과 의지를 너무 넓게 잡아 소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도 있었읍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볼때 아쉬웠던 점은 학생작품으로서의 순수성, 소박성, 깊이있는 작품성 및 예술성 등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즉 단일건물(또는 복합건물)로서 심도깊게 계획표현하여 깊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바라보았읍니다.
아직도 거리감은 있읍니다만 그런대로 좋은 작품이 많았으며 특히 충남지역의 목원대학에서 제출한 "동사무소와 마을회관"등이 학생작품으로서는 잘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작품공모의 방향은 매년 4월에 공고하여 8월 말일정도 마감할 예정이고 작품에 대한 테마를 부여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대학 교수님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고져 합니다.

신인부문



신인다운 표현기법 개발을…

김인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일건

건축사 협회가 주최한 제 1회 신인 및 학생 현상 설계 공모 행사중 신인 작품의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느낀바 몇가지를 기술코저 합니다.
금년은 제 1회 행사이기 때문에 응모 작품의 수나 작품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할수는 없으나 앞으로 해를 거듭하는 동안 작품의 응모수도 많아지고 작품의 내용도 좋아 질것으로 확신 합니다.
첫째로 응모자는 작품 제목을 결정하는 데 신중 하여야 하겠읍니다.
관람자나 심사자에게 처음 눈길을 끄는 것은 작품 내용 보다는 작품 제목 인것 입니다. 작품의 제목을 보고 난다음 작품 내용으로 들어갔을 경우 제목과는 너무 내용이 다르거나 추상적인 제목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실망까지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 작품이니까 좀 이상적인 작품명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전혀 관련성이 없다거나 희박 한것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둘째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의 내용인 것 입니다.
응모자의 자격이 대학원 재학생, 대졸 설계사무소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작품 보다는 다소 현실적이어야 겠으며 신인 작품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좋을것 같읍니다.
너무 현실에 맞추다 보면 아무리 작품 내용이 좋아도 신인으로서 신선함과 새로운 자기 VISION을 주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작품의 표현기법 입니다.
작품의 표현기법은 응모자의 경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각양 할 수 있읍니다.
건축을 아는 사람에게는 첫눈에 응모자의 도면 표현을 보고 그사람의 경력이나 신분 까지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것 보다는 완전 한것이 좋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인을 위한 행사이므로 도법상의 부족함이 좀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며 작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할수 있고 신인다운 표현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보조사들의 수준향상의 계기로

이영일
본협회이사 심사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신인전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인전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직장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입장으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품활동을 통하여 건축계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높이 평가하고 싶읍니다.
저희 협회로서는 이번이 제 1회 신인전이었고 아직 건축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감도 있어서 작품의 수와 수준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처음 시도한 것이라 앞으로 회수를 거듭할 수록 더욱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대학에 재학시절 건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작품에 대한 의욕과 장래의 큰 꿈을 안고 노력하였으나, 졸업 후 현실사회에서 선배 건축가의 구조도나 시공도를 작도(作図)하다보면 젊은 시절에 키워야 할 작품에 대한 훈련이 소홀히 되기 쉽겠으나 설계사무소에서의 작업을 작품에 대한 훈련과 내용있는 실습과정으로 승화시켜 학생전보다는 보다 차원이 높은 신인으로서의 의욕적인 작품을 기대하여 봅니다.

지난 몇년간 설계보다는 건설현장으로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건축인들이 모이는 경향이었으나 다행히 최근 들어서 설계사무소 등에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 등 고학력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건축계의 장래를 밝게 하여 주고 있읍니다.
이때에 신인전을 개최하기 시작한 저희 협회는 회원사무소에서 신입(新入) 보조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신인전이 더욱 발전하고 신입보조사들이 작품활동을 통하여 건축하는 보람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건축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가 신인전을 갖게 된 동기라고 보고 싶고 보조사들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협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제도의 확대 발전 등 개선점을 찾아서 신인들의 참여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마전으로 시행이 바람직…

이영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번 제1회 대한건축사협회 신인 공모 작품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심사장에 들어서기까지는 나름대로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나 막상 전시장을 한바퀴 돌아본후 습쓸한 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양적으로도 27점에 지나지 않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별 건축으로서는 창의적인 조형언어를 다듬는데는 심혈을 기울인 많은 흔적이 보이나, 건축, 그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환경과 연계하여 건축을 풀어 나가는 강한 의지가 담긴 작품은 거의 찾아볼수 없었기에 못내 아쉬웠다.
이번 공모전이 신인 공모전인데 신인이란 범주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경계할수 있는지는 조금 막연하지만 주최측에서는 대학원 재학생을 그 하한선으로 정의하였다. 여하튼 신인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건축창작 활동에 상당한 참여 경력을 보유한 자로 정의함에는 큰 무리가 없을진데, 작품을 읽는 시각도 학생작품과는 구분되어야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생각이었다. 강한 Image drawing 속에 꿈이깃든 낭만과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가능성을 찾는데 높은 평점을 주는것이 학생작품이라면, 신인의 경우에는 건축적 질서가 정돈되고 논리적 설명이 수반되어 누가보아도 쉽게 읽을수있는 도면이어야 한다는것이 나 개인적 생각이다. 표현기법에대한 기교의양·부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출품 작품중에 몇개는 건축작품도면인지 이미지 드로-잉인지 읽기가 무척 힘들었고, 건축내지 환경의 여러Factor를 도식화하여 나열만 해놓았지 해결의 의지가 전달이 안되는 작품도 몇개 있었다고 지적할수 있다. -「House with two Doors」, 「제3의 공간」, 「고궁 전이공간」, 「Complex Building」, 「Mobility House」 등의 작품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나 생각한다.
금상이 수상된 「PLAZA OF ART」는 테마선정이나 환경설정에는 무척 안이한 처리였으나, 소규모 개별건축으로서의 조형어휘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보며, 은상의 「충혼」은 기념성 건축물로서 그곳을 찾는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눌수 있는 친근감과 세련된 창작의지가 수렴된 건축언어를 읽을수 있었기에 무척 공감이 갔다. 동상의 「DREAM WORLD」는 기성작가가 크라이언트와 수차례의 씨름끝에 최선을 다하여 빚어놓은 작품과 같은 인상을 받았으나 세심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평가되었다고 본다.
이번이 제1회인 만큼 내년에는 보다더 의욕적인 작품이 출품되리라 믿으며 건축대전 등을 고려하여 내년 부터는 테마전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운 때를 벗지못한 아쉬움

이용하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려 심사에 임했으나 심사기준 설정이 어려운 문제였으며 또 작품자체도 학창시절 작품의 고운때를 벗지못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 향후 공모시 테마의 제시여부 테마를 제시하면 심사의 편이성은 있겠으나 작품의 다양성이 결여될 것이다.
○ 기타의견
심사를 끝내고 느낀점은 신인작품의 대부분이 대학원생들의 작품이었으며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신인들의 작품이 적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있을 현상에는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신인들의 더많은 출품이 기대되며 이것이 우리 건축사의 참 작품 생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어진다.

제도적 보완을…

장석웅
아도무·완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건축전람회가 있어 신인들의 등용문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추세라 생각된다.
학교 재학생전람회며 졸업하기위한 과제로서의 졸업설계전시회며 가장 역사를 오래한 국전이 민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건축대전"이 해를 거듭하여 금년으로 5년에 이르고 통산 40여회로서 창작성이 뚜렷하고 작가의 학력이나 년령에 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건축전문지인 건축문화에서 "건축문화 학생상"제도가 금년으로 2회에 접어들며 일정한 테마(금년에는 주거)를 부여했고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학생에 한하여 출품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토록 관계단체 등에서도 각기 고유한 기능과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사협회에서도 협회의 고유한 업무 등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취지에서 좀더 치밀하고 발전적인 작품성격의 제안이 있도록 하면 더좋은 내용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또한 그림이나 조각을 작가 마음대로 표현하고 마저도 작품성이 인정받고 상품화되는데 비하여 건축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이상의 노력과 제작비가 투입되므로 본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람회에서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입선작 이상에게는 제작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큰상 수상자는 건축사시험

용시시 설계과목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하여 명실상부 한국의 최고 권위있는 전람회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 * *

신인전의 작품심사 소감으로 동상의 "DREAM WORLD "는 작품명과 내용이 걸맞지 않고 창작적인 건축의 의마는 부족하나 실무를 익히기 시작한 신인작으로서 의도한 Detail을 소화하려는 의도가 다른 작품에 비하여 높이 평가되었고, 은상의 "충혼(국립묘지 관련시설)"은 출품자리 작품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여 작품의 PROCESS며 PRESENTATION이 매우 성숙된 능력으로 평가되나 좀더 발전적인면이 엿보였더라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금상의 "창작세계 PLAZA OF ART"는 건축적의미는 부족하나 의도한 작품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열심히 완성하려는 의욕이 신인작으로 높이 평가됐다.

알맹이 없는 형태적인 면에 치중…

한종언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건축사협회주최 신인작품전의 27개 출품작을 심사하면서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않았다. 아마 이번이 첫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작품전이 가을로 되어있어서 출품자들이 분산된 듯하다. -건축대전, 공간사작품전, 사협회학생작품전 그리고 각대학졸업작품준비 등- 또한 신인작품전에 출품하는 자격에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것 같다. 대상이 대학원생과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참가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여건으로 작품수 27점이 적은듯 싶었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본인의 수차작품심사 경험에 비추어 더 향상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단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정리가 덜되어 좋은 결과는 갖지못하였지만 두작품이 리노베이션을 주제로 하였다는데 작품의 방향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작품전에 대한 공통적인 느낌은 알맹이 없는 형태적인 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점 다음 출품자를 위해서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이울러 해가 거듭할수록 괄목할 성장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 협회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발전시킨다면 사협회의 신인작품전이 우리나라 어느 작품전보다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1회 작품전이었다고 본다.

⊙건설부령제411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 10. 30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이하 "시화지구"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제3호중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를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와,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로 하고, 동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1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개장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분묘의 설치기준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다)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질 의 회 신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할 공동저수시설등의 생활용수 확보에 관한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있어 동사업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때 간선시설인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설치를 못할때에는 당해사업주체가 간설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시설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준공시까지 설치하여야 할것임.
2. 다만, 상수도공급 예정구역내에서 100호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년차적인 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여 수도물 공급이 장차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수 설치와 병행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의 생활용수(음용수등)로 상시 계속 공급할 수 있게 하거나, 독자적인 지하수 개발로 양수시설을 하여 수도법,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양호한 수질이고, 그 채수량등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여 안정공급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등의 구조안전과 장차 건설계획에 따른 지하양수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3. 참고로 공동주택 대지내에서 지하수 개발이 입주민에게 음용수등 생활용수를 상시 계속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허가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

공기식 집열창이 설치된 핀란드의 ECONO 사의 사옥

RFPORT

Airflow Window System

by Park, Sang-Dong
& Suh, Bo-Kwang

본고는 핀란드의 세계적인 기업인 ECONO 사의 사옥에 설치된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 — 창호제작에 관한 것 — 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 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입수한 기술 정보와 동사의 Mr. H. Ripatti 가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작성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공기식 집열창구조는 에너지 효율적인 창과 태양열 집열기의 조합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중유리의 외창과 단유리의 내창 및 이들 유리사이에 설치된 베니치안 블라인드로 구성되어 있다.
방으로부터의 환기(Return Air)는 내창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이들 이중창 사이를 지나서 다시 이 건물의 중앙공조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이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할 것없이 향상된 열적 성능과 공간의 쾌적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주광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난방, 냉방 및 주광이용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 HVAC 기기의 용량감소라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초기투자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평가와 아울러 이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의 제고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종류의 공조시스템과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가가 취급되어 있다.
또한 다른 종류의 건물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 집열창 시스템의 정확한 에너지 및 성능해석을 위하여 TRNSYS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미국의 3개의 다른 기후지역에서의 본 집열창 성능에 관한 비교계산결과가 본고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어 있다.

1. 서론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된 공기식 집열창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연구업무와 관련되어 시작되었다.
첫번째의 대규모 설치는 Finland가 그 기원으로 1967년 Helsinki 시 건축국 사무실에 이들 다목적 창이 채용된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공기식 집열창에 3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즉, 첫번째 것은 배기식 창(exhaust air window)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내공기가 강제적으로 유리 사이를 지나서 외부로 보내지는 것이며 두번째 것은 급기식 창(supply air window)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외기가 유리 사이를 지나서 실내로 취입되는 것이다. 세번째 것은 여러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은 공기추출(공기분리)식 창, 환기식 창 및 공기커텐식 창들이며 비록 여기서는 공기식 집열창이라는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지만 세번째로 분류된 것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973년 에너지위기 이후 공기식 집열창의 에너지절약 가능성은 이의 많은 적용의 결과로서 드러났다.
오늘날 스칸디나비아와 중부 유럽에는 약 100여개의 대형건물들이 열적

*박상동 / **서보광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건물연구실장
**동성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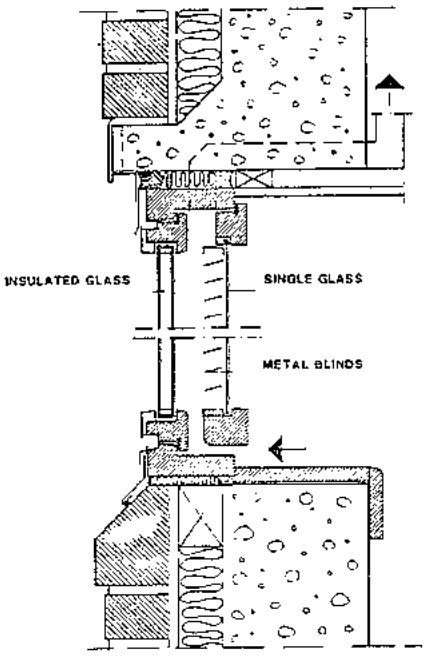
쾌적성을 위하여 이 창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사무소 건물들이다. 또한 상당수의 다른 종류의 건물, 예를들면 병원, 학교가 이 창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 Oregon주 Portland에 있는 한 사무소 건물에 이 공기식 집열창이 처음 설치되었고 1년 후에 Washington주 Puyallup에 있는 2개 학교에 이 창 시스템이 채용되었다. 그후 2~3개의 사무소 건물이 완성되었고 현재도 여러개의 다른 건물이 설계 또는 시공중에 있다. 공기식 집열창을 갖춘 수개의 건물의 다년간의 운전경험에 의하면 이들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일반창으로 된 건물보다 20~50%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식 집열창에 대한 평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년간 베이스로 이들 창을 통한 에너지 수지가 30~60%정도 공기식 집열창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광에 대한 고려는 이들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2. 공기식 집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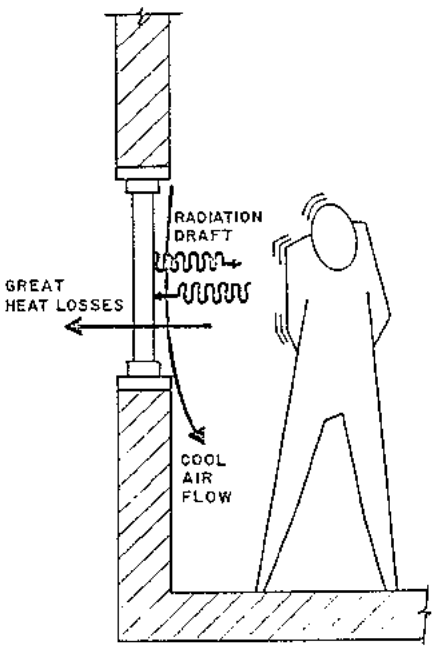
공기식 집열창은 전형적으로 고정 또는 이동가능한 이중유리 외창과 유리창 청소를 위해서만 단지 열 필요가 있는 이동식 단유리 내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그런데 유리 사이로 공기 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베니치안·블라인드나 유리표면에 먼지가 달라붙을 우려가 거의 없으므로 유리창 청소는 거의 필요하지 않다. 또한 기밀하게 이중으로 밀폐시킨 외창으로는 외부의 먼지가 유리 사이의 공기층으로 들어 올 수 없다. 외창을 이동가능하게 해 두었을 경우에는 비계나 외부의 청소장치가 필요없게 된다.
단유리 외창은 온화하거나 따뜻한 기후 지역에서만 사용될 수 있고 삼중유리 외창은 실내의 고습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극히 추운 기후지역에서 사용된다. 두가지 창은 모두 나무, 알미늄, 플라스틱 등 어느 것으로 해도 된다. 나무창틀의 외표면은 일반적으로 알미늄을 덧댄다. 덧댄 알미늄은 일반창에서와 마찬가지로 열적인 급변화에 의해 분리될 수도 있다. 베니치안·블라인드이든 수직루버이든 이들은 내·외창 사이의 공기층에 설치된다. 그 블라인드들은 각층마다에서 단순조작에 의해 수동으로 조정되며 이들의 기계적 또는 중앙제어도 가능하다.
공기식 집열창은 실내공기를 창틀 하부로 끌어 들이게 되며 이 창틀에 있는 구멍은 이동식 내창의 너비와 같다. 이 공기는 창 사이의 공기층을 통해 위로 올라가서 덕트·시스템을 경유하여 중앙 HVAC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 창을 재래식 환기덕트 시스템의 첫번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3.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장점

1) 일반창의 문제점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장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 또는 창면적의 전형적인 문제점(그림 2)을 검토함이 중요하다. 재래식(일반)은 높은 열관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열이 유리창을 통해 내부에서 외부로 직접 흐르게 된다. 더우기 겨울에는 유리의 내표면에 손을 대면 매우 차고 이 냉기가 하향성 대류기류를 일으키는데 라디에타나 히터를 창면적 아래에 설치하는 것도 바로 이런데서 연유한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차가운 유리의 내표면이 유리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몸에서 차가운 유리표면으로 열이 방산되는 것을 느끼게 한다.
2) 하향기류의 제거
공기식 집열창은 유리사이에 실내 공기를 유입시키므로 내부 유리창의 양표면에 따뜻한 실내공기가 있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내측 유리를 통해서는 온도차이가 없게된다. 따라서 내표면도 따뜻하다. 이리하여 모든 하향성 대류기류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주변부 난방의 필요성도 없어진다.
3) 복사
내측 유리를 따뜻하게 함에 의해서 야기되는 다른 요소는 그 방의 평균 복사온도가 상승된다는 사실이다. 바꿔말하자면 창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복사열 손실은 유리창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최근의 시험이나 실험에 의하면 인체 주위의 공기온도 보다는 인체 주위의 표면온도가 사람들의 쾌적도를 더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은 쾌적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같이 평균 복사온도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Thermostat의 온도를 1~2℃(2~4F)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쾌적의 수준은 같다는 얘기가 된다. Thermostat의 온도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재래적인 에너지 절약수단이기도 하다.



〈그림-1〉 공기식 집열창의 나무창틀 상세



〈그림-2〉 일반창의 결점

4) 열관류율의 개선·향상

시험에 의하면* 실내에서 외부로의 측정된 유효 열관류율은 일반창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 (그림-3) 공기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열관류율값은 내려간다. 이 유효열관류율은 기류 그 자체의 열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열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열손실은 공기층이 정체되어 있을 때 보다 기류가 있는 공기층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난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공기속도가 빨라질수록 열손실도 더 급하게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열손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열손실을 보면 일반창 구조로 한 건물보다 난방 기간을 전부 지난 후에는 더 작다는 것을 시험은 보여 주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기류의 순간적인 영향이 열을 더 빨리 손실케 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그 방의 평균복사 온도의 상승, Tehrmostat의 하향조정, 주변부(perimeter) 열부하의 제거, 주광이용 및 주간의 태양열 집열, 축열과 같은 그 창시스템의 모든 다른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전체 시스템 효과는 그 창의 열적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귀결된다.

이의 가장 좋은 예는 시간당 많은 양의 내·외기 교환을 요하는 즉, 큰 비율의 외기취입(intake)을 필요로 하는 병원과 같이 지극히 높은 환기를 필요로 하는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병원에서의 대부분의 공간에 대한 설계기준은 100%의 외기를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조건은 욕실의 배기Vent나 주방의 배기Vent 등에서와 같은 일반적 해결책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환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방에 외부에서 취입되는 외기를 채우기 위해 공조된 공기의 일정량을 배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배기가 그 창을 먼저 통과하도록 설계함에 의해서 배기 요건을 달성할 수 있고 동시에 창을 통한 손실은 제거된다.

5) 하절기의 문제점 및 해결책

여름철의 문제점은 태양광선이 창을 통해 바로 들어와서 실내에 있는 사람을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직달일사를 막아주는 것과 연관된 창의 특성을 차폐계수(Shading Coefficient)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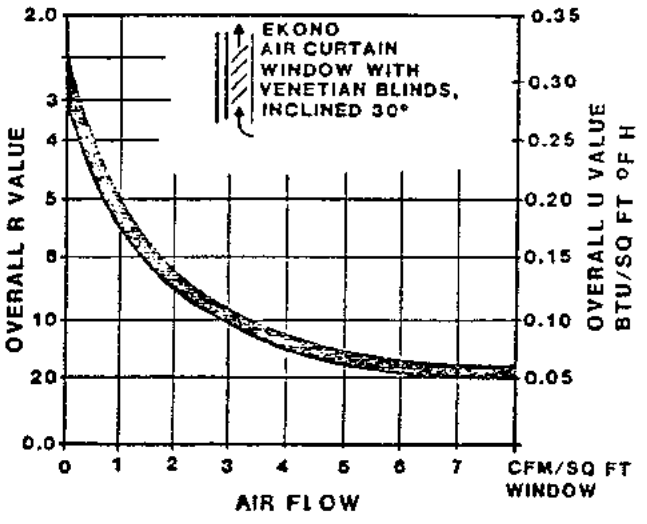
공기식 집열창은 채색유리 또는 반사 유리의 모든 종류를 포함한 오늘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여하한 형태의 창과 비교해도 차폐계수가 가장 낮다* (그림4)

6) 투명유리의 효과-태양열 집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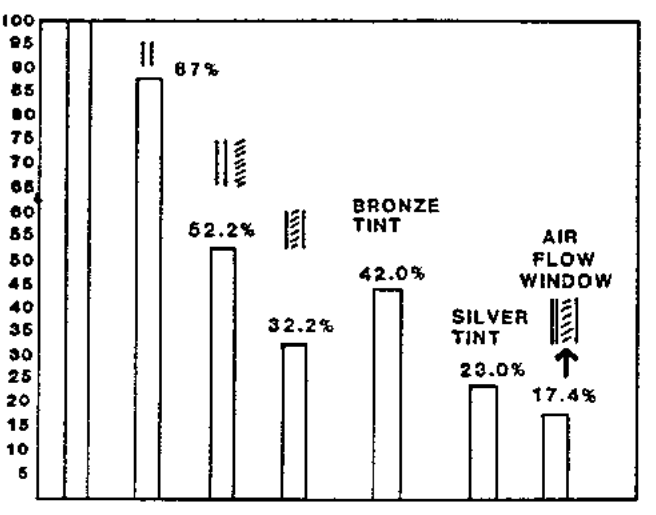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은 이 차폐계수를 얻는데 있어서 투명유리를 사용한다. 이것이 되는 방법은 태양이 외창의 유리를 통해서 비춰오면 이것은 금속제 베니치안·블라인드를 뜨겁게 하며 그 때 이 블라인드가 그 열을 실내로 재복사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베니치안·블라인드를 통해 지나가는 기류가 열교환기의 역할을 해서 그 열을 창에서 부터 공기덕트로 몰아가 버린다. 이 효과가 그 창이 우수한 차폐계수를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창을 설비형 태양열 집열기로 변신시켜 놓는다(그림5). 남측 창에 떨어지는 일사의 40~60%에 달하는 태양열은 이제 공기덕트에서 모두 제어되며* 기술자나 건축가가 바라는데로 건물내의 어느 곳에든 수송될 수 있다. 이 태양열은 반대편 공간을 난방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급탕에도 쓸 수 있고 수영장을 데우는 데는 물론 어떠한 다른 원하는 곳에도 쓸 수 있다. 그 건물에서 태양열이 필요하지 않는 연중의 어떤 기간동안에는 그 건물의 냉방부하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창으로 부터 환기된 더운 공기를 건물 밖으로 배기시키면 된다.

7) 주광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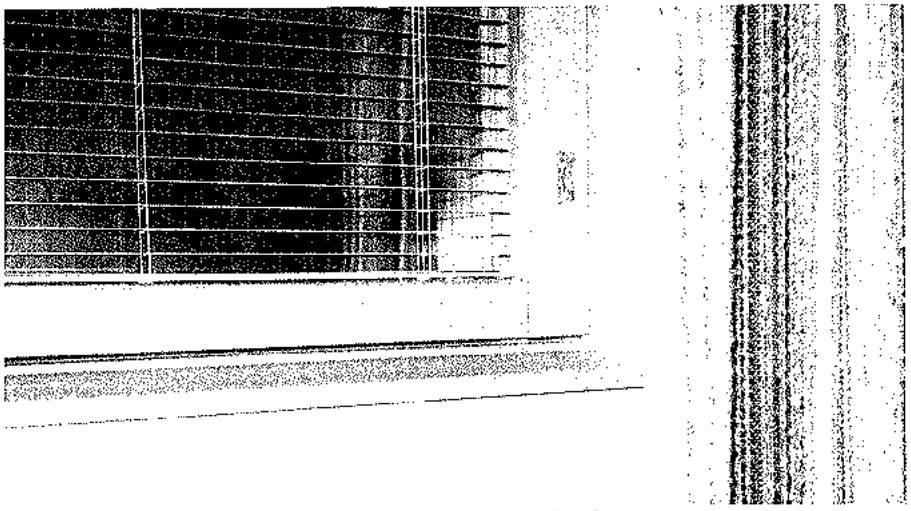
태양열 집열과 차폐계수를 얻음에 있어서 창에 투명유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또다른 이점이 있다. 태양의 총에너지는 가시광선, 적외선 및 자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절한 차폐계수를 얻기 위하여 대부분의 유리창은 채색유리나 반사유리를 사용한다. 채색유리나 반사유리는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일차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외선과 적외선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 투명유리를 사용한 공기식 집열창은 모든 태양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차단한다. 즉, 이것은 이용가능한 가시광선의 대부분은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옴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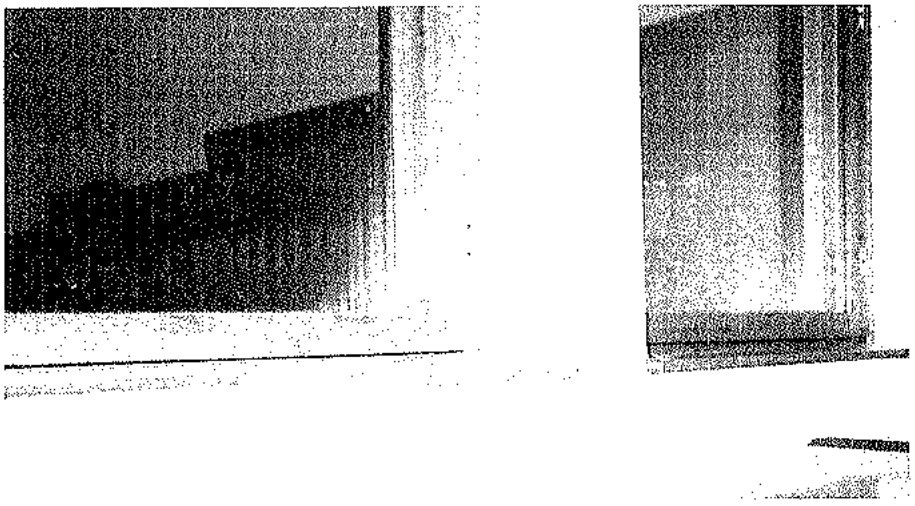
〈그림-3〉 기류가 형성된 공기식 집열창의 U치



〈그림-4〉 각창의 차폐계수(투명단창 : 100) %



공기식 집열창의 하단 공기흡입구를 보여줌(옆으로 길게 틈이 벌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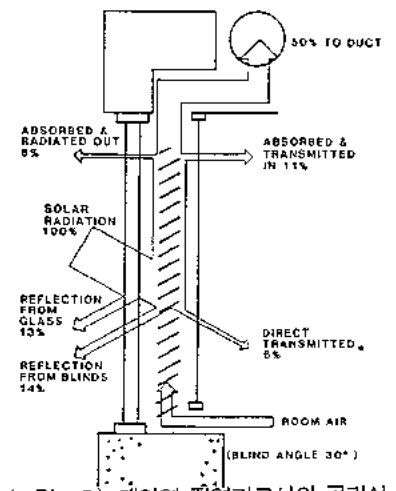
위와 같은 사진이나 2개의 창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임

다시말해서 이것은 건축가가 주광이용을 건물에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공조명은 대규모 건물의 총에너지 소비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큰 에너지 소비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냉방기에 이러한 조명등을 끄므로서 부가적인 에너지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명등들은 또한 전열기(heater)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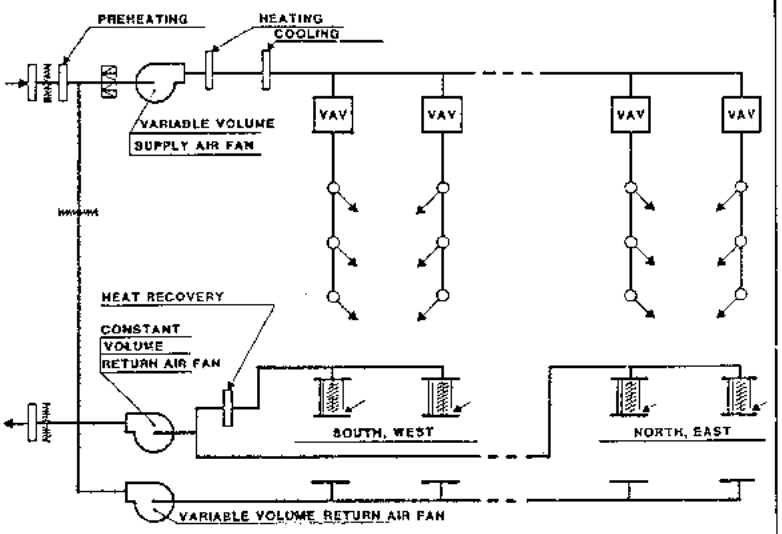
8) 초기투자 절감

창의 에너지면에서의 장점에 덧붙혀 초기투자에서의 유리점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계획함에 의해서 냉방설비 뿐만 아니라 중앙난방 설비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냉난방기기 용량의 10~30% 감소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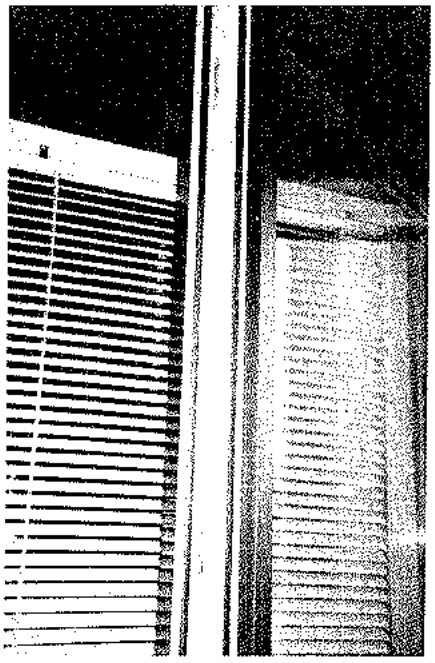
강제공기순환식 시스템에 있어서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을 환기벤트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함에 의해서 다른 환기벤트는 더 작아져도 되고 그 수도 적어져도 된다. 이것은 재료의 절약이기도 하고 노동력의 절약이기도 하다. 베니치안·블라인드는 그 창과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별도의 창문치장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개폐가능한 외창으로 한다면 외창의 청소를 위한 사닥다리 같은 장치를 할 비용을 안써도 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근무시간동안 주광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창을 통한 자연채광을 이용함에 의해서 조명기기의 숫자나 조명등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주변부 난방을 하지 않으므로서 큰 초기투자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난방을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로서 이미 기능인들이 재료나 방열기를 설치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비용절감이 되는 것이다. 주변부 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두가지 다른 매우 유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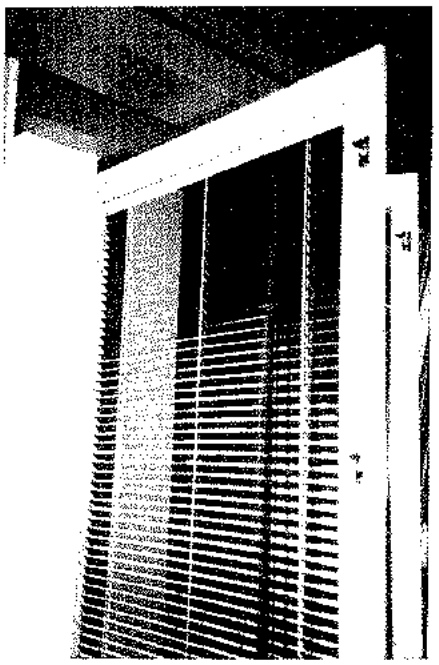
〈그림-5〉 태양열 집열기로서의 공기식 집열창의 전형적 태양열 분배



〈그림-6〉 VAV시스템과 공기식 집열창



공기식 집열창의 내·외창을 열어서 보여준 것임
(베니치안 블라인드가 내창에 설치된 것임)



앞과 동일함(사진의 각도만 틀림)

효과가 있다.
그 첫번째는 창 아래의 방열기를 제거함에 의해서 창 아래의 1~3ft²의 가용면적이 생긴다. 두번째는 재실자에 대한 효과이다. 일반창이라면 창 바로 옆은 사용 불가능하다. 겨울에는 창으로부터의 냉기가 너무 차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방열기로 부터의 온기가 너무 더우며 여름에는 직달일사 때문에 너무 덥고 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병원건물을 공기식 집열창으로 하면 병실의 침대를 창 바로 가까이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그 곳에 있는 사람도 연중 시간에 관계없이 또 기후나 태양고도 및 외기온도에 관계없이 쾌적한 상태에 있게 된다.
공기식 집열창은 보통창 보다 초기투자가 현저하게 높다. 이들은 항상 주문 제작되고 각개구창마다 두개의 별도의 창틀을 가져야 하고 별도의 공기덕트를 요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다른 부분에서 큰 초기투자절감도 되지만 공기식 집열창을 쓰면 초기투자 비용은 항상 다소간 높다. 그러나 전수명기간의 비용분석에 의하면 공기식 집열창은 지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형건물에서는 보통 2~4년 이내에, 또한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5년 이내에 이 창에 대한 추가비용을 회수한다. 소형건물에서의 투자회수 기간은 더 길다. 이런 점에서 개인 주택에서의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 설치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4. HVAC 시스템 및 공기식 집열창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은 그 건물의 HVAC 시스템의 일체적인 한 부분이다. 따라서 공기식 집열창의 모든 유리한 점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각건물에 주의깊게 설계·처리함이 필수적이다.
시스템의 효율은 아래의 항목들에 대한 설계상의 해결방법에 의해 좌우된다.

- 기후적 및 지리적 위도
- 부지 및 건물의 향
- 건물의 형태와 규모
- 창면적과 일사에 대한 노출 정도
- 창의 향
- 실내 공기수준의 요구 정도
- 건물의 목적과 사용 용도

공기식 집열창은 큰 유리창 면적을 가지며 특히 그 창이 남향에 면하도록 설계된 극히 추운 지역에 있는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적합하다.
공기식 집열창은 전공기식 및 수입공기식 시스템으로 아래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HVAC 시스템과 연결되어 사용되어 왔다.

- Single Zone 방식
- 변풍양 방식
- Terminal Reheat 방식
- Induction 방식
- Dual Duct 방식
- Multi-Zone 방식

그림 6, 7 및 8에 공기식 집열창을 이들 시스템과 연결하기 위한 몇가지 예가 나와 있다. 또 위에서 언급한 공조시스템이 공기식 집열창의 장점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가 표-1에 나와 있다. HVAC/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조합을 설계할 때는 몇가지 기본적 법칙이 반드시 고려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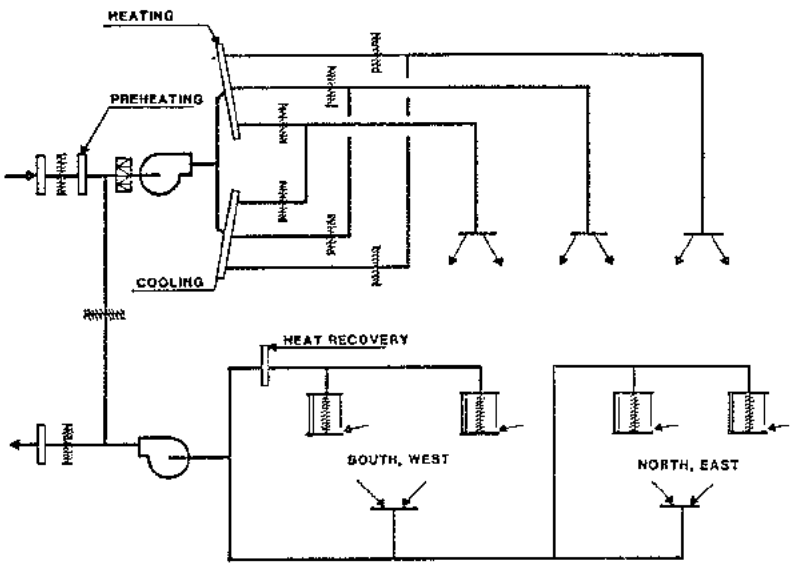
1) 덕트 연결
각 창은 환기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한다. 환기시스템에서의 가압은 공기의 흐름이 모든 단창(Single window)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설계·처리되어야 한다.

2) 환기
별개의 독립적인 환기시스템이 남·서창에 대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남·서창들은 (1) 그 건물의 다른 부분의 난방을 위해서, (2) 열회수 시스템을 통하여 보충될 공기나 공급 온수를 예열하기 위해서, (3) 축열조에 축열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대부분의 태양열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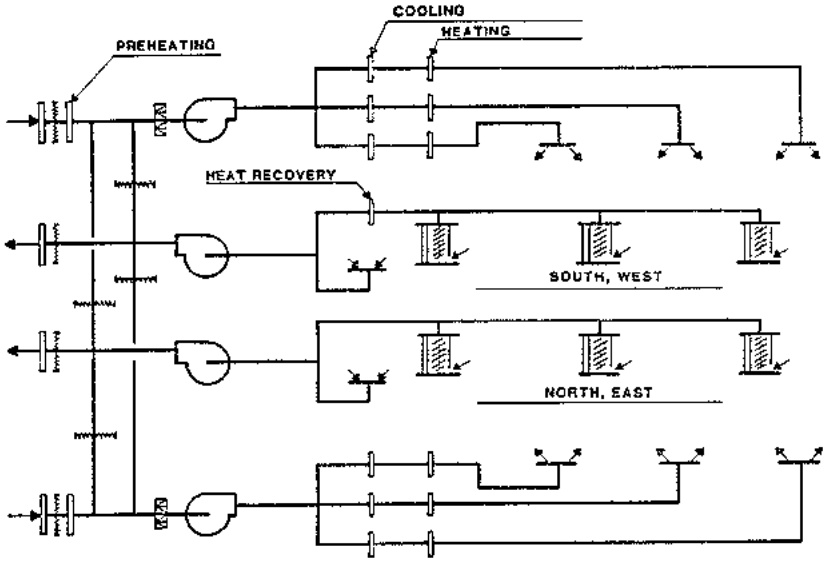
3) 공기의 흐름(Air Flow)
창을 통한 최소의 기류는 정풍양방식이나 변풍양방식을 위해서 쓰여지고 실내공기의 나머지는 Grill이나 때로는 조명기구를 통해서 HVAC 시스템으로 들어 간다.

4) 제어
HVAC/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정교한 제어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적성능을 얻기 위해 선결해야 할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남이나 서창으로부터의 환기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2) 북이나 동창으로부터의 환기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
(3) 열회수 시스템을 언제 작동시킬 것인가.
(4) 언제 축열할 것인가.
(5) 축열 또는 난방시스템으로 부터의 열은 언제 취할 것인가.
(6) 남이나 서창으로 부터 공기를 언제 배기시킬 것인가.
(7) 급탕수는 언제 예열할 것인가.
(8) Economizer 기능의 사용

5) 축열
공기식 집열창은 많은 열을 생산해내기



〈그림-7〉 Mvltizone Constant Volume System과 공기식 집열창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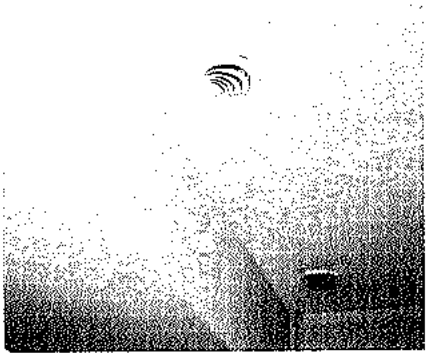
〈그림-8〉 Multizone Constant Volume System과 공기식 집열창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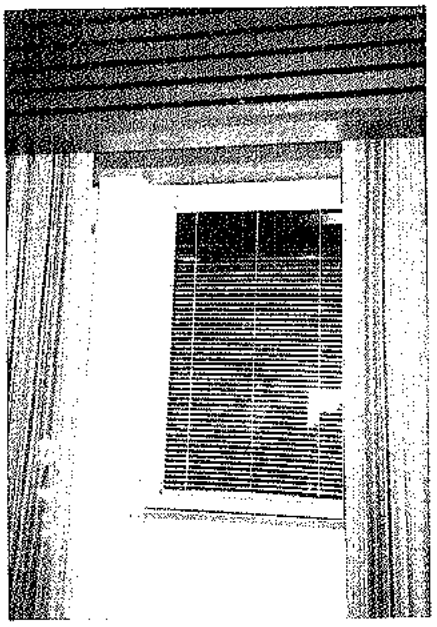
때문에 모든 잠재적인 이점을 고려할 수 있다면 축열이 필수적이다.
축열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구조(Mass)
(2) 수축열
(3) 염축열
(4) Bedrock 축열

5. 공기식 집열창 성능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1) 컴퓨터 프로그램

에너지 해석에 흔히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건물전체의 에너지 밸런스에 있어서 창문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성능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 및 공기식 집열창의 열적 계산을 위한 더 정교한 모듈이 개발되어 왔다. Wisconsin 대학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 프로그램(TRNSYS)에 근거하여 창의 에너지 밸런스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상용건물에 적용되어 왔다. 즉, 새롭고 더 정교한 일반창 모듈뿐만 아니라 공기식 집열창 모듈이 TRNSYS에 추가되었다. 이 수정판은 TRNSYS-E라고 불린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른 종류의 창을 가진 건물의 난방부하와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서 가장 유리한 대안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 TRNSYS 시뮬레이션에서는 창의 에너지 밸런스가 3부분(그림 9)으로 나뉘어져 있다.
(1) 실내공기와 창 사이의 열이동
(2) 실내로의 일사 사입
(3) 공기식 집열 창으로 부터의 공기온도
단유리, 이중유리, 삼중유리 또는 사중 유리로 된 창을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창유리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베니치안 · 블라인드가 유리 사이의 공간에 위치할 수도 있다.
TRNSYS-E 프로그램은 아래 항목에 대한 시간별 계산을 한다.
(1) 관류손실의 절약양
(2) 회수되는 태양에너지
(3) 감소된 태양열 취득
(4) 평균복사온도(MRT) 및 에너지 소비에 대한 효과
(5) 자연채광의 이용
창의 총경제성을 계산할 때는 창에


창가까이에 설치된 Diffuser를 보여줌


공기식 집열창을 내부에서 본 전체 모양임.

(표－1) HVAC시스템과 공기식 집열창의 장점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장 점	Single Zone	VAV	Multi-Zone	Trminal Reheat	Induction	Dual Duct
난방기기용량감소	1	1	1	1	1	1
난방에너지소비 감소	1	1	1	1	1	1
냉방기기용량 감소	1	1	1	1	1	1
냉방에너지소비 감소	1	1	1	1	1	1
조명용량 감소(남측)	1	1	1	1	1	1
조명에너지소비 감소	1	1	1	1	1	1
건물내 유입기류 감소	1	1	1	1	1	1
송풍기 동력 감소	1	1	1	1	1	1
태양열 집열	2	3	3	3	3	3
취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환기시스템에 혼합	1	1	1	1	1	1
－급탕 예열에 혼합	2	3	3	3	3	3
－신선공기예열에 혼합	2	3	3	3	3	3
－축열이 혼합	2	3	3	3	3	3
겨울철 서모스타트 설정온도 하향 가능	1	1	1	1	1	1
여름철 서모스타트 설정온도 상향 가능	1	1	1	1	1	1
쾌적성 증가	1	1	1	1	1	1
외부소음 감소	1	1	1	1	1	1

주) 1＝효율이 좋음.
2＝비교적 효율적임.
3＝독립된 환기시스템이 남측 및 서측창에 있을 때만 효율적임.

(표－2) 각지역의 기상조건

지 역	설계온도				도일		냉방시간
	겨울		여름 DB/WB		난방도일	냉방도일	
	℃	°F	℃	°F	°F Days	°F Days	H
Fort Worth, TX	－6	22	37/24	99/74	2405	2500	1742
Columbia, MO	－16	4	34/24	94/74	5046	1205	765
Madison, WI	－22	－7	31/23	88/73	7863	424	293

(표－3) 기본설계에 사용된 창의 열적 특성

	Fort Worth	Columbia	Madison
유리겹 수	1	2	2
평균주광 통과율	0.28	0.44	0.44
태양열 통과율	0.29	0.36	0.36
주광 반사율	0.07	0.07	0.07
U값, 여름 w/m² K (Btu/h·ft²·°F)	6.0(1.06)	3.2(0.56)	3.2(0.56)
U값, 겨울 w/m² K (Btu/h·ft²·°F)	5.6(0.99)	2.8(0.49)	2.8(0.49)

(표－4) 공기식 집열창시스템의 TRNSYS-E 시뮬레이션결과, 에너지소비 및 절약량

지 역	시 스 템	에너지소비			
		전기		연료	
		GJ	10^6 Btu	GJ	10^6 Btu
Fort Worth, TX	기본시스템	2350	2227	2251	2134
	공기식 집열창	2100	1990	949	900
	절약량	250	237	1302	1234
	절약비율(%)	11	11	58	58
Columbia, MO	기본시스템	2145	2033	3302	3130
	공기식 집열창	1991	1887	2503	2372
	절약량	154	146	797	758
	절약비율(%)	7	7	24	24
Madison, WI	기본 시스템	2005	1900	4570	4331
	공기식 집열창	1885	1787	3540	3355
	절약량	120	113	1030	976
	절약비율(%)	6	6	23	23

외한 에너지소모 뿐만 아니라 주광 이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광 효과는 창을 통과하는 가시광선의 양에 좌우됨과 아울러 인공조명이 자동제어 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된다.

실내기온에 대한 설정한계를 선택할 때 창의 중요성은 분명해진다. 특히 창의 복사온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철은 더욱 그러하다. 즉, 창의 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실내기온은 겨울에는 더 상승시키고 여름에는 더 하락시켜야 한다. 이와같이 실내 온도의 설정점이 선정된다. 실내 기온이 이들 두 값 사이(dead band)에 있을 때는 신선공기의 가열과 냉각을 위해서만 에너지가 소비된다.

기본적으로 dead band의 폭은 창의 열적 특성에 좌우되는데 공기식 집열창으로 하면 그 dead band는 보통의 단창이나 이중창보다 더 넓다. (그림10)

2) 표본 컴퓨터 계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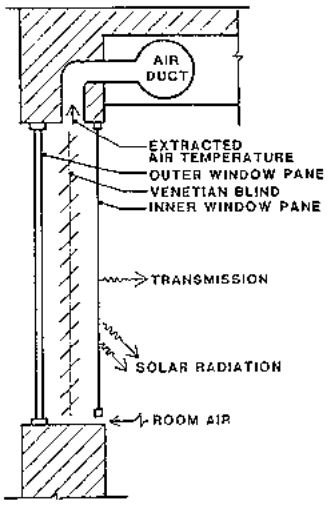
미국의 3개지역 즉, Fort Worth, TX, Columbia, MO 및 Madison, WI에 대해 공기식 집열창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TRNSYS-E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표－2는 각 지역의 기후조건을 나타낸다. 선택된 건물은 6층으로 각층 바닥면적이 1,363m² (47m×29m)이며 계산에 사용된 총 바닥면적은 8,178m²이었다. 건물의 장축이 동·서로 되어 있고 창은 연속으로 건물을 돌아가며 1.65m의 띠를 이루고 있다. 총창면적은 3,877m²이다.

Madison과 Columbia에서의 기본설계에 나타난 창은 1/2inch 공기층을 갖는 이중유리창으로서 청동색이며 Fort Worth는 그 기후때문에 단유리의 은빛 색 유리를 기본으로 했다. 기본 유리창의 열적 성질은 표－3에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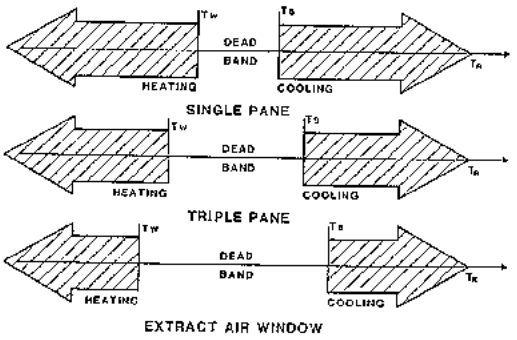
지붕의 U값은 0.088Btu/h·ft²·°F(0.5 w/m²·K)이고 Fort Worth의 벽은 0.12Btu/h·ft²·°F(0.66w/m²·K), Columbia 0.18Btu/h·ft²·°F(1.0w/m²·K) 및 Madison은 0.11Btu/h·ft²·°F(0.65 w/m²·K)이다.

이들 값은 각지역의 표준값이다.

건물은 VAV 시스템으로 공조되고 최소 신선공기 투입은 20,340cfm(9.6m³)



〈그림－9〉 공기식 집열창의 에너지 밸런스



〈그림－10〉 Dead Band와 창의 관계

(표－5)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의 TRNSYS-E 시뮬레이션결과, 기기용량의 감소

지 역	시 스 템	냉방기용량		난방기용량		급 기	
		KW	Ton	KW	10^6 Btu/hr	m^3/s	cfm
Fort Worth, TX	기본시스템	800	227	670	2.29	37.3	79,000
	공기식 집열창	700	199	621	2.12	29.5	62,500
	절약량	100	28	49	0.17	7.8	16,500
	절약비율(%)	13	13	7	7	21	21
Columbia, MO	기본시스템	653	186	782	2.67	32.0	67,800
	공기식 집열창	562	160	730	2.49	27.8	58,900
	절약량	91	26	52	0.18	4.2	8,900
	절약비율(%)	14	14	7	13	13	13
Madison, MI	기본시스템	563	160	930	3.17	29.4	62,300
	공기식 집열창	546	155	750	2.56	26.0	55,000
	절약량	17	5	180	0.61	3.4	7,300
	절약비율(%)	3	3	19	19	12	12

이었다. 또 휠러의 계절성능계수는 2.2로 가정되었으며 설치된 조명전력은 2.3w/ft² (25w/m²)이었다.
분석결과 에너지 소비량과 기기용량의 절약절감은 세 지역 모두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TRNSYS-E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4와 표－5에 나와 있다.

6. 결론

공기식 집열창은 에너지 효율적인 창과 태양열 집열기의 조합이다. 이러한 공기식 집열창을 갖는 건물들이 여러 유럽국가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며 미국에서도 중요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에도 공기식 집열창을 사용하는 여러 건물들이 건축가나 엔지니어들의 설계대 위에 놓여져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두 개의 출처 즉, 건물주들의 보고와 실제건물 성능의 컴퓨터 해석으로부터 이 공기식 집열창이 창 문제에 대한 가장 경제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입증이 되어 왔고 또 계속 입증이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종류의 창과 비교를 해도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가장 쾌적한 실내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공기식 집열창은 초기투자가 관련되는 한 훨씬 더 많은 투자비가 드는 것은 사실이나 대형건물에 적용했을 경우의 총 수명기간의 비용분석을 해 보면 크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은 모든 창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즉, 차겁거나 뜨거운 유리면이 없게 하고 내부의 냉기나 열기의 방사를 없애고 외피의 열손실을 줄여주며 불필요한 태양열 사입을 줄여준다. 또한 채색 유리창이나 반사유리창에 비해 더 많은 주광을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태양열에 대해서는 태양열 집열기 역할을 한다. 공기식 집열창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그 자체로서의 독립된 창은 아니다. 다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독립적으로 각각 독특하게 적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을 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Gabrielsson, J. 1977. "Extract Air Window, A Key to Better Heat Economy in Buildings," 10th World Energy Conference, Istanbul, Turkey.
2) Seppanen, O. 1981. "Windows as Cost Effective Solar Collectors," American Section of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 Sixth International Passive Solar Conference, Portland, OR.
3) Lawrence Berkeley Laboratory 1981. "Evaluation of Air Flow Windows, Final Repor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alifornia.
4)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1977. "Performance of Extract Air Windows, Final Report, "Helsinki, Finland(in Finnish).
5) Punttila, A. and Enbom, S. 1983. "Heat Transfer Calculations of Different Types of Window Systems," Th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Use of Computers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Related to Buildings, Tokyo, Japan.
6) ASHRAE, 1981. ASHRAE Handbook--1981 Fundamentals Volume, Chapters 24 and 28, Atlanta;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7) Sweets Catalog File 1983. Vol. 3, part 8.16:"EKONO Air Curtain Window," New York:McGraw-Hill Information Systems.
8) Aitken, D. 1981. "The Use of Air Flow Windows and Blinds for Building Thermal Control and for Solar-Assisted Heating, Cooling and Lighting," American Section of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 Sixth International Passive Solar Conference, Portland, OR.
9) Gefwert, M. and Sodergren, O. 1981. "Annual Energy Loss Through a Ventilated Window," Swedish Council for Building Research, Document D1:1981, Stockholm, Sweden.
10) Enbom, S. 1977. "Solar Energy Recovery with Extract Air Window System,"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Helsinki, Finland(in Finnish).

사진으로 보는 싱가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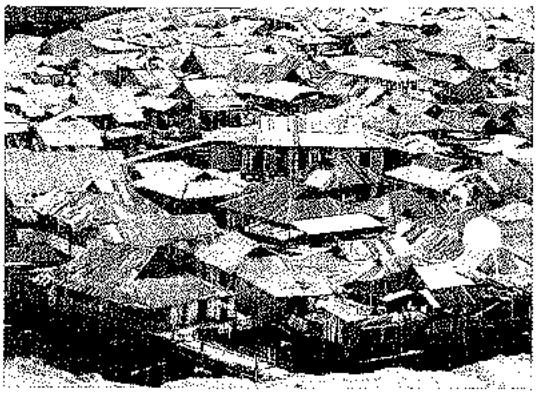
공동주택과 단지설계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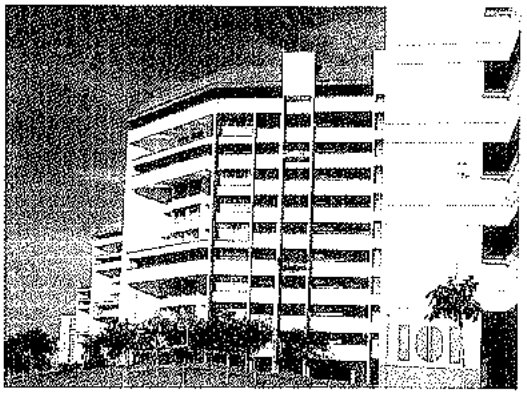
City of Singapore (as seen) in Pictures

by Lee, Phil Won

〈사진 1〉 싱가폴은 공공아파트의 세계적인 실험실로 불리우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할 뿐 아니라 보기좋은 아파트와 단지설계를 개발하고 있다.



〈사진 2〉 식민지 당시의 재래식 주택가로서 노후하고 불량하여 비위생적인것이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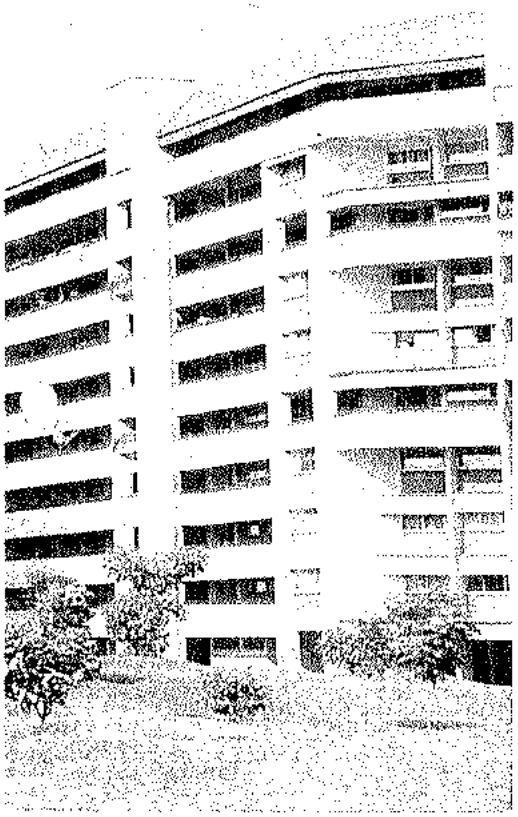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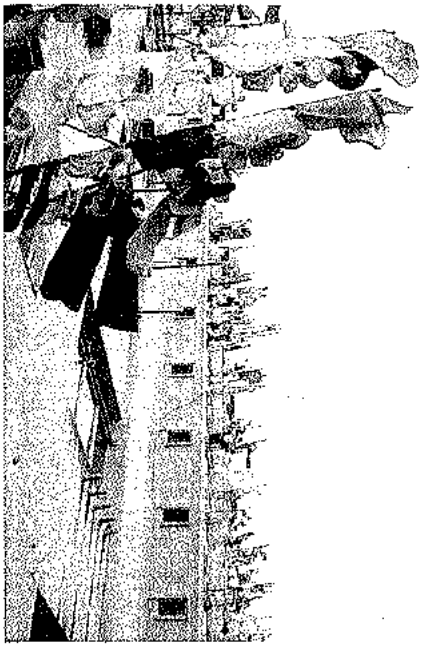
〈사진 3〉 근래에 건설되는 공공아파트의 모습으로서 지난 28년간 정부의 과감한 노력의 결과, 괄목하게 주거수준이 향상됨으로서, 주택문제는 이제는 졸업생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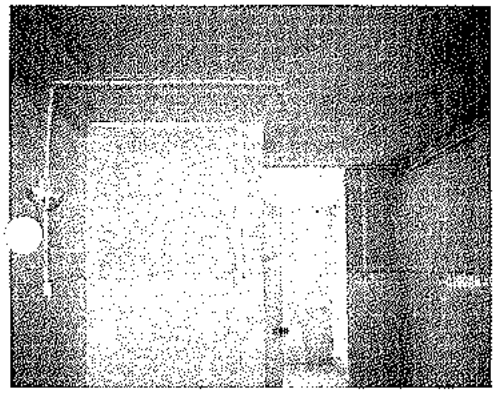
이필원 /
건설부 기술지도과장

〈사진 5〉 주택의 실례로서 사진과 같이 발코니를 설치하는 대신에 부엌외부에 사진과 같은 빨래 빨래꽂이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주의의 국민성을 나타내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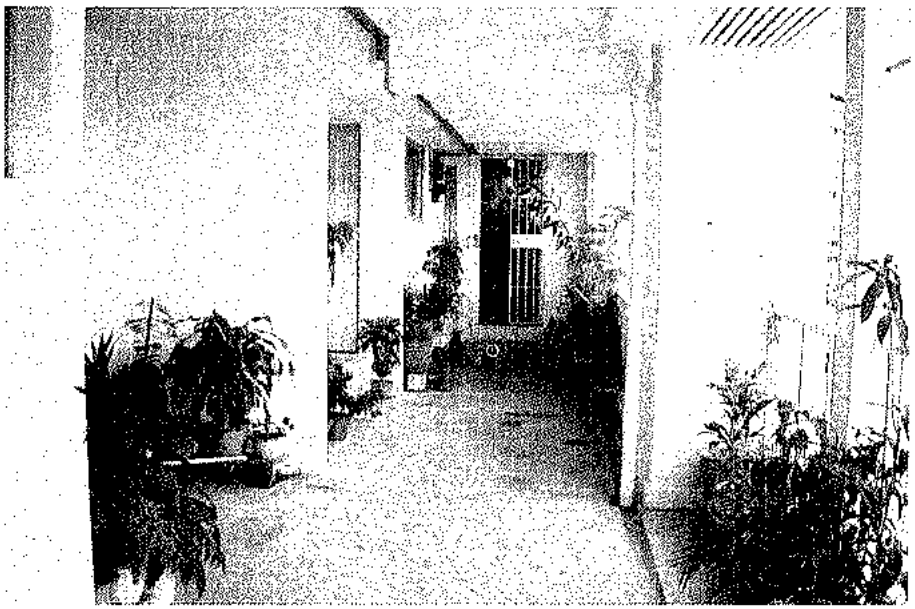
〈사진 6〉 아파트설계의 특징의 하나는 복도의 넓이가 좁아서 서로 공동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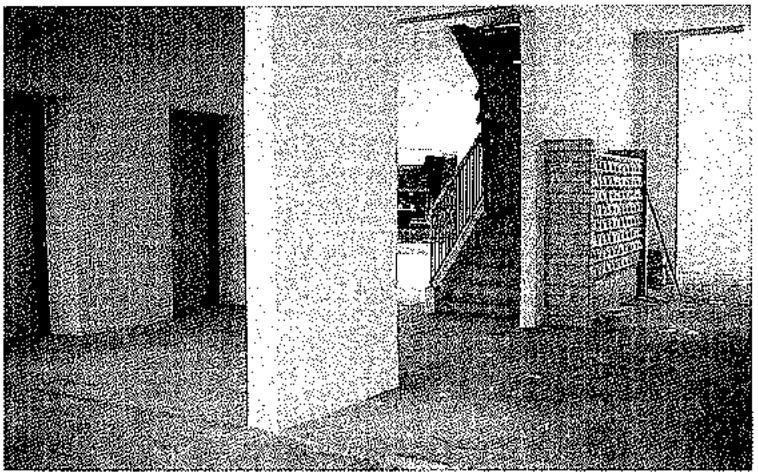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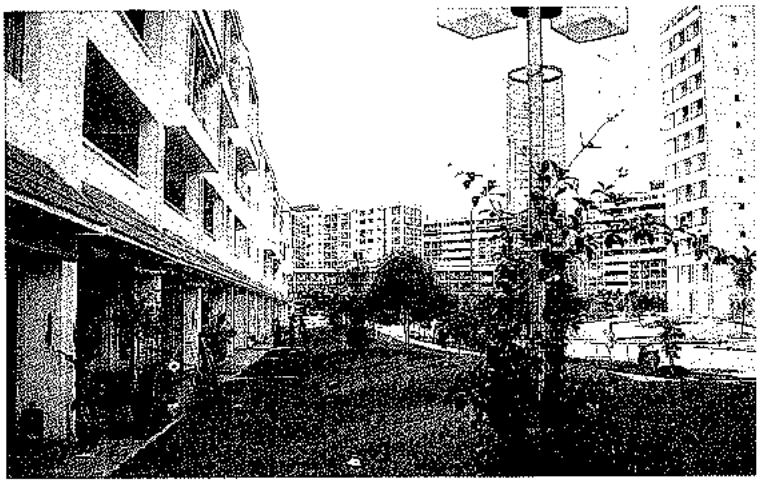
〈사진 4〉 정부아파트의 검소한 내부모습 (부엌) 앞에서 본 화려한 외관과 조경등 공용부문에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반면, 내부는 아주 검소하게 꾸미고 산다.



〈사진 7〉 근래에는 우리나라의 골목길의 개념과 같이 복도에서 이웃끼리 만나고, 어린이도 놀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구조도 다양하게 하였다.

〈사진 8〉 아파트설계에서 또 하나는 일층부분을 개방하여 통행, 통풍이 원활하게 함은 물론 개방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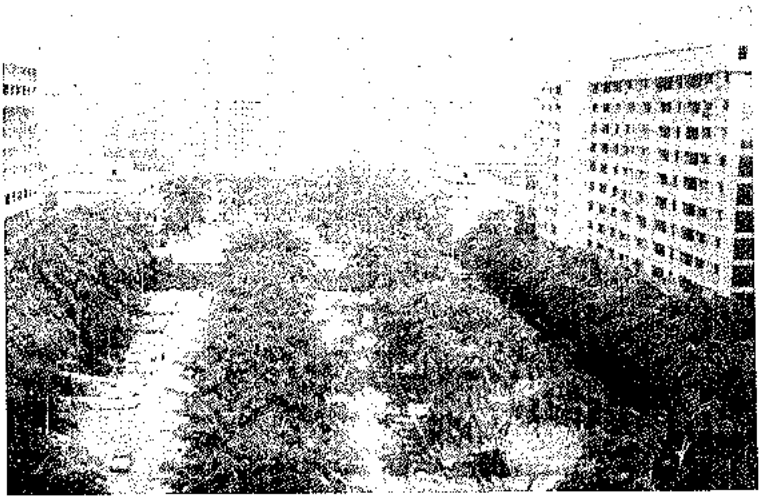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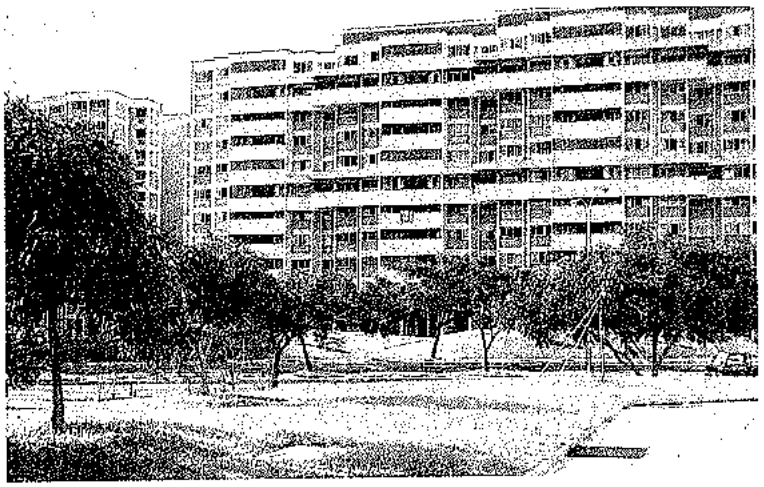
〈사진10〉 아파트 단지설계에 있어 조경도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도로와 아파트사이의 공지를 성토를 하고 식수 및 잔디를 입혀서 소음 차단과 아울러 조경효과를 높이고 있다.

〈사진11〉 녹지내 보도를 우리와는 달리 곡선으로 포설함으로서 자연지형과 순응되게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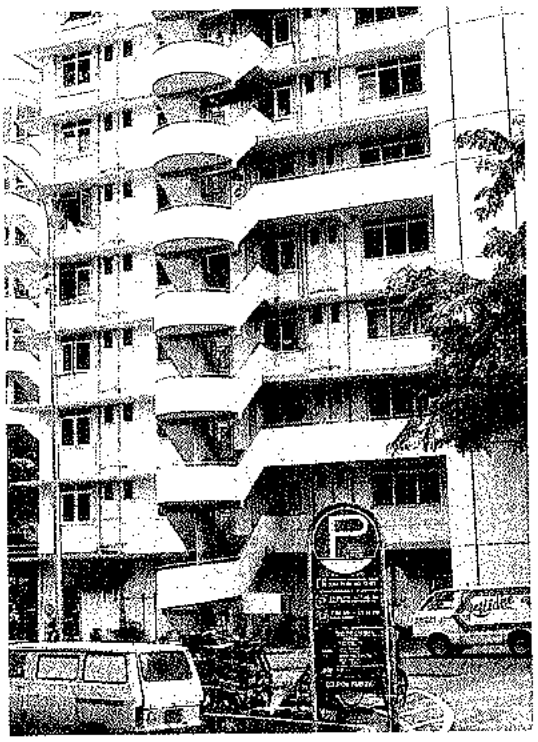
〈사진12〉 아파트단지 설계에 있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것은 우리와 동일하나 그 녹화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진과 같이 일정기준 이상의 수목을 심도록 함으로서, 아스팔트 일색의 비인간화를 어느정도 방지하고 있음은 물론 자동차에 대한 차양역활도 하고 있다.



〈사진13〉 주차장의 포장재료도 아스팔트 일색으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블럭을 사용하여 시각적 단조로움을 없애고 배수면에서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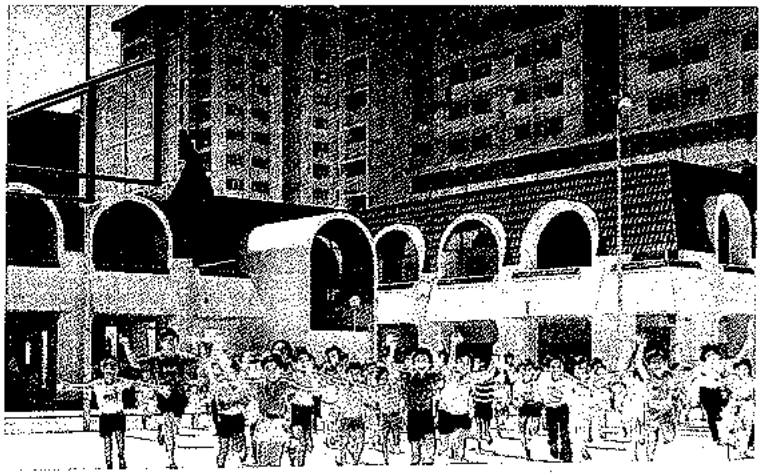


〈사진15〉 아파트단지 설계와 관련하여 조경상 작은 언덕, 가로등의 녹화등이 특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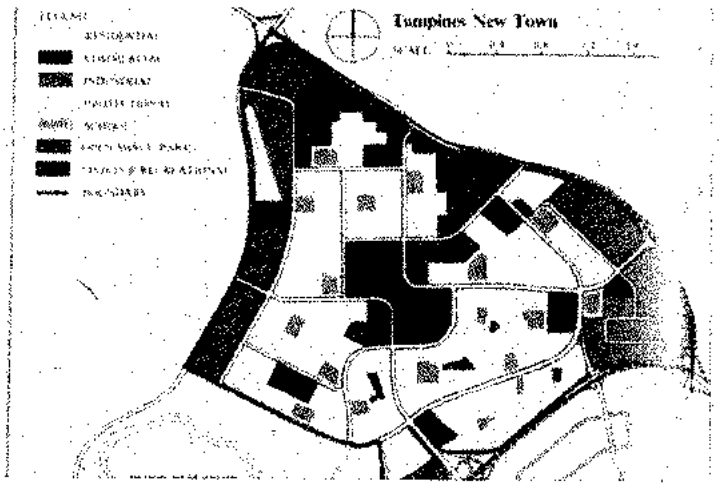


〈사진14〉 주차장과 관련하여 공공아파트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림과 같이 유료로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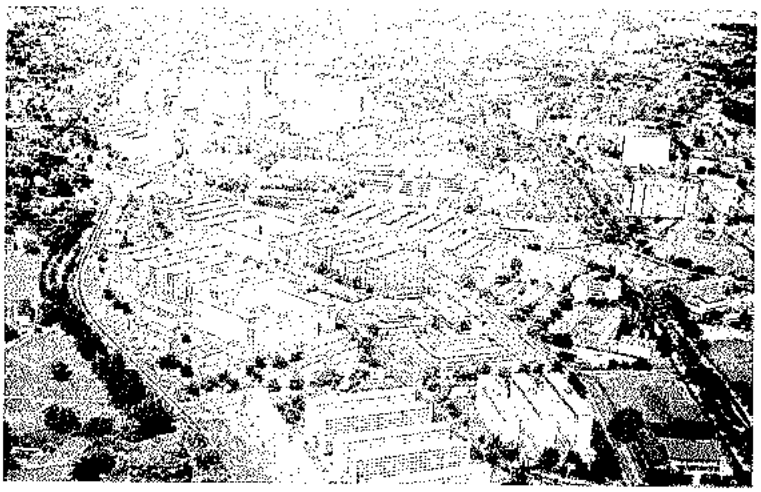
〈사진16〉 아파트단지 설계시에는 쓰레기처리집결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사진17〉 아파트단지에는 우리와 달리 그림과 같은 또한 주민회관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며, 인종화합과 계층혼합의 실천도장으로 적극활용하고 또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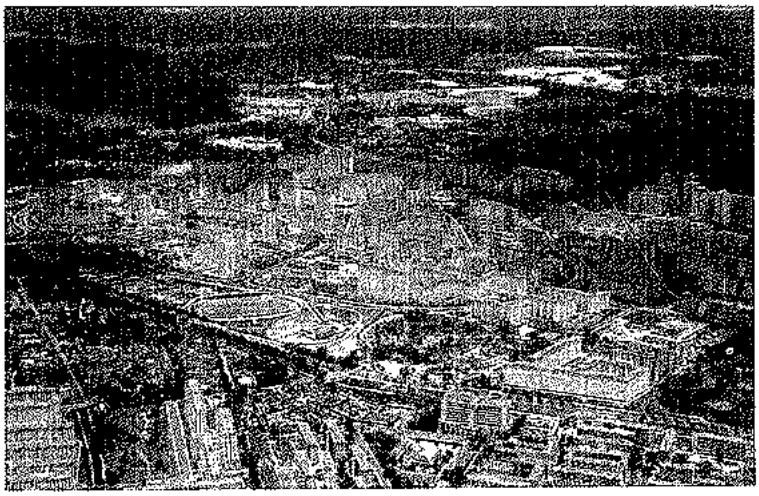


〈사진18〉 NEW TOWN의 단지설계 우선 토지이용 계획으로서 청색부분 청색부분중 가운데 큰 것이 도심중심, 작은것이 주구중심이 되겠으며, 주홍색은 주거지역, 녹색은 공원이 되며, 이외에도 아파트단지에는 반드시 공업지역을 둠으로서 직주근접이 되도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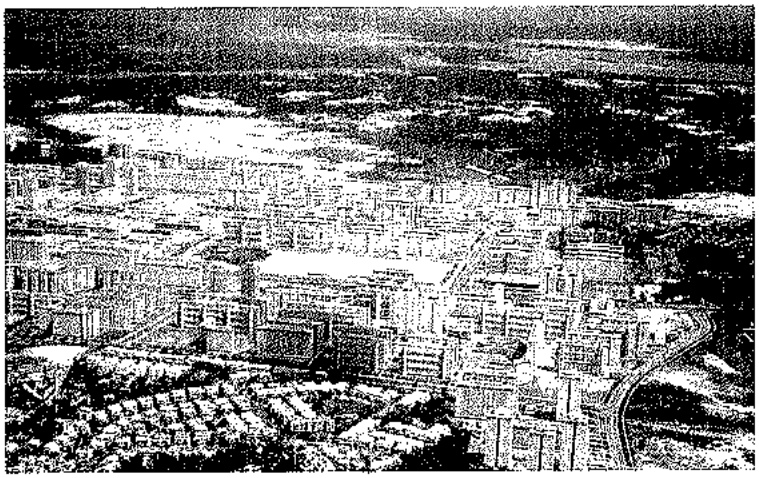


〈사진19〉 싱가폴의 NEW TOWN의 변천과정.
사진은 1950년대 독립직전에 건설한 최초의 NEW TOWN이라 할수 있는 QUEENS TOWN으로서 마치 우리가 1970년 중반에 최초로 건설한 잠실단지와 흡사하다. 처음 양국이 비슷한 출발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사진20〉 60년-70년대 초에 건설한 NEW TOWN의 모습으로서 약간의 발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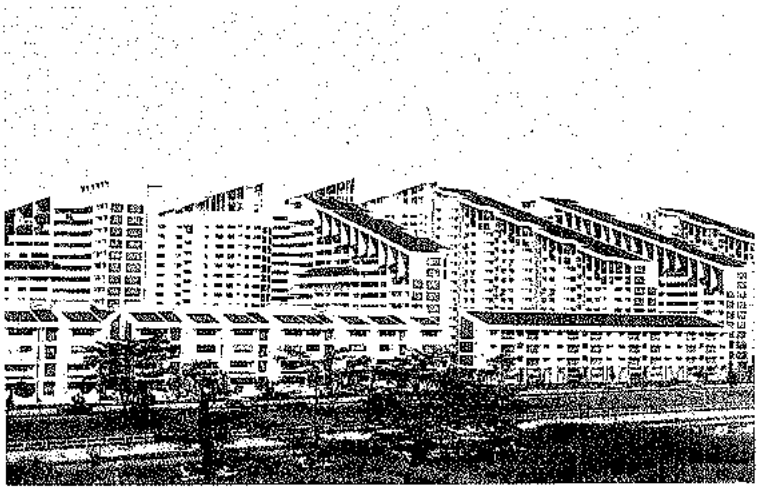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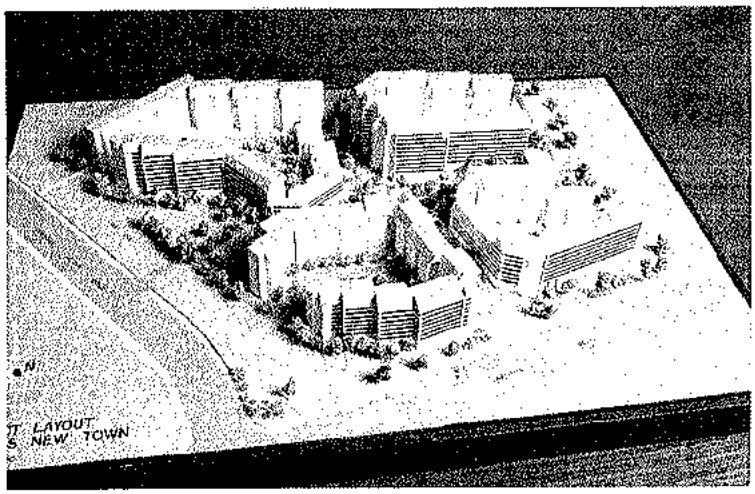
〈사진21〉 70년대의 NEW TOWN으로서 TOWER BLOCK의 도입등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혼합배치, 고층부와 저층부혼합, 아파트외관의 다양화 시도등도 좀더 개선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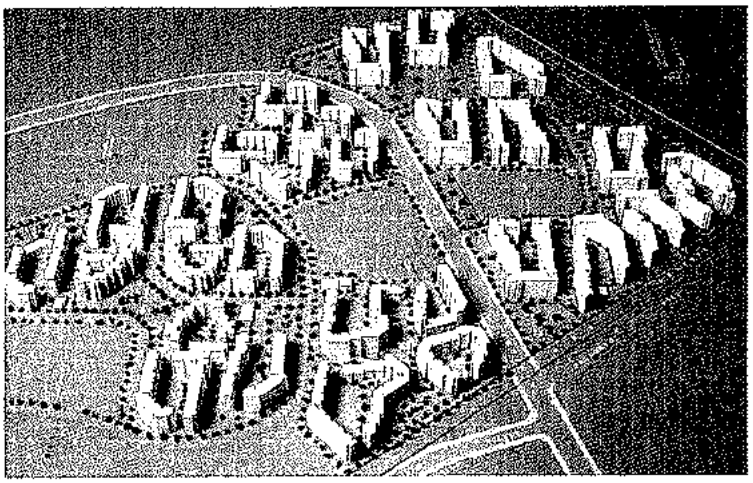
〈사진22〉 〈사진21〉의 NEW TOWN을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

〈사진23〉 70년대말 80년대초에 건설된 New Town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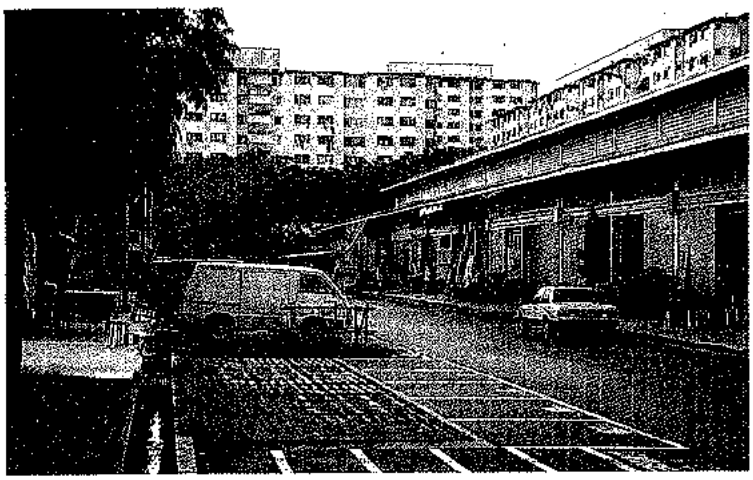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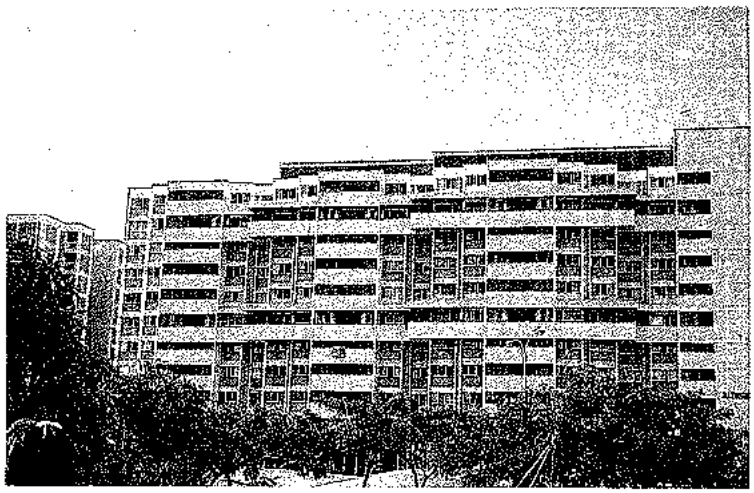
〈사진24〉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단지의 계획단위 즉, Planning Unit는 그림과 같은 PRECINT 로서 400세대정도의 4개동의 아파트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반경은 약300m가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시공의 마당을 중심으로한 동네의 형성의 원리와 흡사하다고 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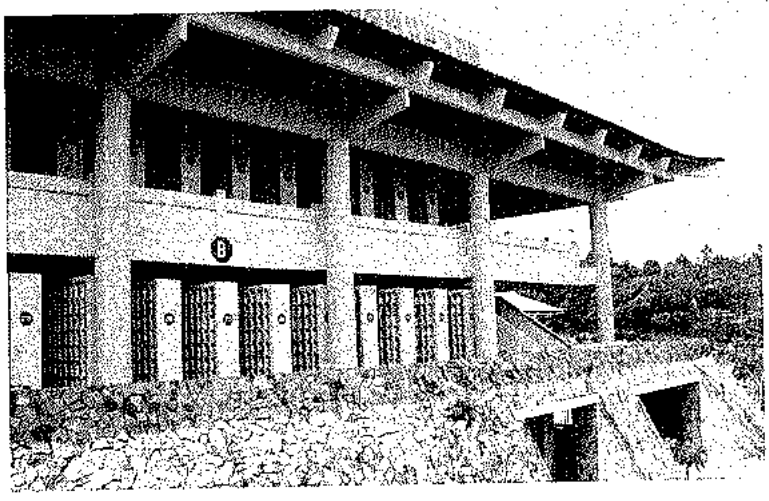
〈사진25〉 〈사진24〉의 계획단위 PRECINT를 조합하여 단지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26〉 앞에서 아파트단지의 설계상 특징으로 직주근접을 위한 공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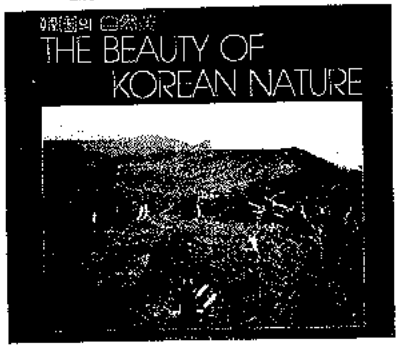
〈사진27〉 아파트형 공장의 모습.



〈사진28〉 싱가폴에서 죽은 사람의 주택문제해결과 국토의 절약적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분묘대신 화장을 위하여 사진과 같은 화장장 및 납골당을 대대적으로 건설 분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토개공의 사업의 일환으로 납골당용지의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간안내〉

「한국의 자연미」



강원도지부소속 최병욱 회원(공간건축사사무소)이 「한국의 자연미」라는 산을 주제로 한 사진집을 발간하였다.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에게는 1만 2천원으로 할인, 우대해 드린다고하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 택 : 춘천시 효자동 607－8 · 전화 : (0361) 2－4957
사무실 : 춘천시 조양동 37－8 공간건축사 사무소.
전화 : (0361) 2－6270 · 52－3777
● 송금구좌 : 전국우체국 대체구좌 200022－31－9530197

협회소식

회장 이취임식 거행

취임 인사를 하는 안기태 회장

11월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오응석 전임 회장과 안기태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이 거행 되었다. 신구임원 및 본부 직원, 서울지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이취임식은 이임하는 오응석 회장에 대한 석별의 정과 취임하는 안기태 회장에 대한 환영의 정 교차하는 가운데 무겁고 엄숙하게 거행 되었다.

오응석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대내적으로는 한국의 건축계를 대표하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라났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우리 협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 후 〈그러기 위해서는 밖으로 눈을 돌려 시야를 넓혀서 넓게 멀리 내다보고 진로를 모색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또 〈행정부나 각 사회단체, 건축인 아닌 사람 까지도 우리 협회가 앞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려면 〈밤잠을 안자고 연구를 해서 전문인으로서의 건축사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발은 현실에 붙이고 머리는 이상을 향해서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또 오응석 회장은 재임시 〈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협회를 활성화 하고 원동력화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했었다〉고 회상하면서 〈특히 법규위원회에서는, 건축사법과 건축법은 물론 저작권법, 예산회계법까지 범위를 넓혀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선점을 찾아내여 과감히 관련부처에 개정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신임 안기태 회장은 〈오응석 회장을 비롯, 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역대회장을 비롯 많은 분들이 다져놓은 바탕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인사를 한 후 〈새로 출범하는 임원의 진용이 확고한 신념에 찬 분들로 이루어져 협회발전을 확신한다〉며 〈직원 여러분도 직장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이취임사가 끝난 다음 오응석 회장은 안기태 회장에게 건축사협회기를 전수 하였으며 임기만료 임원과 협회발전에 공이 큰 임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 이취임식은 안기태 회장이 오응석 회장에게 공로패 전달하는 순서를 끝으로 약40분 만에 끝났다.

'86년도 정기감사 실시

본협회 류근열 감사와 정효환 감사가 10월 7 일부터 8 일, 10일, 13일, 14일의 5 일간 본협회에 대한 연례정기감사를 실시 하였다. 류근열 감사가 경리감사를, 정효환 감사가 사무감사를 담당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는 10월30일 제21회 정기총회석상에서 보고 되었는데 감사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업무사항(총평)

• 협회 업무 전반사항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하겠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확고한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게끔 직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요구됨.

• 각종 위원회의 업무추진 내용에 관하여는 자체 연구등 추진 사항에 있어 뚜렷한 성과가 있는 위원회가 있음은 위원회 본래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으나 거두지 못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연구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협회 운영계획 규정 제12조에 의한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단 정하여진 계획이나 규정등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 인력이나 예산의 절감을 기할수 있도록 확고부동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가. 시정사항

1) 공통 사항

• 회의록 작성에 있어 작성 방법이 많이 시정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위원회의 회의록이 충분히 작성이 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된 사항으로 앞으로 회의록 작성시 발언자와 그 발언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2) 본 부

• 86년도 사업계획중 건축기술 정보 자료실 운영에 관하여는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정보 자료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회원에게 널리 홍보토록하여 건축에 관한 각종 정보및 자료등을 회원이 활용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건축 기술 정보 자료실 운영이 되도록 할 것.

• 기술부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있어 일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이 아직도 미비한 점은 소관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3) 지부(공통)

• 분소 업무에 있어 직원의 이동이 잦아 이로 인하여 실적회비 산출에 대한 업무미숙지로 인한 실적회비를 과다, 과소계상한 사례가 있는바 그 액수는 미비하다 하나 관계 직원에 대한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것.

• 설계 도서 검토 업무에 있어 검토 신청된 설계도서 검토를 신중히 하여 위반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일부에서는 검토위원의 불출석, 형식적인 도서검토 및 검토업무를 이유로한 타지역 회원에 관한 배타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치 않도록 할 것.

나.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 건축사보 및 보조원에 관한 경력증명 발급 업무에 있어

협회소식

동업무를 소속지부에서 본인이 소지한 신상 기록카드로서 증명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건축사보 및 보조원에 대한 신상기록카드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회원 업무중 실적회비 산출에 기초가 되는 총공사비 요율적용을 위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의 직선보간 내용을 현행 보다 단위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동 업무에 정확과 원활을 기할수 있도록하여 주기 바람.

• 회원의 입회 및 재입회 업무에 관한 내용 파악에 있어 당해지부내에서의 변동 사항은 그 파악이 가능하다 하나 지부를 달리할시의 변동 사항은 파악이 난이 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실적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업무상 서로 호환성이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

다. 기타 참고 사항

86년도 정기감사를 대비한 지부 업무에 관한 감사는 앞서 감사 방법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부감사가 실시 하였으며, 당해 지부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지부에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것.

경리 업무 사항(총평)

금번 경리업무 감사는 지난 3월 임시총회를 대비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본부 세입 부분에 관하여는 제장부의 정리 상태와 수납 및 예치 사항이 회계 규정에 맞게끔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지출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진행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 지적 되었으며, 일부 지부는 세입부분에서 실적회비 산출시 적용방법의 미숙으로 추징 또는 환불하여야 할 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특히 분소가 있는 지부에서는 세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가. 시정 사항

1) 본 부

• 각종 위원회의 조사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사업의 내용과 연구비 소요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조사 연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조사 연구비를 청구, 영수 처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앞으로는 조사 연구비 지급에 관한 기준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조사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현재까지 연구조사 성과물이 제출되지 않는 위원회는 결산전에 성과물 또는 조사연구관련 서류를 갖추도록 시정조치할것.

•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등의, 교육행사에 있어 강사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예산 집행 계획상에는 30,000원으로 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50,000원 또는 70,000원으로 지출한 사항이 있으며, 또한 현상 공모 작품전 실시에 있어서의 작품 심사위원의 심사비 지급을 주관하는 위원회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한바 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심사료 및 강사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지부(공통, 분소 포함)

• 정회원 월정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하여는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등 월정회비 징수에 사전독려등의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는 장기미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실적회비를 징수함에 있어 기준 적용의 착오로 과다, 과소 징수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해당지부(분소)에서는 시정조치 할 것.

• 각 분소에서 지부로의 실적회비 송금시 각지역 은행 온라인 제도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송금료를 절약할 수 있으나 일부 분소에서는 아직도 우편환을 이용하여 송금료가 지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분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실적회비 및 감리비 예금통장에서 발생된 이자는 당연 잡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지부(분소)에서는 즉각 시정조치 할 것.

• 매월 지부로 부터 영달받는 분소운영비를 관리함에 있어 이는 분소장 명의로 관리 지출되어야 할 것이나 분소장 개인 명의로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감사보고를 하는 유근열 감사

나.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

• 본 협회 회계 규정 제73조에 의하면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하여 매년도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85년도에 5,000,000원 85년도에 5,799,697원을 계획하고 있는 바 세입 결함으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이 불가능 할 때를 대비하여 규정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각종 위원회 참석거마비 지출에 있어 지방회원중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재경위원과 같이 10,000원만 지급하고 있음은 불합리하므로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 기타 참고 사항

일반 업무사항과 같이 당해지부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지부에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것.

제10회 이사회 개최

본협회 제10회 이사회가 10월 6일 오응석 회장 주재하에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0개 부의 안건과 4개 협의사항이 협의

협회소식

되었는데 그 중 주요안건별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1회 정기총회 의제 / 제 1 호의안과 제 2 호 의안을 삭삭제하고 제 7 호 의안은 의제에 넣지 않고 부의사항 전에 넣기로 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승인

●'87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예산방침 협의를 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결의

●'87특별회계수지예산(안) / 원안대로 승인

●건축사연금규정 / 사망시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고 제도위원회에 위임, 원안을 작성하여 회장이 검토 결정하도록 위임하기로 결의.

●추대회원 추대 / 원안대로 승인.

●공로회원 표창 / 제주지부 지부장 및 지부20년사 편찬 위원에게 수여토록 하되 지부장을 제외한 편찬위원 공로패 제작비는 지부예산으로 충당케 함. 건설부 관계자 표창은 감사패와 부상을 수여키로 함. 건물에너지분과 위원회 위원과 정화대책위원회 위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키로 함.

●모범직원표창 / 원안대로 승인.

●직원정년연장 / 원안대로 승인.

●독립예산제도 연구보고서 총회보고 / 독립예산제도연구 보고서를 총회에 보고자료로 제출키로 협의.

●광주직할시지부 설립 / 광주지부 설립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협의.

전국시도지부 지부총회 개최

전국시도지부 정기총회가 11월18일부터 제주도지부를 시작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부장을 비롯 임기 만료된 간사·감사 등 임원 개선이 있을 예정이며 지부별 총회개최 일자는 다음과 같다.

지부별 총회 개최일정 및 참석임원

지부별	일 시		장 소	참 석 임 원
제 주	11. 18(화)	15 : 00	로얄호텔 2층 회의실	회장, 박영익
충 남	11. 18(화)	10 : 00	대전중앙관광호텔	부회장, 정효환, 송기덕
부 산	11. 20(목)	10 : 30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회장, 안장원, 윤 옥
충 북	11. 20(목)	10 : 00	지 부 회 의 실	부회장, 류근열
강 원	11. 21(금)	10 : 30	춘천 어린이회관	부회장, 이영일
경 북	11. 21(금)	11 : 30	점촌시 나하나예식장	회장, 안장원
인 천	11. 24(월)	10 : 00	지 부 회 의 실	회장, 전임원
대 구	11. 25(화)	10 : 00	건 축 사 회 관	회장, 황재효, 조춘원, 윤 옥
경 기	11. 26(수)	10 : 00	수원 브라운관광호텔	부회장, 박영익, 재경임원
전 남	11. 26(수)	10 : 30	건 축 사 회 관	회장, 이문우
광 주	11. 26(수)	15 : 00	건 축 사 회 관	회장, 이문우
경 남	11. 27(목)	10 : 30	마산 크리스탈호텔	회장, 황재효, 윤 옥
서 울	11. 28(금)	14 : 00	본 협 회 강 당	전임원
전 북	11. 28(금)	10 : 00	속리산관광호텔	

독립예산제도 요약보고

연합회연구위원회(위원장 유경철)는 10월30일 제21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독립예산제도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보고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시기

본협회에서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회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5년 제도위원회 내에 연합회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합회제도 도입과 그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면서 현실성, 합리성, 합목적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진지하게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독립예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정관 및 제규정의 개정, 지부총회 및 본부 총회의 기능과 그 소집 시기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아 '87년 내에 동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리 완결하고 '88년 이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음.

●예산구성

-본부 : 월정회비로 운영하되 월정회비 금액의 결정여하에 따라 추대회원의 일 부부담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지부 : 실적회비로 운영하되 최고 기준은 1.5% 이하로 예상하고 지부 실정에 맞추어 결정.

-타도지부 실적회비 징수율 : 전국 공히 1%로 하는 방법과 각 지부별로 정한 실적회비 징수율에 따르는 방법이 있으며, 전국공히 1%로 할 경우 취약지부 부담금이 고려되어야 함.

●절차

• 88년 1월1일 시행의 경우

-정관 및 제규정 개정 : 87년 3월(임시총회)

-지부총회 : 87년 10월

-본부총회 : 87년 11월

• 예산의 확정

-지부총회는 지침에 의한 지부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결의하고 본부총회에 보고(승인)

●장단점 비교

• 장점 : 각시도지부 활성화

• 예산의 절감 및 효율화

• 회원복지증진 및 친목유대 강화

• 단점 : 지역경쟁 유발

지부별 실적회비 비율차 발생

본부 기능 약화

●기타

예산 및 정관개정 등 기초작업과 병행하여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

각시도지부의 자산관계는 독립예산제도로 전환시를 시점으로 지부 자산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간주

직원인사관계는 각시도지부의 국장은 본부에서 임명권을 가지되 부장급 이하는 각시도지부에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본 독립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1985년 연합회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간담회, 각시도 지부장 회의 및 이사회 등의 협의회를 거쳐 정리한 사항임

「건설기술관리법령안」의견 제출

본협회는 건설부가 건설기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건설기술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안을 제정한데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0월10일에는 원 협의회를, 10월15일에는 건축 위원회를, 10월21일에는 법규 위원회를 개최, 그 결과를 본협회 의견으로 건설부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건설기술개발, 공사설계타당성, 시공기술적정성 등 심의

나. 건설공사 설계심의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 의무화

다. 건설공사 시공감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시공감리 의무화

라. 건설공사시공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협회소식

시공감리대상공사중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시공감리 전문회사에게 공사감독사항중 기술사항을 일체 위탁, 전면책임 감리실시

●협의 및 건의내용

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규정된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서 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건설공사시공 전문회사 설립시 시공감리자 구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 기존 종합건축사 사무소의 기능을 보완, 건설시공 감리를 전담토록 대책요구.

다. 새로운 건축기술의 도입, 연구개발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내에 설계기술정보센타 설립.

위법건축물시정통보서 서식송부

공사감리자가 당해 건축물의 공사 기간중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시정토록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에게 권고, 불응시에는 시장·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서식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본협회에서 서식을 제정, 9월8일 각시도지부에 송부하였다.

'86국민정신교육 이수

국민정신교육의 지속적 반복 실시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정치 사회 경제의 안정과 국가안보 기초를 공고화 하며 •국정기반의 정착과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한다는 3대 목표의 지향하에 9월 25일~9월 27일과 11월 13일~11월 15일의 2차에 걸쳐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 한 '86년도 국민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본협회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 20여명이 참석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중 이수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86 국민정신교육 교과목

구 분	과 목 명	시 간	강 사 명
교 양	○안 보	2	
	○북한 실정	2	최 송 식
	○경 제	2	이양교(교수)
	○'86, 88행사	1	비디오 교육
정신순화	○9대 덕목 해설	1	정연광(교수)
	○역사와 문화	2	
	○주인 정신	2	
	○질서의 생활화	2	
	○선진조국의 갈길	1	비디오 교육
세 미 나	○사회 정화	4	(야간교육) 정연광(교수)
기 타	○입교 및 안내	1	
계		20	

'86년도 건축사 합격자 발표

건설부는 10월14일, '86년도 건축사시험합격자 명단을 발표 하였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응시자 3천 1백54명중 1차 합격자는 1천6백 38명이었으며 최종합격자는 일반 전형에서 1백75명, 특별전형에서 78명, 계 2백53명이었다. 특별전형 78명 중에는 회원이 3명, 비회원이 76명으로 비회원에는 공무원이 73명 포함되었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2996	엄 정 원	2997	이 인 용	2998	변 중 석	2999	한 성 동	3000	이 병 길	3001	김 형 준
3002	노 동 진	3003	한 익 선	3004	정 현 영	3005	채 완 석	3006	권 택 부	3007	전 형 근
3008	이 상 표	3009	이 보 상	3010	이 주 택	3011	구 제 창	3012	문 창 호	3013	최 일
014	김 영 인	3015	오 재 한	3016	김 령	3017	문 상 기	3018	정 만 영	3019	김 유 철
3020	이 영 묘	3021	곽 경	3022	김 성 택	3023	김 효 만	3024	정 영 재	3025	성 용 택
3026	정 옥 기	3027	박 춘 근	3028	편 광 우	3029	윤 상 국	3030	구 본 근	3031	김 영 률
3032	이 종 신	3033	김 명 준	3034	조 용 훈	3035	김 동 섭	3036	곽 영 석	3037	이 재 일
3038	어 경 해	3039	강 호 규	3040	김 광 섭	3041	윤 기 준	3042	심 경 섭	3043	안 기 석
3044	김 정 기	3045	김 기 환	3046	양 추 국	3047	이 종 주	3048	김 홍 수	3049	이 종 해
3050	이 봉 연	3051	남 용 수	3052	김 성 수	3053	민 승 렬	3054	이 수 성	3055	김 광 성
3056	장 태 윤	3057	조 영 관	3058	이 진 삼	3059	이 정 회	3060	김 종 운	3061	김 인 환
3062	호 풍 기	3063	남 궁 진	3064	한 성 동	3065	정 용 호	3066	김 안 구	3067	유 성 열
3068	곽 재 환	3069	김 영 민	3070	이 을 재	3071	최 두 호	3072	한 득 현	3073	강 명 준
3074	김 호 경	3075	이 재 복	3076	전 성 철	3077	공 수 룡	3078	박 종 원	3079	우 선 오
3080	홍 승 표	3081	이 성 철	3082	김 동 찬	3083	안 명 제	3084	전 영 식	3085	강 강 철
3086	서 석 종	3087	이 판 표	3088	하 재 안	3089	채 두 병	3090	한 명 수	3091	이 지 호

협회소식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면허번호	성명
3092	이병선	3093	김광수	3094	신언학	3095	홍창균	3096	강태봉	3097	이방화
3098	정정일	3099	김규식	3100	강영섭	3101	박상용	3102	이종순	3103	이환인
3104	서진달	3105	심장보	3106	박승수	3107	김영섭	3108	이필훈	3109	한종률
3110	한덕호	3111	이양우	3112	김용수	3113	남기수	3114	박문철	3115	김준기
3116	하문종	3117	조원제	3118	이빈호	3119	이윤	3120	한복종	3121	강수남
3122	이홍기	3123	김일전	3124	박무홍	3125	유외석	3126	이태흡	3127	최종근
3128	조정덕	3129	김지탁	3130	정홍진	3131	오인규	3132	황석환	3133	최윤태
3134	정재운	3135	정해종	3136	장현찬	3137	차창석	3138	임창수	3139	라채근
3140	구선회	3141	서재원	3142	강영균	3143	도종탁	3144	권영해	3145	신동출
3146	박민용	3147	김교선	3148	서원필	3149	이현구	3150	이은섭	3151	양성환
3152	송인창	3153	안성찬	3154	강경구	3155	이길주	3156	김상겸	3157	신종수
3158	하성규	3159	김성하	3160	이상열	3161	한병진	3162	김성수	3163	박주성
3164	주석중	3165	문근	3166	김용주	3167	서재권	3168	최형식	3169	정해성
3170	최수안	3171	황대성	3172	조형준	3173	김두연	3174	송태천	3175	유상진
3176	안광우	3177	서진철	3178	전상훈	3179	김오성	3180	심의정	3181	신제홍
3182	김종철	3183	최중선	3184	전형철	3185	채홍락	3186	조인환	3187	이강주
3188	박명화	3189	정지민	3190	오재룡	3191	한상진	3192	박희수	3193	윤병규
3194	이일섭	3195	정홍근	3196	김청근	3197	서장원	3198	이문기	3199	이길수
3200	김재승	3201	김동환	3202	장익순	3203	박도상	3204	김영호	3205	민성기
3206	이영근	3207	하동철	3208	백성기	3209	이재홍	3210	황인홍	3211	이봉근
3212	석효일	3213	정성규	3214	강동섭	3215	하승본	3216	김현조	3217	황창병
3218	이진희	3219	현윤봉	3220	강경덕	3221	정재수	3222	김종보	3223	석진석
3224	이완진	3225	김복중	3226	장병호	3227	최홍섭	3228	김태영	3229	이종호
3230	이정욱	3231	김재홍	3232	권혁호	3233	원유택	3234	송윤섭	3235	이상목
3236	맹오영	3237	이광호	3238	최용달	3239	허춘식	3240	이진희	3241	박일영
3242	고기성	3243	김봉훈	3244	양동범	3245	김동선	3246	선병순	3247	고재량
3248	김영식									(계 253명)	

지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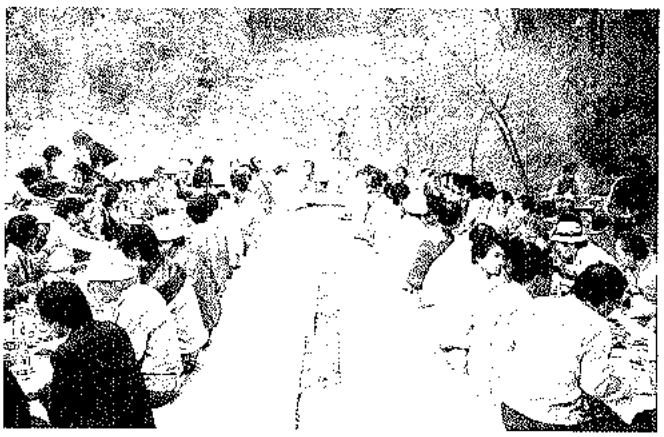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지부
(지부장 이춘상)

• 건축사체육대회 개최
10월 7일, 시내오류동 소재 서울럭비구장에서 4백여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친목도모를 위한 건축사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 강서분소팀이 우승을, 성동분소팀이 준우승을 하였으며 최우수선수상은 김기완(강서)회원이 차지하였다.

• 추계회원전적지 순례회
10월17일 다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소재 용문산(전적비 주변) 도립공원에서 회원전적지순례 및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 서울시관계관과 간담회
이춘상 지부장과 지부임원 일행은 11월 7일 서울시 건축관계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들러 서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86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관단체의 협조에 감사한다는 염보현 서울시장의 치하를 들었다. 염보현 시장은 또 '88올림픽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 국정과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는 당부도 하였다. 서울시건축관계관과의 간담은 서울시장 방문후 개최,

•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제도개선
• 지하 5 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굴토시 토질기술사의 설계도 제출시기 조정


회원친목단합대회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1대 미만은 절사토록 요망.
• 서울시 주차장 조례상 일정 규모의 비율을 옥외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개선토록 요망하는 등 네가지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협회소식

부산직할시지부
(지부장 황재효)

●건축관계관 초청간담회
9월12일 범일동 소재 국제관광 호텔 15층 회의실에서 지부임원, 역대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 및 각계장을 초치하고 건축관계관초청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부산직할시 지부와 행정관서간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베풀어진 이 간담회에서는 건축관계법규 및 건축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곁들여 박치권 전임 건축과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다.

●부산시 건축관계관 인사
그동안 부산시건축과장으로 재직해 오던 박치권 과장이 건축직으로서는 최초로 건설국장에 8월16일자로 소급 승진 발령, 건축 관계인들의 축하를 받았다.
후임에는 김성일 전임 주택과장이 발령되었다.

●회원취미활동 행사개최
월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는 회원 취미활동의 9월행사를 개최하였다. 사진부 동호회는 지부장외 회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9월6일부터 9월7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민속촌 일원에서 촬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골프 동호회는 9월3일 양산 통도사 칸트리 클럽에서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경기를 벌였다. 이날 골프 경기에서는 양정부 회원이 메달리스트상을, 이상도 회원이 우승을, 이상익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회원친목 단합대회
회원과 직원 등 97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23일 하동-쌍계사-불일폭포-구례 화엄사를 순회하는 회원친목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부산, 대판(大阪)건축사 교류 각서 승인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대판부(大阪府) 건축사회회장 小西 岬씨를 비롯, 부회장, 이사, 전무이사 등 6명이 11월11일 내한, 2박3일간 체류하면서 본부를 방문하고 부산·대판 건축사 교류 촉진에 관한 각서에 조인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마친뒤 11월13일 귀국 하였다. 11일 오후 지부 회의실에서 있은 건축사교류촉진 각서 조인식은 황재효 지부장의 환영사, 小西 岬 회장의 답사, 내빈 축사, 합의각서 조인 교환, 기념품 교환, 양측인사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2일에는 양산 통도사, 경주 불국사, 부산 해운대를 관광하였고 13일 오전에는 용두산과 UN군 묘지,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장 등을 돌아본 뒤 김해 공항발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부산·대판 건축사교류 촉진에 관한 각서의 조인은 본부와 대판부(大阪府) 건축사회 상호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회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 증진, •상호기술의 교류와 정보자료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각서가 조인·교환됨으로써 양회는 향후 •상호방문 시찰과 의견교환 •기술의 교류 및 간행물 등 정보자료 교환 •학술 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의 상호 참여 및 공동개최 •기타 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게 되었으며, 이상의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지명하여 상호 협조방안을 협의키로 하였다.

불일폭포에서 단합을 다진 회원일동(부산지부)

건축관계관 초청간담회(부산지부)

대구직할시지부
(지부장 황용주)

●농촌일손돕기
대구직할시 동구 신평동 소재 3천평의 논에서 회원과 직원 1백15명이 이른 아침부터 벼베기로 농촌일손을 도왔다.

●자연보호운동 실시
회원과 직원 등 72명이 불영사와 백암온천을 거쳐 대구로 오는동안 산속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하였다.
이날의 자연보호운동은 회원친목 대회를 겸하여 한층 뜻깊고 즐거웠다.

인천직할시지부
(지부장 고창영)

●방위성금 전달
고창영 지부장과 허 집 회원은 지부소속 회원을 대표하여 10월2일 박배근 인천직할시장을 방문하고 방위성금 1백만원을 전달하였다. 본성금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군경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회원이 솔선 발의, 거출한 성금이다.

●건축분야 부조리척결 대책교육
회원 전원이 인천직할시 제2 회의실에서 시(市)가 실시하는 '86년도 건축분야 부조리척결대책 및 건축행정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은 송영길 건축과장이 담당하였으며, •건축분야 부조리 척결대책 •의식개혁 및 윤리관 함양 •건축사 직무교육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등이

협회소식

주내용을 이루었다.

●판문점 시찰
회원 41명이 10월13일 부터 15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회원친목단합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 기간중 판문점 방문을 실시하였다.
백암-고성통일전망대-설악의 경로를 따라 실시한 이번 친목단합 대회에서는 회원들이 판문점의 방문을 통해 북괴의 남침야욕의 실상을 직접 대하게 되어 반공의식을 한층 높이게 됨으로써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경기도지부
(지부장 이종은)

●체육선수 격려금 전달
이종은 지부장은 10월15일 제10회 아시아경기 대회에 출전한 경기도 선수단 환영식에 참석하여 격려금 30만원을 도체육회장에게 전달하였다.

●자연보호운동 실시
충북 제천시에 있는 탁사장 유원지에서 10월23일 회원친목 단합대회를 하였으며 1백29명의 임원, 회원 및 직원 일동은 부근 일대에서 버려진 오물을 주으며 자연보호운동을 벌였다.

경상북도지부
(지부장 김영길)

●자매결연 위한 간담회
10월17일 지부회의실에서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계명대학교 황종동 부총장, 건축공학과 김성은 과장, 이중우 교수를 맞은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어 •전시회 공동개최 •건축자료 상호교환 •장학사업 전개 등을 실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황종동 부총장은 간담회에 앞서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제10회 비사건축전 개최시 적극 협조하여 성공적인 전시가 되도록 협력하여 준데에 대한 감사 표시로 지부장과 안동분소장, 경주분소장, 김천분소장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비사건축전은 안동(4.28~4.30), 경주(5.2~5.5), 김천(5.7~5.9)에서 각각 순회 개최된 바 있다.

●대의원 간담회
10월30일 개최할 본협회 제21회 정기총회에 대비한 대의원 간담회를 10월17일 지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지부장을 비롯, 대의원 전원 등 7명이 모인 본간담회에서는
•'8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독립예산제도 연구 •건축사 연금제도 실시와 그 운영방법
•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제주도지부
(지부장 양창완)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했던 제주도 출신 선수 환영 잔치가 제주도 주관으로 10월11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행사의 실황 중계를 맡은 제주문화방송 텔레비전에 회원공동부담(비예산)으로 지부 홍보의 스파트 광고를 내보냈다.
환영잔치 실황중계 예고화면과 동시에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선수 환영잔치. 이 잔치의 실황중계는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협찬으로 진행됩니다〉라는 음성방송을 내보냈으며 〈협찬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라는 자막이 화면에 방영되도록 했다.
이 예고방송은 10월9일부터 11일까지 아침과 저녁 뉴스시간대에 6번 방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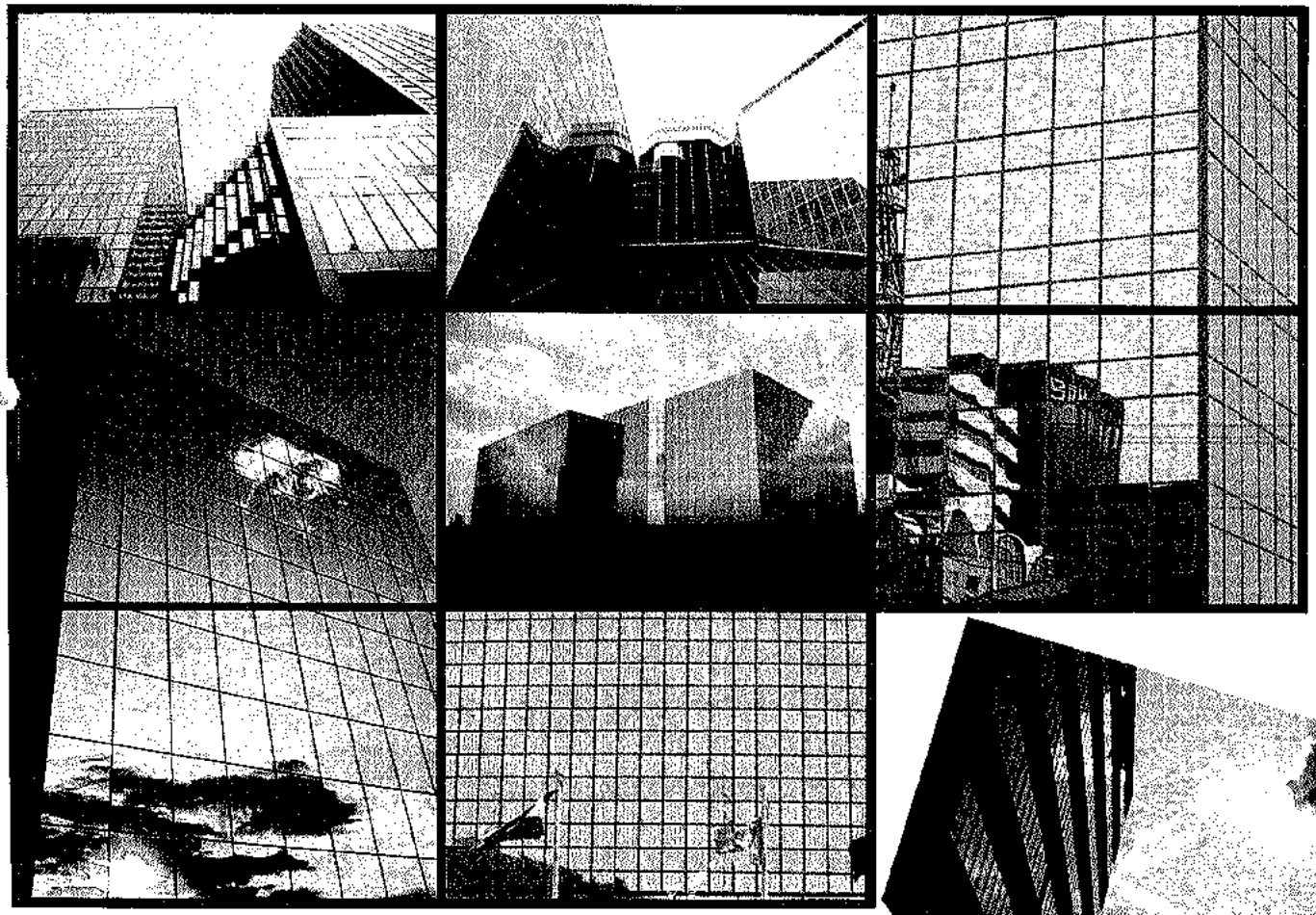
벼베기로 농촌일손을 돕는 회원과 직원(대구지부)

건축분야부조리척결대책교육(인천지부)

반공의식을 드높인 판문점 방문(인천지부)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관계자와의 간담회(경북지부)

현대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반사유리



플로트 공법에 이은 새로운 유리기술의 개가

한국의 유리문화를 주도해 온 한국유리는 플로트공법에 이어 미국의 Airco사로부터 이온 스파트링(Ion Sputtering) 공법을 도입하여 더욱 우수하고 다양한 반사유리를 생산하고 있읍니다.
이온 스파트링 공법은 이온의 확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고진공에서 가스를 방전시켜 가속된 가스이온이 금속 타케트를 때려 코팅시키는 공법으로 막의 밀도가 높고 밀착성이 뛰어나며 전체가 균일하게 코팅되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코팅물질에 따라 그 색상이 다양하며 빛이나 열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생동감 넘치는 외관, 쾌적한 실내환경

●**에너지 절약**—태양광선의 투과와 반사를 적절히 조절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냉난방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큽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반사유리는 빛에 대한 성질을 변화시켜 커튼이 없어도 외부시선이나 직사광선에서 실내를 보호하며,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안락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아름다운 외관**—색상이 다양할 뿐 아니라 반사에 따른 거울 효과로 자연과 주위의 전경이 건축물에 담겨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유리의 반사유리는 태양광선의 반사율이 높은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와 한랭한 지역의 보온을 위하여 개발한 난방보온유리(Low-E Glass)가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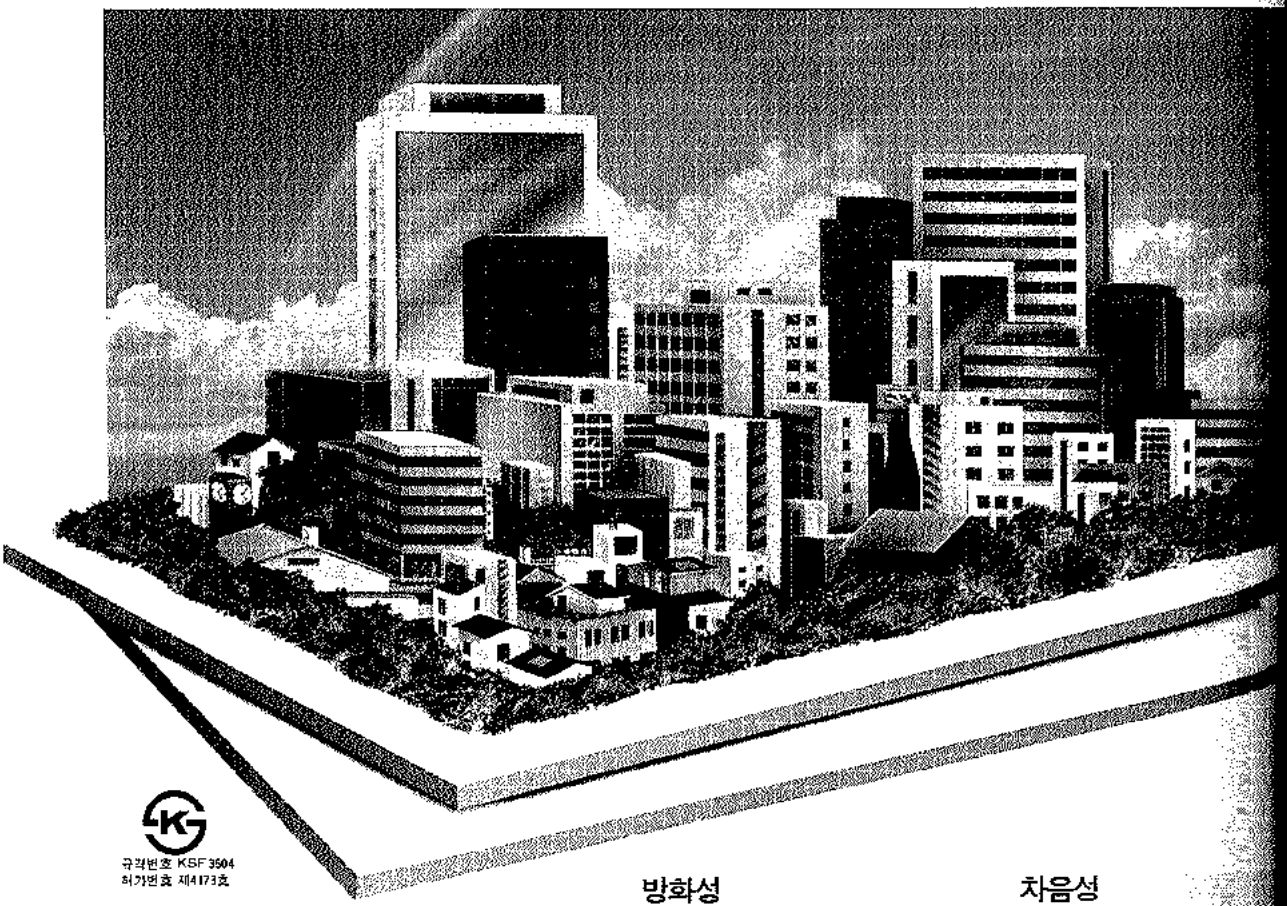
●**용도** — 일반건축 및 고층 빌딩의 창(특히 공기조절 설비를 갖춘 건물에 좋습니다)
— 건물로비 등 대형 스크린창
— 복층유리 등의 가공제품
— 사생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곳
— 태양열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 실내 보온이 요구되는 곳

새로운 유리문화를 창출하는
韓國유리
HANKUK GLASS INDUSTRY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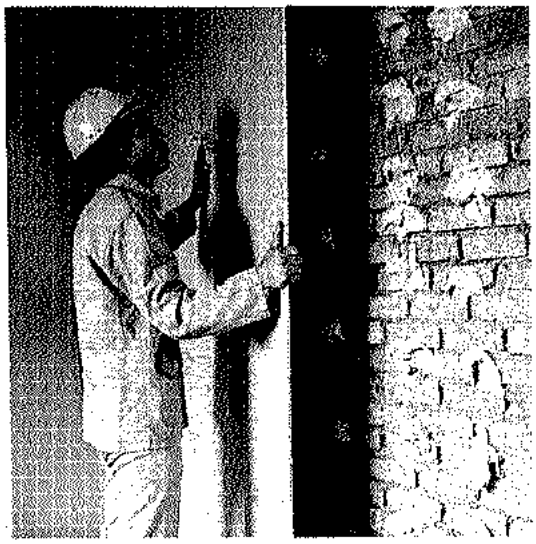
주식회사 금
Keumka

석고보드도 '역시,
「금강석고보드」입니다

(주)금강은 뛰어난 품질의 각종 무기질건축재를 개발하여 에너지1조원절약운동에 앞장서고 있읍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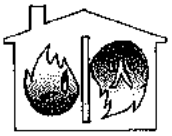


규격번호 KSF 3504
허가번호 제4173호



방화성

석고에는 약21%의 결정수가 함유되어 있어 가열하면 이 결정수의 방출이 종료 될 때까지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여 대표적인 건축 방화재료로 이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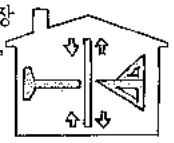


차음성

금강석고보드는 석고와 종이의 복합재질로서 같은 중량의 다른 자재들보다 차음성이 뛰어납니다.

무변형

금강석고보드는 가장 안정된 재질로 온도, 습도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으며 시공후 뒤틀리거나 이음매 부분의 틈이 벌어질 염려가 전혀 없읍니다.



시공성

금강석고보드는 칼로도 쉽게 절단할수 있으며 못, 나사, 본드 등으로 어디에나 부착할 수 있읍니다. 또한 페인트, 벽지 등 어떤 마감재로 쉽게 마감할 수 있읍니다.

不燃

금강석고보